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최영표

이현영 이한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최영표

이현영 이한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

【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위 원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
	최 진 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흥 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추진 중에 있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의 하위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동북아 한국을 비롯한 상대 국가에 대하여 일반적인 친밀감 또는 친소 관계 및 상대방 국가의 사회와 국민, 문화 등에 관한 상호 이해 수준과 3국의 교육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요구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 중국과 일본의 역사 및 사회과 교과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한국과의 교류관계, 2) 동북아 3국의 국가 이미지 및 정서와 행동과 관련된 국민의식수준, 3) 국가간 구체적 정보습득수준, 4) 동북아 3국간 상호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요구 및 의견 수렴, 5) 한·중·일 3국의 학생과 교원의 생활실상 및 관심사항, 6) OECD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2. 중국 및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중국의 역사 및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문화, 교류협력 관련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고대사에서 한중간 교류, 청일전쟁,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 등 대부분의 중국교과서는 중화주의의 시각에서 한국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고구려를 노예제 국가로 기술하며, 의병전쟁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기술하며,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는 등 중국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술로 많다. 셋째, 고구려에 대한 표기문제, 신라시대 정치체

제의 기술,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참전 내용 등에서 오기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오도된 자료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 넷째, 최근 한국 학술계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한국정부와의 수교상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사회와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에 관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의 경우 조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피해상황의 서술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침략’ 대신 ‘출병’ 등의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여전히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고대 한일관계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므로 기술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산천출판 발행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대륙문화의 전달, 조선통신사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차츰 축소되고 있고, 임진왜란, 한국전쟁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일본 역사 교과서들의 한국관련 내용에는 왜곡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후소사와 같은 우익성향의 교과서의 경우는 강도를 한층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본교과서의 기술과 관련하여 식민지 침략의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왜곡된 교과서 기술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과 다민족이 공존하는 국제화 시대에 각 민족과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데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계평화와 아시아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정착을 위해서

는 양국 후세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일본 바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정보센터』와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차원에서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체험 및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일본교사 초청연수를 통해서 유적지답사, 현장체험, 한국교사와의 대화의 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다섯째,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이해자료를 배포대상자나 기관성의 격에 맞추어 제작하고 시기적절하게 배포하는 일이 중요하다.

3. 한·중·일 3국의 상호 국가인식 실태

동북아 3국 국민의 상호간 국가 이미지, 국민의식수준, 분야별 정보인지수준 등 국가인식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과거사 청산문제, 한중간 역사 교과서 문제, 중일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점유 분쟁 등 현재 한·중·일 3국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영토문제와 과거사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상호간 국가 이미지 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능력과 활동과 같이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고 국민적 성향이 명확한 항목에서는 상호간 보통 또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좋은-나쁜’, ‘정직한-부정직한’ 등 정직성과 심성적 항목이 있는 평가요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상호간 보통 이

하의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평가적 차원에서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중일 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한국은 중국, 일본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상호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3국 국민들은 자국중심의 배타적 성향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식수준 평가 시 질서, 인권, 인권, 환경, 타국문화존중, 약속준수 등 선진문화지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자국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보통 이상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에 금전적 중요성, 자국이익중시, 과거중시 등 부정적 항목에 대해서는 자국민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 국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배타적 성향이 동북아 3국 국민에게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넷째, 중국과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문화 분야의 인지도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3국 교원들은 상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들어났으나, 학생들은 상호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 대한 상호 인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중·일 3국의 국가 호감도

국가 이미지와 국민의식에 대한 평가는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 호감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국 학생과 교원들은 중국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

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북아 3국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위권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 호감도,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사귀고 싶은 친구의 국적, 유학가고 싶은 국가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OECD 주요 국가와의 국제비교분석에서 동북아 3국은 전반적으로 서구선진국가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영어를 제외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각 국가별로 높은 순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주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 인식, 생활만족도

한·중·일 3국의 학생과 교원에 대해 상호교류 및 교육분야 협력요구, 관심사항, 국가선호도의 국제비교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3국의 교육부문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우선 협력분야에서 교육부문의 협력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 중 상당수가 한국과의 문화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류열풍의 여파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북아 3국의 교육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한중 학생과 교원들은 상호언어교육, 상호학교방문, 교사학생교환 등 직접적 체험과 인적교류에 기반을 둔 교육분야협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학생들과 교원들은 상기한 세 항목 이외에도

스포츠 및 문화행사 교류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셋째, 동북아 3국 학생 중 한국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대학입시와 성적과 같은 공부와 관련된 요소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일본 학생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직업진로문제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3국 교원들의 현재 주요 관심사항은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한국 교원들과 일본 교원들은 비슷한 비중으로 가르치는 교과목과 진학지도 문제를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보인 반면, 중국의 교원들은 교원처우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으며 진학지도문제가 다음 관심사항으로 나타났다.

6. 동북아 3국 교육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과 경제협력이 진전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교육 교류협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실태를 보면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한 관심은 폭증하고 교육 분야의 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류협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과의 교육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향 교류보다는 일방적인 교류의 감을 씻을 수 없다. 초기의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벗어나 현재는 정부주관 교류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교류협력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다시 한 번 약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상호 간의 현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며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협력 상설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학생과 교원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맞이하여 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확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일 양국 간의 균형 잡힌 교육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한층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교육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민간형 전문교육교류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체는 현장의 교육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교류 통계 및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사업을 벌여 정부와 민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교육교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알차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정부주도하의 교육교류 및 문화교류의 경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체계적으로 이들 업무를 전담하고 일선 학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그들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단계별·유형별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여섯째, 교육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가칭 ‘동북아교육협력 교류기금’을 설치하는 등 교육교류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분야의 교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국제교육교류의 참의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 방법	5
4. 설문조사의 개요	5
II. 중국 및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9
1. 중국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11
2.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27
III. 한·중·일 3국의 상호 국가인식 실태	43
1. 국가 이미지 및 국민의식 수준	45
2. 한·중·일 3국의 분야별 정보인지 수준	66
3. 소결	81
IV. 한·중·일 3국의 국가 호감도	83
1. 한·중·일 3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85
2. 주요 국가에 대한 국가 호감도	88
3. 소결	92
V. 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 인식, 생활만족도	95
1. 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 인식	97
2. 교원·학생의 생활만족도 및 관심사항	108
3. 소결	116

Ⅵ. 요약 및 제언	117
1. 요약	119
2. 제언	129
참고문헌	135
부 록	139

표 목 차

〈표 I-1〉 설문규모 및 회수율	6
〈표 I-2〉 조사내용 체계도	8
〈표 III-1〉 국가 이미지 요인 분류	46
〈표 III-2〉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상대국의 국가 이미지	46
〈표 III-3〉 한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요인 인식	47
〈표 III-4〉 한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능력 요인 인식	48
〈표 III-5〉 한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활동성 요인 인식	48
〈표 III-6〉 중국 국민이 생각하는 상대국의 국가 이미지	49
〈표 III-7〉 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요인 인식	50
〈표 III-8〉 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능력 요인 인식	50
〈표 III-9〉 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활동성 요인 인식	51
〈표 III-10〉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상대국의 국가 이미지	51
〈표 III-11〉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요인 인식	52
〈표 III-12〉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능력 요인 인식	52
〈표 III-13〉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활동성 요인 인식	53
〈표 III-14〉 한국 학생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55	
〈표 III-15〉 한국 교원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56
〈표 III-16〉 중국 학생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58
〈표 III-17〉 중국 교원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59
〈표 III-18〉 일본 학생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61
〈표 III-19〉 일본 교원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62
〈표 III-20〉 한국 학생, 교원이 생각하는 각국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	63

〈표 Ⅲ-21〉 중국 학생, 교원이 생각하는 각국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	64
〈표 Ⅲ-22〉 일본 학생, 교원이 생각하는 각국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	65
〈표 Ⅲ-23〉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보취득경로	66
〈표 Ⅲ-24〉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보취득경로	67
〈표 Ⅲ-25〉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보취득경로	68
〈표 Ⅲ-26〉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치분야 인지여부	69
〈표 Ⅲ-27〉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치분야 인지여부	70
〈표 Ⅲ-28〉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치분야 인지여부	70
〈표 Ⅲ-29〉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경제분야 인지여부	71
〈표 Ⅲ-30〉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경제분야 인지여부	72
〈표 Ⅲ-31〉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경제분야 인지여부	72
〈표 Ⅲ-32〉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사회분야 인지여부	73
〈표 Ⅲ-33〉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사회분야 인지여부	74
〈표 Ⅲ-34〉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사회분야 인지여부	74
〈표 Ⅲ-35〉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문화분야 인지여부	75
〈표 Ⅲ-36〉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문화분야 인지여부	76
〈표 Ⅲ-37〉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문화분야 인지여부	77
〈표 Ⅲ-38〉 한국 학생과 교원이 인지하고 있는 상대국민 직업분포	78
〈표 Ⅲ-39〉 중국 학생과 교원이 인지하고 있는 상대국민 직업분포	79
〈표 Ⅲ-40〉 일본 학생과 교원이 인지하고 있는 상대국민 직업분포	80

〈표 IV-1〉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86
〈표 IV-2〉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87
〈표 IV-3〉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88
〈표 IV-4〉 호감이 가는 국가	89
〈표 IV-5〉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90
〈표 IV-6〉 사귀고 싶은 친구의 국적	91
〈표 IV-7〉 유학가고 싶은 국가	91
〈표 V-1〉 한국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경험	97
〈표 V-2〉 중국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경험	98
〈표 V-3〉 일본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경험	98
〈표 V-4〉 한국과 상대국과의 우선 협력분야	99
〈표 V-5〉 중국과 상대국과의 우선 협력분야	100
〈표 V-6〉 일본과 상대국과의 우선 협력분야	101
〈표 V-7〉 한국 학생과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102
〈표 V-8〉 중국 학생과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103
〈표 V-9〉 일본 학생과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104
〈표 V-10〉 중국,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한 선호도	105
〈표 V-11〉 한국,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한 선호도	106
〈표 V-12〉 한국,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한 선호도	107
〈표 V-13〉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생활만족도	108
〈표 V-14〉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생활만족도	110

〈표 V-15〉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생활만족도	111
〈표 V-16〉 한국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112
〈표 V-17〉 중국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113
〈표 V-18〉 일본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114
〈표 V-19〉 한·중·일 교원들의 주요 관심사항	115

그림 목 차

〈그림 II-1〉 김일성 모습 1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추진 중에 있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의 하위 과제로서 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2004년)에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분야 교류협력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의 교육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교류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올해에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상호이해에 관한 인식조사는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 경향, 지식과 태도, 정서 경향을 조사함으로써 상호 교류협력의 실상을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의 과제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려고 한다.

동북아시아 3국, 즉 한국과 일본, 중국은 현재 과거사, 영토, 무역관계, 문화예술 교류 등에서 많은 현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증진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의 과제는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3국간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 사업은 학생과 교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국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상대 국가에 대하여 일반적인 친밀감 또는 친소 관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고, 상대방 국가의 사회와 국민, 문화 등에 관한 상호 이해 수준을 조사하고자 한다. 동시에 3국의 교육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요구 및 의견

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 이해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분야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3차년도(2006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국의 국제협력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내용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 3국의 상호이해실태 분석을 위해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한다.

첫째, 중국과 일본의 역사 및 사회과 교과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한국과의 교류관계를 살펴본다.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과서 기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동북아 3국 국기와 기본적 이미지 및 정서와 행동과 관련된 국민의식수준을 분석하여 3국 국민간의 기본적 인식수준을 평가한다.

셋째, 동북아 3국 국민의 국가간 구체적 정보습득수준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미흡한 분야를 파악하여 해당 분야의 교류증진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동북아 3국간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요구 및 의견을 조사하며 교육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유형을 파악한다

다섯째, 동북아 3국의 학생과 교원의 생활실상 및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교육협력을 위한 공통사항을 도출한다.

여섯째, 주요 항목에 대해 한·중·일과 OECD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원이 생각하는 동북아 3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해 동북아 3국의 문화와 교육의 특성 및 상호 이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행 사용 중인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를 검토하여 중일 교과서 내에 기술된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 및 기본적인 성향·시각을 분석하였다.

셋째, 동북아 3국의 상호이해에 관한 실태분석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대도시 지역 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 현지 주재 교육관을 통한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및 면담도 병행하였다.

넷째,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설문지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중일 교과서 검토의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4. 설문조사의 개요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대도시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원은 각 학교당 20명 씩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다. 한국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각 2개 학교씩 총 10개 학교를 표집하여, 학교당 학생 80명, 교원 20명을 조사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북경 1개 학교, 상해, 천진 각 3개 학교 장춘 2개 학교, 총 9개 학교를 표집하여 학교당 학생 80명, 교원 20명을 조사하였다. 일본은 미야기현, 기후현, 이치현, 오사카 지역의 4개 학교를 표집하여 학교당 학생 120명(기후현은 160명), 교원 20명 씩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국내학교의 경우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에서 직접 KEDI로 회송하도록 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 현지 주재 교육관을 통한 조사 협조를 의뢰하여 협조공문과 질문지를 국제우편으로 우송하고 해당학교에서 회송하도록 하였다.

〈표 I -1〉 설문규모 및 회수율

국가	지역	설문규모		대상자	응답자	회수율
		학생	교원			
한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800명	200명	1,000명	938명	93.8%
중국	북경, 천진, 장춘, 상해	720명	180명	900명	876명	97.3%
일본	도쿄, 미야기, 기후, 이치, 오사카	520명	80명	600명	414명	69.0%

나. 조사내용

설문내용은 크게 피설문자의 배경요인 항목, 상대국의 정보습득경로 및 전반적인 인식항목,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평가 항목, OECD국가와의 비교문화, 교원·학생들의 관심사항 항목, 한·중·일 국가간 협력관계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한·중·일 국가간 상호인식실태 및 평가영역과 한·중·일 학생·교원간 교류협력, 생활만족도, 국제비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3국의 상호국가의 인식평가에 대한 문항으로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평가 문항은 각 국가의 학생과 교원들이 자국(민)과 상대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활동, 능력, 평가수준과 상대국가 국민들의 정서 및 행동과 관련된 국민의식지표(애국심, 질서 의식, 인권, 환경 등), 상대국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상대국의 정보습득경로 및 전반적인 인식관련 문항은 상대국가의 정보를 취득한 경로와 계기를 살펴본 후 그러한 경로와 계기를 통해 얻은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유형, 상대국에 대해 가지게 된 일차적인 이미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한·중·일 국가간 협력관계 항목에서는 각국의 학생과 교원들이 생각하는 국가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동북아 3개 국가간의 최우선 협력유형에 대해 살펴본 후, 교육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유형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교원, 학생들의 관심사항 항목에서는 생활만족도와 각 국가의 교원과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동북아 3개 국가의 교육현실에 대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국제비교분석 문항에서는 한·중·일 국가 외에 주요 OECD 국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동북아 3개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표 I -2〉 조사내용 체계도

영역	소영역	주요설문내용
국가 인식 실태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평가	평가, 능력, 활동적 요인
	정서와 행동과 관련된 국민의식평가	애국심, 질서 의식, 인권, 환경, 문화, 금융 등
	추구하는 가치 또는 최고선	재산, 명예, 권력, 학식 등
	전반적인 국가 호감도	
	정보습득수준	정보습득경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알고 있는 사람
동북아 상호협력관계, 주요관심사항, 국제비교분석	한·중·일 국가간 협력관계	국제교류경험 유무
		최우선 협력과제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한·중·일 유학의 선호도
	교원, 학생들의 관심사항	생활만족도
		학생의 주요관심사항
		교사의 주요관심사항
	OECD 국제비교분석	전반적 호감국가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친구교제 희망 국가
유학 희망 국가		

II

중국 및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1. 중국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중국의 학생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중국의 역사교과서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역사와 세계사 과목을 통해 인접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외국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가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설문조사에 앞서 중국의 역사와 세계사 교과서¹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에 관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한국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1) 초급중학 단계

『중국역사 2책, 2』당과 신라의 관계 부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한국 고대사 부분을 빼고 신라부터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 당 시기 국가에 성립된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또한 조선반도 각국 부분에서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하고 있다.

“당(唐)과 신라(新羅)의 우호관계 수(隋)나라와 당(唐)나라 연초에 조선반도의 나라들은 중국과 모두 왕래가 있었다. 7세기 후기에 신라와 당조(唐朝)의 왕래는 빈번하였다. 당조의 외국유학생 가운데 신라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신라상인들의

¹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2003년 현재 중국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급중학교 역사통용본 중국역사 2책과 3책, 세계역사 1,2,3책, 역사실험본 7학년 중국역사 하권, 8학년 중국역사 상, 하권, 그리고 고급중학교의 중국고대사(선택), 중국근대현대사 상권과 하권(필수 포함), 세계근대현대사 상권과 하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최영표, “중국의 교육개혁과 한국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주변국가의 한국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보고 KU-CR 03-04, 2003).

발자취는 중원에서부터 강절(江浙)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을 가리킴 - 지방에까지 이르렀다. 신라의 산물(物産)은 당조 수입에서 최상위를 차지하였다.”

“신라의 당조 유학생들은 귀국 후 당조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였다. 그중 최치원(崔致遠)이 유명하였는데, 그는 소년시절에 당조에 와서 18세에 진사(進士) 급제하였다. 그의 한시문(漢詩文)은 아주 잘 썼다. 당조에서 신라로 파견되는 사자(使者)는 항상 학문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당현종(唐玄宗)은 한 학자를 파견하여 신라에 출사(出使)한 적이 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신라는 군자(君子)의 나라로 불려 문사(文史)에도 자못 통(通)하여 중화(中華)와 비슷하였다. 그대의 학문으로 또한 강론(講論)도 잘 하기 때문에 그대를 파견하는 것이다.”

위 내용 중 윤명조체로 된 부분만 교과서의 본문(本文)이고 나머지 기울임체로 된 부분은 교과서의 설명문자로서 원 교과서에서는 연한 푸른색으로 표시해두었다. 그리고 위 본문내용 중 “조선반도의 나라들”에 각주를 달아두었는데, 각주내용은 “수조(隋朝)와 당조(唐朝) 초년에 조선반도에는 고려(高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등 세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중국역사 3책』갑오중일전쟁 부분에서는 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다투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청의 대조선 간섭정책을 숨기고 있다. 이는 중화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학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한데 이는 북한학계의 연구 성과에 경도된 결과이다.

“갑오중일전쟁 1894년에 조선의 동학당(東學黨)이 봉기하였다. 조선국왕은 청정부(淸政府)에게 출병하여 진압을 도와주도록 요청하였다. 일본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역시 조선에 파병하였다. 동학당의 봉기가 평정된 후에 일본은 계속 조선으로 군대를 증파하여 중일전쟁(中日戰爭)을 도발하려고 준

비해왔다.

일본해군은 조선 아산구(牙山口) 밖의 풍도(豊島) 해상에서 청군의 군대수송선을 습격하였고 청 정부는 부득불 일본에 전쟁을 선언하였다. 갑오중일전쟁(甲午中日戰爭)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동학당은 동학교도(東學敎徒)를 가리킨다. 동학은 19세기 90년대에 조선 남부에서 널리 전파되었던 하나의 종교인데, 반정부 및 반침략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세계역사 1책, 10』동아시아의 봉건국가 - 신라의 통일과 조선왕조의 건립 부분에서는 조선민족의 활동무대를 중국 동북지방을 제외하고 한반도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학계의 기본시각이다. 한편 고구려를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한 나라로 오기하고 있으며 고구려를 노예제 국가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시각의 사회발전단계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75년간의 고려 왕조에 대해서는 “10세기 왕건이 창립하였다”라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음

“신라의 통일과 조선왕조의 건립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조선반도에서 살아 왔다. 기원 전후의 시기에 조선반도의 북부를 통치한 나라는 고구려 노예제 국가였다. 그 후 반도의 서남 및 동남부에서 또 선후로 백제와 신라의 두 노예제 국가가 나타났다. 그 후 몇 백년 동안 반도에서는 줄곧 삼국정립(三國鼎立)의 국면이었다. 봉건관계가 선후로 세 나라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676년에 신라는 조선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통일 후 신라의 경제문화는 한층 더 발전하였다. 벼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농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수공업 가운데 금은세공과, 비단의 방직이 모두 유명하였다. 상업과 내외 무역도 흥성해지기 시작하였다. 신라와 중국 및 일본의 무역은 매우 활발하였다.

통일신라시기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외래문화를 흡수하면서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의 유학사상과 학설을 신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귀족자제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라에서는 국학을 설립하고 유가의 경전을 가르쳐 주었다. 8세기에 신라는 또 당조의 제도를 모방하여 과거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통일신라시기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 기간에 많은 학식 있는 승인(僧人)이 나타났는데, 그중 혜초(慧超)는 매우 유명하였다. 그는 젊었을 때 중국의 당조에서 유학하였다. 후에 그는 중국으로부터 남해를 거쳐 인도까지 항행(航行)하여 불교의 유적을 찾아다녔고 책을 저술하여 여행도중의 견문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의 불교예술도 따라서 발전하였다. 수도 경주에 석굴암이 있는데 그 곳의 석벽(石壁)에는 불상이 부조되어 있고 또한 높이가 3미터에 달하는 석가모니 조각상이 있다.“

『세계역사 2책, 1』사회주의 역사의 발전 -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탄생 부분에서는 남북 분단의 배경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으며 김일성 소개하면서 항일투쟁을 전적으로 이끌었다고 오기하고 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투항한 뒤 소련과 미국 군대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조선의 북부와 남부에 각각 진주하였다. 1948년 8월에 남반부에서 대한민국의 성립을 선포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반부에서 성립을 선포하고 김일성이 내각수상을 담임하였다.

김일성은 평양 만경대에서 태어났고 일찍 중국 동북에서 공부하면서 혁명활동에 종사하였다. 1932년에 그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여 중조(中朝)변경지역에서 유격전쟁을 전개하였는데, 얼마 뒤 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을 영도하여 오래 동안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해왔다.”

『세계역사 2책, 19』미국의 패권정책 - 미국의 조선침략전쟁 부분에서는 6·25전쟁을 설명하면서 중국대 미국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

〈그림 II-1〉 김일성 모습



★金日成 (1912—1994)

다. 이 교재에서는 한국군대를 남조선 군대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유엔군의 참전을 조선에 대한 무장침략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침략전쟁 아시아에서 미국은 역시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의 침략확장세력을 크게 타격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신중국과 소련을 표적으로 河는 일련의 군사기지를 건립하여 신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1950년 6월 25일에 조선전쟁이 폭발하였다. 이를 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미국 해군과 공군에게 조선에 진입하여 작전함으로써 패전 당한 남조선군대를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동시에 그는 미국 제7함대에게 대만해협에 침입하도록 명령하여 무력으로 중국인민이 대만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얼마 뒤 미국은 또 “연합국”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미군을 위주로 한 “연합국군”을 구성하여 조선을 무장 침략하였고 곧바로 중조변경까지 진입하였다.”

“1950년 9월에 미군 대부대는 조선 서해안의 인천항에 상륙하였다. 10월에 미군은 “삼팔선”을 넘어 조선북부에 진입하였고 압록강으로 돌진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군용비행기는 중국 동북의 영공을 침범하여 압록강 북쪽 지방을 폭격하고 소사(掃射)하였다.”

“미국의 무장침략을 반격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과 김일성의 영도 하에 용감하게 저항하였다. 중국의 안전이 엄중하게 위협받고 있는 시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1950년 10월에 중국인민지원군은 압록강

을 건너 조선인민군과 어깨 곁고 작전하여 미국 침략군을 삼팔선 부근으로 후퇴시켰다. 미국은 부득불 휴전담판의 진행을 동의하였다. 1953년 7월에 미국은 부득불 승리하지 못한 조선휴전협정에 서명하였고 조선전쟁은 종결되었다.

조선전쟁에서 미국은 본국의 육군의 1/3, 공군의 1/5과 해군의 1/2을 동원하였고 또한 15개 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였다. 미국이 지출한 직접 군비는 200억 달러가 넘고 원자탄을 제외한 모든 현대화 무기를 사용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2) 고급중학 단계

『중국 근현대사 하책』5장, 1절, 항미원조보가위국 부분에서는 6·25전쟁을 언급하면서 도발의 배경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어 있는데 과거 교과서에서 “미제가 일으켰다”는 서술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재에서는 6·25를 중국과 미국의 대항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참전 배경 및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 항미원조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도판자료인 중국인민지원군 입조작전도에서 중국인민군의 진출로를 소개하면서 38선 이남까지 조선으로 명기하고 있다.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 1950년6월에 조선 내전이 폭발하였다.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미군을 위주로 한 이른바 “연합국군”은 “삼팔선”을 넘어 중국의 변경인 압록강변까지 진격하였고 미군비행기는 중국의 영공을 침입하여 중국 동북의 변경도시들을 폭격하였고 미국의 제7함대는 중국의 대만해협에 침입하여 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을 저지하였다. 미국의 침략활동은 중국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중국정부에서 파병하여 원조해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항미수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을 위하여 1950년 10월에 팡덕희(彭德懷)를 사령원(司令員)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의 전선으로 출동하여 조선의 군민(軍民)들과 함께 미국침략자들을 항격하였다.(중략)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전쟁에서 고도의 애국주의와 혁명영웅주의 정신을 발양하여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불리웠다. 그들과 조선군민들의 용감한 전투로 말미암아 1953년 7월에 미국은 부득불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中朝 인민들은 반침략전쟁의 승리를 취득하였고 중국인민지원군은 조국으로 개선하였다.“

『중국 근현대사 하책』10장, 1절. 외교의 새 국면 개척 부분에서는 제네바회의에서의 북한 측 주장만 언급하고 한국 측의 주장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50년대 중기에 우리나라는 외교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취를 이룩하였다. 1954년의 제네바(日内瓦)국제회의에서 신중국(新中國)은 최초로 세계 5대국의 지위로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중국은 주은래(周恩來)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1954년 4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제네바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단계에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토론을 하였는데, 중국,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대국을 비롯한 19개 국가가 참가하였다. 주은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외상(外相)이 제출한 평화적으로 조선의 국가통일을 회복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미국의 반대로 회의는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회의의 제2단계에는 인도지나평화회복문제를 토론하였다. 회의가 난국에 빠져있을 때 주은래는 인도지나에서 적대적 행동을 중지할 데 관한 여섯 가지 건의를 제기하여 회의의 진전을 추진하였고, 결국 〈인도지나 평화를 회복할 데 관한 제네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중국 근현대사』4장, 4절. 아시아의 각성 부분에서는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기술하고 있으며 의병운동을 “인민대중들의 지지 하에” 라

고 소개하여 사회주의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시아의 각성**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제국주의의 침략은 아시아 각국의 민족적 위기를 심화시키었다. 아시아 인민들은 반제, 반봉건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켰다. 그 중에서 중대한 사건으로는 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 중국의 의화단 운동과 신해혁명, 20세기 초의 인도민족해방운동, 이란과 터키의 자산계급혁명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 인민들의 반제, 반봉건투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양양은 아시아의 각성을 표징한다.”

“일본이 점차적으로 조선을 병탄하는 과정에 조선인민들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쉬 없이 벌려나갔다. 1907년에 일본이 조선을 강박하여 군대를 해산시키자 광범한 애국적 장병들은 분연히 일어나 반항하였다. 그들은 인민대중들의 지지 하에 무장투쟁을 벌려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비록 의병운동이 중국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이 운동은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엮어 놓았다.” (144쪽)

『중국 근현대사』 4장, 3절. 아시아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부분에서는 한반도 분단 고착화만 언급하고 배경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으며 남북한 단독국가 수립을 설명하면서 김일성만 언급하고 있다.

제4장 제3절 아세아인민민주주의국가의 성장

“일본이 항복한 후 소련군과 미군은 북위 38도선을 계선으로 하여 각기 조선의 북부와 남부에 주둔하였다. 1948년 8월에 조선반도 남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서울을 수도로 하였다. 그해 9월에 조선반도 북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평양을 수도로 하였으며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였다. 조선반도는 이때로부터 분단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115~116쪽)

나. 한국에 대한 의식, 이미지 형성 관련 내용 - 문화

(1) 초급중학 단계

『중국역사 2책, 2』당과 신라의 관계 부분에서는 최치원을 거론하면서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계원필경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라에 대한 서술부분이 동 시대의 일본 역사 기술량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문화후진국이라고 오도할 가능성이 많다.

“신라의 당조 유학생들은 귀국 후 당조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였다. 그중 최치원이 유명하였는데, 그는 소년시절에 당조에 와서 18세에 진사 급제하였다. 그의 한시문(漢詩文)은 아주 잘 썼다. 당조에서 신라로 파견되는 사자(使者)는 항상 학문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당현종(唐玄宗)은 한 학자를 파견하여 신라에 출사(出使)한 적이 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신라는 군자(君子)의 나라로 불러 문사(文史)에도 자못 통하여 중화(中華)와 비슷하였다. 그대의 학문으로 또한 강론(講論)도 잘 하기 때문에 그대를 파견하는 것이다.”

『세계역 1책, 10』동아시아의 봉건국가 - 신라의 통일과 조선왕조의 건립 부분에서는 혜초를 거론하면서 왕오천축국전은 소개하지 않는다.

“통일신라시기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 기간에 많은 학식 있는 승인(僧人)이 나타났는데, 그중 혜초(慧超)는 매우 유명하였다. 그는 젊었을 때 중국의 당조에서 유학하였다. 후에 그는 중국으로부터 남해를 거쳐 인도까지 항행(航行)하여 불교의 유적을 찾아다녔고 책을 저술하여 여행도중의 견문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의 불교예술도 따라서 발전하였다. 수도 경주에 석굴암이 있는데 그 곳의 석벽(石壁)에는 불상이 부조(浮彫)되어 있고 또한 높이가 3미터에 달하는 석가모니 조각상이 있다.”

이외에도 한글을 언급하면서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은 언급하지 않으며 도판자료인 금동장식 유물의 시대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고구려 시대의 유물로 판단되나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판자료인 측우대를 소개하면서 제작시기인 건륭황제시기의 연호도 지워져 있다. 이는 북한자료의 인용결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시기 문화는 한층 더 발전하였다. 15세기에 조선은 문자(文字) 방면에서 중대한 성취를 이룩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조선언어를 연구하면서 중국 어음학(語音學)의 성취와 결부시켜 28개 자모를 만들었는데, 이 문자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같은 시기 조선에서는 수력(水力)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기구를 발명하였고 또한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었다.”

(2) 고급중학 단계

『중국 근현대사 하책』2장, 8절.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부분에서는 조선의 경제성장만 추상적으로 소개하고 문화발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14세기에 고려대장인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으며 국호를 조선이라 고치고 조선왕조를 수립하였다. 조선왕조전기에 봉건국가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여 생산을 발전시키었다. 경작지가 늘어나고 수공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상업도 뚜렷하게 발전하였다. 전국 각지에 무역시장이 나타났는데 서울과 평양은 두 개의 큰 상업중심으로 되었다. 16세기 말엽에 조선에서는 사회모순이 격화되고 농민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통치계급 내부에서도 봉당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서원 출신의 귀족자제들은 유학을 표방하면서 사람파를 묶고 정권을 쥐고 있는 관료귀족들로 이루어진 훈구파와 권세를 다투었는데 그로

하여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인민들이 도탄 속에서 허덕이
었다.”

다. 한국과의 교류협력 관련 내용

(1) 초급중학 단계

『중국역사 2책, 2』당과 신라의 관계 부분에서는 신라와의 문화교
류사만 논의하고 있다. 사실 신라는 당시 세 나라 중에서도 당나라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가장 활발한 관계를 전
개해왔고, 또한 그중 상당부분의 내용은 신라 측에서 주체적으로 추
진되었는데 위와 같은 역사적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고 있다.

『중국역사 3책』갑오중일전쟁 부분에서는 한중 관계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시모노세키조약을 언급하면서 제일 중요한 조선독립 인정, 한
중간 조공관계 폐지에 대한 언급 등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중화주의
시각과 한국 학계의 근대사 연구성과를 잘 모르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1894년 8월 1일에 청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상태를 공식
선언하기 직전인 7월 25일에 서울의 대원군 정부는 서울을
이미 장악한 일본 측의 요구에 의해 당시 외무독판(外務督辦)
조병직(趙秉稷)의 명의로 서울주재 청 정부 “주찰조선총리교
섭통상사무(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務)”(당소의 대리: 唐紹
儀 代理)에게 조회(照會)를 발송하여 앞서 1882년에 체결된『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등 3개의 장
정(章程)을 폐지한다고 공식 통보하였다.”

말하자면 청일전쟁 직전에 당시 조선왕조와 청 정부는 이미 외교적
관계를 공식 단절한 상태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1895년의 시모노세키
조약(하관조약: 下關條約, 중국학계에서는 마관조약(馬關條約)으로
표현함)에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조공관계의 폐지를 선언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기정사실에 대한 국제법적인 재확인 또는 명시 조치에 불

과하였다.

그러나 위 교과서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한 1895년의 시모노세키조약(마관조약으로 표현되었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조약의 제1조항으로 제시된 조선독립인정 및 한중간 조공관계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 기술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한국근대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가 중국학계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역사 하책』6과 대외우호왕래 - 당과 신라의 관계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서술은 없고 신라만 언급하고 있으며 신라 상인의 중국 상거래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 음악이 중국에 도입되었는데 고구려 언급은 없고 조선의 음악이 중국에 도입되었다고만 소개하고 있다.

(2) 고급중학 단계

『중국 고대사』7절 수, 당 시기의 대외우호왕래 - 신라와의 우호왕래 부분에서는 고대사에서 신라만 언급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신라방, 신라관 소개하면서 장보고를 언급하지 않으며 신라방을 객관처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상서성을 모방하여 집사성을 설립하였다고 오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집사부를 설립하였다.

“신라와의 우호왕래(友好往來) 수나라와 당나라는 조선반도의 나라와 모두 왕래가 있었다. 7세기 후기에 신라와 당나라의 왕래는 더욱 빈번하였다. 당나라의 유학생 중에서 신라의 유학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최치원이었다. 당나라의 장안(長安)과 연해지역의 많은 도시들에는 “신라방(新羅坊)”과 “신라관(新羅館)”이 설치되어 신라의 상인과 여행객들을 접대하였다. 신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당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였고(각주: 신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였는데, 예컨대 중앙에서 당나라의 상서성(尙書省)을 모방하여

집사성(執事省)을 설립하고 당나라의 육부(六部)를 모방하여 병부(兵部), 예부(禮部), 창부(倉部: 재정, 조) 등을 설립하였다) 또한 국학(國學)을 설립하여 유학을 가르쳤다. 신라는 당나라로부터 차(茶)의 종자 및 조판인쇄술과 발달된 도자기, 동기(銅器) 제작기술을 도입하였다. 신라사람들은 당시(唐詩)를 즐겨 읽었고 많은 문인들은 당시를 쓸 줄 알았다. 그리고 성씨(姓氏), 복식(服飾), 절령(節令), 풍속 등 여러 방면에서 중화문화의 색채를 짙게 가지었다.“

『중국 근현대사 하책』2장, 8절.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부분에서는 임진왜란 극복과정에서 명과의 협력, 이순신의 활동만 부각시키고 의병활동은 누락하고 있다.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 전략 - 조선의 통치계급들이 내부분쟁을 하고 있을 무렵 일본의 통치자인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정복하려고 망녕되게 시도하면서 1592년과 1597년에 조선을 대거 진공하였다 일본군의 첫 번째 진공은 애국장령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군민들의 용감한 반격을 받았다. 중국의 명조정부는 조선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원조하였다. 조선과 중국 군민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은 일본 침략군은 조선반도 남해안 일대로 패주하였다. 일본군이 두 번째로 조선을 침략할 때 명조정부는 노장령 등자룡이 거느린 수군을 파견하여 도왔다. 이순신과 등자룡이 지휘한 조선과 중국 군대는 적군을 재차 크게 패배시키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침략계획도 철저히 분쇄되었으며 도요도미 히데요시도 전쟁기간에 율화병으로 죽어버렸다.”

『중국 근현대사 상책』 2장, 5절, 갑오중일전쟁 부분에서는 청일전쟁의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모노세키 조약을 언급하면서 한국독립과 조공관계 단절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당 봉기가 발생하자 청 정부는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보내 진압을 도왔다. 일본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봉기가 종식된 후 청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동시 철군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일본은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계속 많은 군인을 증가시켜 전쟁도발의 뜻을 품었다.

일촉즉발의 전쟁형세에 직면하여 청 정부는 각국의 조정을 원하고 전쟁준비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모두 실패하였다. 청 정부는 피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1894년 7월 일본해군은 조선반도의 해상에서 중국의 병력 수송선을 습격하여 선포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갑오중일전쟁이라 한다. 일본군의 조선에 진입한 군대가 날로 늘어나 청정부 조선주재 관헌은 조선원군 증파를 요청하였는데 이홍장은 답신에서……“

『중국 근현대사 하책』 10장, 2절. 신 시기의 외교정책 부분에서는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적극 전개를 소개하면서 한국을 맨 마지막에 들고 있다.

제10장의 제2절 “외교사업의 발전”(155~160쪽)에서 세 번째 부분인 “신시대(新時期)의 외교정책”(158~159쪽)에서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정부의 대외관계를 기술하였다. 여기서 개혁개방이후 중국정부가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한 뒤 국제정세에 대한 새로운 판단 등 다섯 가지 사실을 그 증거로 내세웠는데, 그중 네 번째가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전개하여 평화적 주변환경을 건설하였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80~90년대에 우리나라는 주변의 소련, 몽골, 베트남, 라오스, 한국 등 나라와 모두 관계정상화를 실현하였다”는 등 해설을 첨부하였다.

즉 한국과의 공식 수교 역시 중국정부가 경제적 성장을 위한 평화적 주변환경 조성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였고 그 중에서 한국을 특별히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49년 10월 6일에 창건된 지 겨우 6일 밖에 안 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공식 체결함으로써 당시 소련(소련과 중국은 1949년 10월 2일에 공식 수교)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에서도 중공정권을 일찍 승인해준 나라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과서의 신중국 외교 부분(152~153쪽)에서는 북한과의 수교를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다.

라. 한국관련 기술의 특징

이상으로 볼 때 중국의 역사 교과서 중 한국관련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화주의의 시각에서 한국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 고대사 중에서 고조선 시대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으며, 신라와의 관계만을 주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고 있어 한반도의 역사가 중국의 수, 당시대에 성립된 국가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신라와의 교류를 기술하면서 문화교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라와의 관계 기술에 있어서도 양적으로 일본의 1/3에 불과하다.

청일전쟁(갑오중일전쟁)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청나라의 조선간섭정책은 논의하지 않고 일본과의 지배권 다툼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극복과정에서 명나라와 협력과 이순신장군의 활동만 부각시키고 있는 점도 중화주의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민족의 활동무대를 중국의 동북지방을 제외하고 한반도내로 국한하고 있는 점도 기본적으로 중화주의의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의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한 국가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고려에 대한 언급도 단 한 줄로 서술하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대 미국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기술하고 있는 것도 중화주의의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6·25전쟁을 미국의 패권

정책, 미국의 조선침략전쟁,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報家爲國)의 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대항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참전 배경 및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술도 많다.

고구려를 노예제 국가로 서술하고 있어 유물변증법적 사관에 따르고 있다. 동학운동을 설명하면서 의병운동을 '인민대중들의 지지 하에' 라고 서술하여 계급투쟁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분단을 논의하면서 남북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고 하면서 김일성만을 소개하고 항일투쟁을 전적으로 이끌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소개하고 있다.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침략이라는 통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6·25전쟁 시에 중국인민군의 참전루트를 그림 자료로 제시하면서 남한지역까지 조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네바회의에서의 북한 측 주장만 언급하고 한국 측의 주장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셋째, 오기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오도된 자료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

삼국시대의 국가를 각주로 처리하면서 고구려를 고려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가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한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또한 측우대 그림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작 시기인 건륭황제시기의 연호가 지워져 있는데 이는 북한자료의 인용 결과로 판단된다.

이외에 신라시대 당의 상서성을 모방하여 집사성을 설립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집사부의 오기이다. 동학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한데 이는 북한학계의 연구에 경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6·25전쟁 시에 유엔군의 참전을 조선에 대한 무장침략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도 명백한 오기로 인정된다. 다만 이전에 미

군의 침략이라고 했던 부분은 삭제되어 수정되었다.

넷째, 최근 한국 학술계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금동장식 유물의 도판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작 시기가 빠진 것은 고구려시기로 인정되는 학계의 학설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일전쟁의 결과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을 소개하면서 제일 중요한 조선독립 인정, 조공관계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근대사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결과이다.

다섯째, 최근 한국정부와의 수교상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 서술에서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전개하는 차원에서 1992년 한국과의 수교상황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전관계는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

2.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일본의 학생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일본 역사교과서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사회과 과목을 통해 인접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외국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가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설문조사에 앞서 일본의 사회와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에 관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초등학교 교과서

일본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과목은 3학년 때부터 다루게 되는데,

3, 4학년은 지역사회를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5학년은 일본의 산업과 국토, 6학년은 일본의 역사와 정치, 국제이해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 특히 6학년 사회교과서는 상·하로 나뉘는데, 상(上)에서 일본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하(下)에서는 일본의 정치, 국제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의 경우 사회과는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 『공민적 분야』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관련 기술은 주로 『역사적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과를 지리역사과와 공민과 2교과로 구분하고 있다. 과목편성을 보면, 지리역사과로는 세계사 A, B, 일본사 A, B, 지리 A, B가 있고, 공민과로는 윤리, 정치경제, 현대사회가 있다. 한국관련 기술은 주로 일본사 A, B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사 A는 근현대사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일본사 B는 전시대를 망라한 통사체제의 교과서이다.

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대상 교과서 : 『새로운 사회 6上』(佐々木毅의 35명, 동경서적, 2003년)

(1) 대륙으로부터의 도래인과 기술, 문화의 전달

“벼농사는 주로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서 전해졌다. 이들 도래인들 중에는 건축, 토목공사, 도자기 등 선진 기술을 전해준 사람들도 있었다. 큐슈지방의 요시노가리(吉野ヶ里)유적지에서 도래인이 전달한 것으로 생각되는 철기,

청동기, 마와 견으로 만든 천 등이 발굴되었다.

이처럼 도래인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왕과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형성의 기틀로 삼았다.“

(2)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明)을 정복하려고 두 번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냈다. 이 침략으로 인해 조선의 국토는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기도 하고 일본으로 끌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명의 원군을 받은 조선군과 조선인들의 반격에 실패로 끝나고 히데요시는 도중에 병사하였다.”

(3) 청일, 러일전쟁

“일본은 메이지 초기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맺고 세력을 뻗어나가자 청과 대립하게 되었다. 1894년 조선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일본과 청은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되고 양국간의 일청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승리하게 되고 청으로부터 배상금과 대만 등을 손에 넣었다.

만주에 세력을 뻗치고자 했던 러시아는 일본에게 영토일부를 청에게 반환케 하였고, 만주에 군대를 보내 조선에도 세력을 뻗쳤다. 러일 양국의 대립으로 1904년 일본은 만주의러시아군을 공격했고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일본은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할린 남부와 만주철도 등을 손에 넣었고 한국을 일본의 세력 하에 두는 것을 인정받았다.“

(4) 한일합방 및 신민화 교육

“일청전쟁 후 대만을 식민지화한 일본은 일러전쟁 후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다. 조선인들의 저항을 군대가 진압하여 1910년 조선을 합병하였다.

일본 법률에 의해 토지의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가 되었다. 조선인은 일본인 지주의 소작인이 되거나 일자리를 찾아 일본 등으로 이주하였다.

식민지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받게 되고 자기민족의 역사는 배울 수 없었고 민족의 긍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일

본인 주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조선인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강인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해 갔다.“

(5) 징용, 징병, 창씨개명

“전쟁이 길어지고 치열해져 일본에 일손이 부족해지자 다수의 조선 사람들과 중국인까지도 강제로 데려와 혹독한 조건하에 공장이나 광산등지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성명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고 징병령을 발표하여 남성을 일본군 병사로서 참전시켰다. 젊은 여성들도 공장 등에 동원되어 전쟁에 협력하도록 강요당했다.”

(6) 한국전쟁

관련 내용 없음

※참고 :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은 연합국의 결정으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조선 민족의 나라로서 독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세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남에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겨났다. 그 후 두 나라는 서로 대립이 깊어져 1950년 마침내 조선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시작되자 미군은 유엔군의 주력이 되어 대한민국을 돕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의용군을 보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도와 서로 싸웠다. 이렇게 하여 1953년까지 한반도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1979년 발행본)

(7) 해방이후 한일 관계

“한국과는 1965년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로써 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최근 한국인들 중에는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하여 개인에게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북조선과는 아직도 국교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에 의해 벼농사와 선진문화 등이

전해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이 입은 피해를 기술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셋째, 조선의 개항에서부터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개괄하고 있지만, 조선의 피해상황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인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었음을 기술한 것과 조선인들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섯째, 1930년대 전시 총동원체제기에 징용, 징병, 정신대 등의 인력동원과 창씨개명 등을 기술하였고,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여섯째, 분단과 한국전쟁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1965년 한·일 국교수교에 대해 최근 추가되었고, 서술내용도 객관적이다.

나. 중학교 교과서 내용

대상 교과서 : 『새로운 사회 역사』(田辺裕의 37명, 동경서적, 2001년 김정)

(1)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으로 한 고대 한·일관계

“중국에서는 4세기경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져 국가간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조선반도에서는 고구려가 북부에서 세력을 뻗고, 남부에서는 작은 나라들을 통일하여 백제와 신라 두 나라가 일어났다.

야마토 국가는 백제나 소국이 분립하고 있던 가야(임나)지방의 나라들과 연결하여 고구려나 신라와 싸웠다. 5세기에는 야마토 국가의 대왕은 왜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조선 남부를 군사적으로 지위할 권리를 중국의 황제로부터 인정받기위해 중국의 남조로 자주 사신을 보냈다.”

(2) 임진왜란

“히데요시는 명을 공격하기위해 1592년 조선으로 군대를 보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수도 한성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각지에서 조선민중에 의한 의병이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명도 조선에 구원병을 보냈다. 조선 남부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수군을 격파하여 일본군의 자유로운 행동을 빼앗았다. 이 때문에 일단 휴전하여 명과 강화교섭이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에 불만을 가진 히데요시는 다시 출병을 명했다. 일본군은 처음부터 고전하다가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전군에 철수를 명하였다.”

(3) 청일전쟁

“조선에서는 청·일 두 나라의 대립 속에서 정치와 경제가 혼란했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의 추방과 외국인 배척을 목표로 삼아 1894년에 민간신앙을 근거로 한 종교(동학)를 신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이 조선남부 일대에서 봉기하였다(갑오농민전쟁).

이를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싸움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에서 청은 1)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2)요동반도, 대만, 팽호제도를 일본에 양도하며 3)배상금 2억냥(당시의 일본엔으로 3억여엔)을 지불할 것 등을 인정하였다.“

(4) 한일합방

“일러전쟁 후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의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은 1905년에는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에는 황제가 퇴위 당하였으며 내정은 한국통감부에 맡겨졌다. 한국에서는 민족적 저항운동이 퍼져 일본에 의해 해산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일어났다. 이것이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일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무역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 지배를 강행하였다. 학교에서는 조

선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일본사와 일본어를 가르치며 일본인에 동화시키는 교육을 행했다.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많은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었다. 이들은 소작인이 되거나 일본이나 만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받았다. 식민지배는 1945년 일본 패전까지 계속되었다.“

(5) 한국의 독립운동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지식인 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식민지 지배로 고통 받고 있던 민중의 공감을 얻어 각지로 퍼졌다. 이를 3.1운동이라 부르고 있다. 운동은 일본의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은 그 후에도 조선의 안팎에서 진행되었다.

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는 한편 이제까지의 무단적인 지배정책을 완화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독립운동은 그 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6) 한국전쟁

“조선은 일본의 패전에 의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북위38도를 경계로 북은 소련에게, 남은 미국에게 점령당하게 되었고 1948년에는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 북조선이 한국을 침공하여 조선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전쟁은 계속되었다.

1950년 조선전쟁이 발발하자 일본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사용되게 되었고 대량군수물자의 조달도 일본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고 경제부흥이 가속화 되었다.“

(7) 해방 후의 한일관계

“1965년 대한민국과 일·한 기본조약을 맺고 한국정부를 조선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정부라고 인정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지금도 국교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는 만주지역에서 일어나 한반도 북부까지 그 세력 범위를 확대했으나, 한반도 북부만을 그 세력 범위로 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임나일본부설’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기술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이 입은 피해상황에 대한 서술이 누락되었다. 또한 일본군의 조선 ‘침략’이 명시되지 않고 단지 ‘군대를 보냈다’, ‘출병’ 등의 표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셋째, 청일전쟁의 발발원인에 관한 기술을 찾아볼 수 없다.

넷째, 러일전쟁 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일제 식민지기의 식민정책 등을 개관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 동원, 물자동원,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금지 등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다섯째,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무단통치’는 ‘문화정치’로 전환했지만, 위의 기술처럼 ‘조선의 근대화를 요구하고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기술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섯째,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분단에 대한 일본의 책임문제는 누락되어 있다.

일곱째,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대상 교과서 : 『상설 일본사 B』(石井進의 13명, 산천출판, 2003년
검정, 2002년 발행

(1)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으로 한 고대 한일관계

“중국동북에서 성립한 고구려는 조선반도 북부로 영토를 넓히고 313년에는 중국의 낙랑군을 무너뜨렸다. 한편 조선반도 남부에서는 마한, 변한, 진한이라는 소국의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4세기에는 마한에서 백제가, 진한에서 신라가 성립하고 각각 국가를 형성했다. 이미 4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하책을 추진하자, 조선반도의 나무의 철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왜국도 고구려와 다투게 되었다.”

(2) 대륙문화의 전래

“5세기에는 대륙과 조선반도와의 교류가 진전되어 조선반도로부터 도래인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전했다. 한자의 수용도 본격화되고 도래인의 일부는 서기로서 임명되어 문서사무와 외교를 장악했다. 6세기 초에는 계속해서 유교와 의학, 역학 등의 진보된 지식이 전해지고 6세기 중엽에는 불교가 백제로부터 공식적으로 전해졌다.”

(3) 임진왜란

“1587년 히데요시는 대마의 종씨를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入貢과 명 출병의 선도를 요구했다. 조선이 이것을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출병의 준비를 시작하고 명호옥(名護屋)에 본진을 구축하고 1592년 15만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철포의 위력에 의해 얼마 되지 않아 한성을 함락시키고 나아가 평양도 점령했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조선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 점점 전국은 불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의 일본군은 휴전하게

되고 히데요시에게 명과의 강화를 요구했지만, 히데요시는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교섭을 결렬되었다.

1597년 히데요시는 재차 조선에 14만의 병사를 보냈지만 일본군은 처음부터 고전하게 되고 다음해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철병했다. 7년에 걸친 일본군의 조선침력은 조선의 사람들을 전화에 몰아넣고 많은 피해를 주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많은 전비와 병력을 헛되이 쓰게 된 결과가 되어 도요토미 정권을 쇠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4) 조선통신사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강화를 실현시켜 1609년 대마번 종씨는 조선과의 기유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근세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었고,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 종씨는 조선외교상의 특권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 조선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통신사가 내일(來日)했는데, 4회째부터는 통신사라고 불렸다. 내일의 명목은 새로운 장군(將軍)취임의 경하가 절반을 넘었다.

(5)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천진조약 체결 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일본 정부는 군사력의 증강에 힘써 청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의 경제 진출에 저항하는 조선정부와의 대립을 강화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신도를 중심으로 감세와 배일을 요구하는 농민의 반란(갑오농민전쟁, 동학당의 난)이 일어나자, 청국은 조선정부의 요청을 받아 출병함과 동시에 천진조약에 따라 이를 일본에 통지하고 일본도 이것에 대항해서 출병했다. 농민군은 이것을 보고 급히 조선정부와 화해했지만, 일·청양국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져 교전상태로 들어갔다.”

(6) 러일전쟁 후의 국제관계

“일노전쟁 후의 일본은 전승에서 얻었던 대륙진출의 거점확립에 노력했다. 먼저, 1905년 미국과의 사이에 비공식협정(카쓰라·태프트협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영국과는 일영동맹

을 개정해서 양국에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들을 배경으로 일본은 같은 해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한성에 통감부를 두어서 이등 박문이 초대통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황제의 밀사를 보내어 항의하려고 하였다.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제3차 일한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내정권도 수중에 두고서 계속해서 군대를 해산했다. 그때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운동은 해산된 군대의 참가를 얻어 본격화 되었다. 일본정부는 1909년 군대를 증파하여 의병운동을 진압했지만 그 와중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 앞에서 한국의 민족운동가 안중근에게 암살당한 사건이 일어나자 헌병대를 상주시켜 한국의 경찰권도 빼앗았다. 이렇게 준비를 거친 뒤에 일본 정부는 다음 해 1910년 한국병합을 통해 식민지화했으며 조선총독부를 두었다. 총독부는 지세의 정리와 일본인 지주 토지소유 확대를 노리고 토지조사사업을 착수하여 1918년에 완료했다.

총독부는 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측량·소유권의 확인을 조선전도에서 실시했는데(토지조사사업), 그때 소유권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광대한 농지·산림이 접수되었고 그 일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지주 등에게 불하되었다.”

(7) 한국전쟁

“남북 분단 상태가 된 조선반도에서는 1950년 6월 중국혁명의 성공에 촉발된 북조선이 무력통일을 목표로 북위38도선을 넘어 한국을 침공, 조선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군이 유엔군으로 개입했지만 북조선군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고 미국군은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을 전기(轉機)로 북조선군을 쫓아내고 북위38도선을 넘어 중국의 국경에 다다랐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의용군이 북조선군을 도와 반격하여 북위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은 교착되었다. 1951년 7월부터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어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일본고등학교 교과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임나일본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전히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를 통해서 선진문화가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최근 질과 양면에서 축소되었다.

셋째, 임진왜란의 발발원인, 경과, 결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넷째, 임진왜란이후 조일 국교재개와 조선통신사에 관한 서술 중, 조선통신사를 새로운 장군취임 경하를 위해 조선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실상은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보인다. 또한 조선통신사 파견의 배경, 일본문화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다섯째, 청일전쟁의 원인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여섯째, 러일전쟁에서 한일합병을 거쳐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하지만, 1907년 헤이그 특사파견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한국전쟁의 발발원인, 경과, 결과 등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라. 한국 관련 기술의 특징과 과제

먼저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서 기술된 한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의 경우 조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피해상황의 서술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침략’대신 ‘출병’ 등의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여전히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고대 한일관계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므로 기술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산천출판 발행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대륙문화의 전달,

조선통신사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차츰 축소되고 있고, 임진왜란, 한국전쟁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과를 제외한 수업에서 한국을 다룰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과 커리큘럼 상의 이야기이고, 일선 학교의 국제이해교육시간이나 교사가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루는 수업을 계획하여 지도하는 교사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 형태는 정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 수업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역사 교과서들의 한국관련 내용에는 왜곡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후소사와 같은 우익성향의 교과서의 경우는 강도를 한층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일제 식민지 지배 미화와 과거사 왜곡으로 비판받고 있는 후소사판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채택률은 0.4%에 지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4년간 일본의 전체 중학생 119만2천명 가운데 4천 840명이 이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었다. 학교수업에서 교과서가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텍스트임을 고려하면, 내년 2006년부터 4년간 후소사판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는 최근 현행 역사교과서는 자학적 내지 반일적이라 하여 교과서 검정 기준에 있는 『근린제국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후소사판 역사 왜곡 교과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재수정 요구에 대하여 내정간섭론을 전개시켜 재수정을 강하게 거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에서 보면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우선 식민지

침략의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왜곡된 교과서 기술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과 다민족이 공존하는 국제화 시대에 각 민족과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데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계평화와 아시아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양국 후세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 일본 바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정보센터』와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차원에서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근래에 발족된 다양한 시민단체 및 시민과 연계하여 역사왜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체험 및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한국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로는 일본교사 초청연수를 통해서 유적지답사, 현장체험, 한국교사와의 대화의 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가 하는 점은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는가 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본의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자율성에 대하여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우경화 조짐이 보이는 교육계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초청 연수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과 양심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하겠다.

다섯째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이해자료를 배포대상자나 기관성의 격에 맞추어 제작하고 시기적절하게 배포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령대에 맞게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제안 중에서도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별, 그리고 교원들의 인적교류가 될 것이다. 이 문화체험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역사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의식 태도가 발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III

한·중·일 3국의 상호 국가인식 실태

1. 국가 이미지 및 국민의식 수준

가. 국가 이미지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해당국가에 대해 무엇을 보고 연상할 것인가? 국가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대한 통념과 인상의 총체로서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국가의 모습이나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미변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을 사용하였다. 의미분석척도는 Osgood(1957) 등이 여러 가지 사물, 인간, 사상 등에 관한 어떤 개념의 의미를 의미공간 속에서 측정하려고 창안한 정의적 특성의 측정방법이다. ‘국가’라는 개념의 의미는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복잡성을 띠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결국 하나의 개념이 갖는 의미의 복잡성, 불명료성으로 인해 개념의 지각 차에서 오는 차이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의미변별법은 이러한 각 개념의 의미를 양극적인 뜻을 갖는 형용사군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거리 혹은 질과 강도를 갖는 의미공간에 포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측정한다는 뜻에서 지각의 측정뿐 아니라 태도, 가치 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국가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의미변별척도는 오즈군 등과 여러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 발전시킨 것으로 50개의 형용사군 중 13개 쌍을 사용하였다. 각 의미변별척도는 리커트 7단계 척도로 작성하였고, 배점은 형용사 각 쌍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점에서 7점까지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3개 형용사군은 3개의 요인구조로 분류되어 평가 요인(evaluation factor) 4쌍, 능력 요인(potency factor) 4쌍, 활동성 요인(activity factor) 5쌍으로 나눌 수 있다.²

〈표 Ⅲ-1〉 국가 이미지 요인 분류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성 요인
1. 좋은 - 나쁜	5. 똑똑한 - 어리석은	9. 적극적인 - 소극적인
2. 밝은 - 어두운	6. 큰 - 작은	10. 빠른 - 느린
3. 깨끗한 - 더러운	7. 강한 - 약한	11. 시끄러운 - 조용한
4. 정직한 - 부정직한	8. 유능한 - 무능한	12. 개방적 - 폐쇄적
		13. 유익한 - 무익한

(1) 한국

중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3가지 요인에 대해 한국 학생과 한국 교원의 국가별 반응차이³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상대국의 국가 이미지

구 분	학생			교원		
	중국	일본	t검증	중국	일본	t검증
요인1. 평가 요인	4.98	4.41	9.69***	4.82	3.70	10.22***
요인2. 능력 요인	3.57	3.29	5.70***	2.96	3.08	-1.46
요인3. 활동성 요인	3.84	3.23	13.52***	3.75	3.38	4.04***

주: * <0.1, ** <0.05, *** <0.01

² 원래 상대국가의 국가 이미지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해야 한다. 요인분석 결과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요인1(문항1, 2, 3, 4, 5), 요인2(6, 7, 8, 13), 요인3(9, 10, 11, 12) 등 3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요인1(문항1, 2, 3, 4), 요인2(5, 6, 7, 8, 9, 10), 요인3(11, 12, 13)으로 분석되어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인의 경우 한국이미지에 대해 요인1(1, 2, 3, 4, 5, 6, 7, 8, 9, 10, 12)고 요인2(11, 13)로 나타내고 있다. 일본인도 상대국에 대해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이미지라는 개념에 대해 개별국민들이 상대국가에 대해 상이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구조에 의한 국제비교분석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Ⅲ-1〉에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³ 리커트 7점 척도의 평균차이를 의미한다. 문항의 구조상 작은 값을 가질수록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다.

국가 이미지 중 능력 요인에 대해 교원만이 국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t=1.46$),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원 모두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의 경우 평가 요인에서 중국, 일본에 대해 약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능력 요인과 활동성 요인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보다 일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교원들은 평가 요인에서 중국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활동성 요인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 요인에서는 중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3개 하위요인의 각 문항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요인’에서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깨끗한-더러운’, ‘정직한-부정직한’ 항목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나쁜’, ‘정직한-부정직한’ 항목에 중국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보인다. 교원의 경우 ‘좋은-나쁜’ 항목에서 중국이 일본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일본에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깨끗한-더러운’ 항목에서는 두 국가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표 Ⅲ-3〉 한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요인 인식

평가 요인	학생			교원		
	중국	일본	t검증	중국	일본	t검증
좋은 - 나쁜	4.28	4.77	-6.28**	3.92	4.61	-5.38**
밝은 - 어두운	4.73	4.23	6.18**	4.47	3.75	4.70**
깨끗한 - 더러운	5.75	3.44	24.74**	5.46	2.55	16.99**
정직한 - 부정직한	5.17	5.22	-0.64	5.42	3.87	8.55**

주: * <0.1 , ** <0.05 , *** <0.01

〈표 Ⅲ-4〉 한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능력 요인 인식

능력 요인	학생			교원		
	중국	일본	t검증	중국	일본	t검증
똑똑한 - 어리석은	4.57	3.34	15.88***	3.71	2.99	5.74***
큰 - 작은	2.44	4.26	-19.93***	2.14	4.23	-11.83***
강한 - 약한	3.27	2.78	7.12***	2.41	2.55	-1.40
유능한 - 무능한	4.00	2.76	17.10***	3.58	2.55	8.31***

주: * <0.1, ** <0.05, *** <0.01

‘능력 요인’에서 한국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 ‘크고-작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큰 이미지를 가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보통 수준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해서는 크기 이미지에서 약간 작다고 느낄 뿐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좋은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 교원들은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큰-작은’, ‘강한-약한’ 항목에서 중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나타낸다.

〈표 Ⅲ-5〉 한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활동성 요인 인식

활동성 요인	학생			교원		
	중국	일본	t검증	중국	일본	t검증
적극적인 - 소극적인	3.67	3.15	6.66***	3.51	2.79	4.88***
빠른 - 느린	4.09	2.89	13.68***	4.39	2.64	9.91***
시끄러운 - 조용한	2.88	3.62	-7.72***	3.01	4.42	-5.89***
개방적 - 폐쇄적	4.48	2.56	21.81***	4.21	3.36	4.56***
유익한 - 무익한	4.07	3.94	1.90	3.63	3.70	-0.79

주: * <0.1, ** <0.05, *** <0.01

‘활동성 요인’에서 한국 학생들은 중국·일본에 대해 보통이거나 적극적·활동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빠른-느린’, ‘개방적-폐쇄적’ 항목에서는 국가간 차이가 뚜렷하여 일본에 대해 매우 활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시끄러운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교원들 또한 중국 일본에 대해 보통이거나 활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소극적인’, ‘빠른-느린’ 항목에서 보다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시끄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3가지 요인에 대해 중국 학생과 중국 교원의 국가별 반응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중국 국민이 생각하는 상대국의 국가 이미지

구 분	학생			교원		
	한국	일본	t검증	한국	일본	t검증
요인1. 평가 요인	2.39	4.49	-28.89***	2.65	4.34	-12.84***
요인2. 능력 요인	3.11	3.88	-10.78***	3.37	3.61	-2.57**
요인3. 활동성 요인	3.12	3.61	-9.76***	3.22	3.42	-2.64***

주: * <0.1, ** <0.05, *** <0.01

중국 학생과 중국 교원 모두 일본의 평가 요인에 대해서만 약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 한국과 일본 모두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능력이 있으며, 활동성이 높은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 학생과 교원 모두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학생의 경우 국가간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분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평가 요인에 대해서는 중국 학생과 중국 교원 모두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나쁜’, ‘정직한-부정직한’ 항목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깨끗한-더러운’ 항목에서만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7〉 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요인 인식

평가 요인	학생			교원		
	한국	일본	t검증	한국	일본	t검증
좋은 - 나쁜	2.29	4.97	-30.35***	2.61	5.05	-13.49**
밝은 - 어두운	2.49	4.14	-19.06***	2.60	4.26	-9.30**
깨끗한 - 더러운	2.13	3.63	-16.20***	2.16	2.77	-3.62**
정직한 - 부정직한	2.66	5.24	-29.25***	3.21	5.25	-10.24**

주: *〈0.1, **〈0.05, ***〈0.01

능력 요인에 대해서도 중국 학생과 교원 모두 대부분의 문항에서 일본보다 한국에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 학생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큰-작은’ 항목에서 일본에 대 작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교원 역시 일본에 대해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한 일 모두 긍정적 이미지를 표출한다.

〈표 Ⅲ-8〉 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능력 요인 인식

능력 요인	학생			교원		
	한국	일본	t검증	한국	일본	t검증
똑똑한 - 어리석은	2.71	3.67	-10.92**	2.84	3.44	-3.79**
큰 - 작은	3.95	5.07	-14.16***	4.75	5.14	-3.46**
강한 - 약한	3.19	3.43	-2.75**	3.40	3.25	1.12
유능한 - 무능한	2.57	3.34	-9.29**	2.47	2.61	-1.19

주: *〈0.1, **〈0.05, ***〈0.01

활동성 요인에서도 중국 학생과 교원들은 상대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시끄러운-조용한’, ‘유익한-무익한’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교원들은 ‘빠른-느린’ 항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빠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한국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표 Ⅲ-9〉 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활동성 요인 인식

활동성 요인	학생			교원		
	한국	일본	t검증	한국	일본	t검증
적극적인 - 소극적인	2.43	3.84	-15.92***	2.56	3.21	-4.68***
빠른 - 느린	2.77	3.22	-5.05***	2.90	2.56	2.43**
시끄러운 - 조용한	3.79	3.82	-0.39	3.95	4.12	-1.00
개방적 - 폐쇄적	2.64	3.09	-5.39***	3.06	3.07	-0.04
유익한 - 무익한	4.02	4.06	-0.33	3.66	4.23	-3.78***

주: * < 0.1, ** < 0.05, *** < 0.01

(3) 일본

한국과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3가지 요인에 대해 일본 학생과 일본 교원의 국가별 반응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수준을 보면 일본 학생과 일본 교원 모두 두 국가의 이미지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평가 요인과 활동성 요인에서 중국보다 한국에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능력 요인에서는 중국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상대국의 국가 이미지

구 분	학생			교원		
	한국	중국	t검증	한국	중국	t검증
요인1. 평가 요인	3.40	4.16	-14.30***	3.58	4.40	-6.48***
요인2. 능력 요인	3.77	3.29	9.42***	3.59	3.02	5.75***
요인3. 활동성 요인	3.59	3.70	-2.60***	3.36	3.72	-4.20***

주: * < 0.1, ** < 0.05, *** < 0.01

〈표 Ⅲ-11〉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요인 인식

평가 요인	학생			교원		
	한국	중국	t검증	한국	중국	t검증
좋은 - 나쁜	3.10	4.09	-11.70***	3.42	4.10	-4.14***
밝은 - 어두운	3.30	4.07	-10.19***	3.55	4.49	-5.89***
깨끗한 - 더러운	3.64	4.46	-11.36***	3.72	4.59	-5.43***
정직한 - 부정직한	3.57	4.01	-6.72***	3.63	4.41	-4.51***

주: *〈0.1, **〈0.05, ***〈0.01

〈표 Ⅲ-12〉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능력 요인 인식

능력 요인	학생			교원		
	한국	중국	t검증	한국	중국	t검증
똑똑한 - 어리석은	3.56	3.83	-4.66***	3.28	3.47	-1.28
큰 - 작은	4.58	2.44	16.62***	4.27	2.47	7.83***
강한 - 약한	3.77	3.43	4.62***	3.64	2.98	3.67***
유능한 - 무능한	3.19	3.47	-4.10***	3.17	3.16	0.13

주: *〈0.1, **〈0.05, ***〈0.01

평가 요인에서 일본 학생과 교원 공히 두 국가 모두 보통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깨끗한-더러운’ 항목에서 중국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생과 교원들은 능력 요인 중 ‘큰-작은’, ‘강한-약한’ 항목에서 한국보다 중국에게 우월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똑똑한-어리석은’, ‘유능한-무능한’ 항목에서는 한국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원들은 두 항목에서 국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활동성 요인 인식

활동성 요인	학생			교원		
	한국	중국	t검증	한국	중국	t검증
적극적인 - 소극적인	3.26	3.34	-1.16	2.90	2.88	0.14
빠른 - 느린	3.66	3.81	-2.12**	3.24	3.90	-3.90***
시끄러운 - 조용한	3.38	3.03	4.55***	3.25	3.10	0.86
개방적 - 폐쇄적	3.70	4.30	-6.94***	3.80	5.03	-5.18***
유익한 - 무익한	3.97	4.01	-0.58	3.61	3.71	-1.47

주: *〈0.1, **〈0.05, ***〈0.01

활동성 요인에서는 일본 교원이 중국의 폐쇄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는 한국, 중국 공히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본 학생의 경우 두 국가에 대해 보통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시끄러운-조용한’ 항목을 제외하고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교원들은 두 국가의 적극적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빠른 이미지, 개방적 이미지에서 중국과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나. 국민의식 수준

애국심, 질서 의식, 인권 의식, 환경 의식, 금전적 중요성, 타국 문화 존중, 국가장래성, 약속준수, 제조기술 등 11개 항목에 관하여 전반적인 국민의식에 대한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 한국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자국민에 대하여 질서 의식(2.0), 환경보존 의식(2.0)이 낮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애국심(3.0), 금전적 중요성(3.5), 국가장래성(3.3), 제조기술(3.4)에서는

높게 평가하였으며, 인권의식(2.4), 타국문화존중(2.9), 과거중시(2.9), 약속준수(2.5) 항목은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애국심(3.0), 금전적 중요성(3.1), 자국이익중시(3.3), 국가장대성(3.6)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질서의식(1.9), 인권의식(1.8), 환경보존의식(1.7) 등 대부분 항목에서는 국민의식수준을 평균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타국문화존중(2.1)만 낮게 평가할 뿐 대부분의 분야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한국 학생들은 일본의 국민의식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 중국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교원들도 한국 학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한국 교원들은 자국민에 대하여 환경보존의식(2.3)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질서의식, 인권의식, 타국문화존중, 과거중시 등은 보통이라고 평가하며, 애국심(3.1), 금전적 중요성(3.3), 국가장대성(3.2), 제조기술(3.2) 항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애국심, 금전적 중요성, 자국이익중시, 국가장대성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평균 이하로 평가한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타국문화존중(2.1)만 낮게 평가할 뿐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한편 ‘미래보다 과거를 중시한다.’ 항목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과거를 중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자국민에 대해 과거회귀적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동북아 3국의 국민의식수준을 평가하면서 자국이익중시와 타국문화존중에서 중국과 일본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14〉 한국 학생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인식

구 분		매우 동의함		거의 동의함		거의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모름		총계	평균	x ²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국가를 중요시한다.	한국	204	26.9	335	44.1	147	19.4	27	3.6	46	6.1	759	3.0	153.71 ***
	중국	158	20.9	276	36.5	112	14.8	31	4.1	180	23.8	757	3.0	
	일본	265	35.0	304	40.1	60	7.9	30	4.0	99	13.1	758	3.2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	34	4.5	122	16.1	427	56.3	156	20.6	20	2.6	759	2.0	1056.9 7**
	중국	22	2.9	112	14.8	237	31.3	225	29.7	162	21.4	758	1.9	
	일본	288	38.0	300	39.6	54	7.1	37	4.9	79	10.4	758	3.2	
인권을 잘 보장한다.	한국	49	6.5	265	35.0	290	38.3	97	12.8	56	7.4	757	2.4	502.27 ***
	중국	13	1.7	85	11.2	234	30.9	219	28.9	206	27.2	757	1.8	
	일본	122	16.2	298	39.5	115	15.2	53	7.0	167	22.1	755	2.8	
환경을 잘 보호한다.	한국	29	3.8	119	15.7	372	49.1	202	26.7	35	4.6	757	2.0	887.20 ***
	중국	17	2.3	79	10.5	202	26.8	312	41.3	145	19.2	755	1.7	
	일본	197	26.1	321	42.5	103	13.6	35	4.6	99	13.1	755	3.0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	한국	409	54.0	255	33.6	57	7.5	6	0.8	31	4.1	758	3.5	207.69 ***
	중국	218	28.8	240	31.8	97	12.8	24	3.2	177	23.4	756	3.1	
	일본	225	29.8	270	35.8	88	11.7	18	2.4	154	20.4	755	3.2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한국	157	20.7	249	32.9	209	27.6	53	7.0	89	11.8	757	2.8	365.05 ***
	중국	252	33.4	225	29.8	90	11.9	26	3.4	162	21.5	755	3.2	
	일본	451	59.7	165	21.8	38	5.0	21	2.8	81	10.7	756	3.5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	128	16.9	359	47.5	155	20.5	36	4.8	78	10.3	756	2.9	338.35 ***
	중국	46	6.1	164	21.8	189	25.1	167	22.2	188	24.9	754	2.2	
	일본	56	7.4	178	23.6	165	21.9	229	30.4	125	16.6	753	2.1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한국	202	26.7	256	33.8	159	21.0	56	7.4	84	11.1	757	2.9	229.27 ***
	중국	106	14.0	167	22.1	175	23.2	80	10.6	227	30.1	755	2.6	
	일본	119	15.8	132	17.5	179	23.7	177	23.4	148	19.6	755	2.3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한국	331	43.7	248	32.8	78	10.3	27	3.6	73	9.6	757	3.3	372.36 ***
	중국	475	62.9	166	22.0	28	3.7	29	3.8	57	7.6	755	3.6	
	일본	168	22.3	223	29.5	177	23.4	113	15.0	74	9.8	755	2.7	
약속을 잘 지킨다.	한국	101	13.3	244	32.2	261	34.5	89	11.8	62	8.2	757	2.5	322.59 ***
	중국	45	6.0	123	16.3	190	25.2	130	17.2	267	35.4	755	2.2	
	일본	170	22.5	197	26.1	104	13.8	132	17.5	152	20.1	755	2.7	
상품을 잘 만든다.	한국	366	48.4	296	39.1	37	4.9	16	2.1	42	5.6	757	3.4	844.77 ***
	중국	89	11.8	139	18.4	174	23.1	242	32.1	110	14.6	754	2.1	
	일본	425	56.2	228	30.2	27	3.6	20	2.7	56	7.4	756	3.5	

주: 1) 마지막 열의 평균점수는 매우 동의함 4점, 거의 동의함 3점, 거의 동의 안함 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2.5점 이하이면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2.5점 이상이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냄

2) * < 0.1, ** < 0.05, *** < 0.01

〈표 Ⅲ-15〉 한국 교원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구 분		매우 동의함		거의 동의함		거의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모름		총계	평균	X ²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국가를 중요시한다.	한국	47	28.5	88	53.3	24	14.6	2	1.2	4	2.4	165	3.1	40.00***
	중국	51	31.1	84	51.2	12	7.3	6	3.7	11	6.7	164	3.2	
	일본	86	52.4	67	40.9	5	3.1	2	1.2	4	2.4	164	3.5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	6	3.6	74	44.9	77	46.7	7	4.2	1	0.6	165	2.5	293.46***
	중국	6	3.7	22	13.4	77	47.0	48	29.3	11	6.7	164	1.9	
	일본	85	51.8	65	39.6	8	4.9	2	1.2	4	2.4	164	3.5	
인권을 잘 보장한다.	한국	3	1.8	80	48.5	65	39.4	14	8.5	3	1.8	165	2.4	169.97***
	중국	0	0.0	15	9.2	71	43.3	62	37.8	16	9.8	164	1.7	
	일본	25	15.2	80	48.8	36	22.0	9	5.5	14	8.5	164	2.8	
환경을 잘 보호한다.	한국	3	1.8	57	34.6	85	51.5	18	10.9	2	1.2	165	2.3	246.00***
	중국	7	4.3	14	8.5	57	34.8	76	46.3	10	6.1	164	1.7	
	일본	55	33.5	76	46.3	21	12.8	6	3.7	6	3.7	164	3.1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	한국	67	40.6	79	47.9	14	8.5	2	1.2	3	1.8	165	3.3	18.91**
	중국	77	47.0	66	40.2	7	4.3	0	0.0	14	8.5	164	3.5	
	일본	53	32.3	81	49.4	16	9.8	2	1.2	12	7.3	164	3.2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한국	32	19.4	82	49.7	43	26.1	3	1.8	5	3.0	165	2.9	111.16***
	중국	74	45.1	75	45.7	5	3.1	3	1.8	7	4.3	164	3.4	
	일본	109	66.5	42	25.6	5	3.1	1	0.6	7	4.3	164	3.6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	13	7.9	84	50.9	55	33.3	6	3.6	7	4.2	165	2.7	64.18***
	중국	7	4.3	38	23.2	68	41.5	29	17.7	22	13.4	164	2.2	
	일본	8	4.9	37	22.6	61	37.2	42	25.6	16	9.8	164	2.1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한국	20	12.1	75	45.5	54	32.7	9	5.5	7	4.2	165	2.7	32.76***
	중국	14	8.5	52	31.7	64	39.0	14	8.5	20	12.2	164	2.5	
	일본	18	11.0	44	26.8	53	32.3	31	18.9	18	11.0	164	2.3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한국	55	33.3	84	50.9	19	11.5	1	0.6	6	3.6	165	3.2	105.82***
	중국	102	62.2	51	31.1	6	3.7	0	0.0	5	3.1	164	3.6	
	일본	23	14.0	80	48.8	41	25.0	7	4.3	13	7.9	164	2.8	
약속을 잘 지킨다.	한국	11	6.7	79	47.9	62	37.6	7	4.2	6	3.6	165	2.6	127.10***
	중국	3	1.8	28	17.1	81	49.4	34	20.7	18	11.0	164	2.0	
	일본	42	25.6	66	40.2	31	18.9	8	4.9	17	10.4	164	3.0	
상품을 잘 만든다.	한국	37	22.4	121	73.3	6	3.6	0	0.0	1	0.6	165	3.2	389.17***
	중국	3	1.8	27	16.5	72	43.9	53	32.3	9	5.5	164	1.9	
	일본	96	58.5	62	37.8	3	1.8	0	0.0	3	1.8	164	3.6	

주: 1) 마지막 열의 평균점수는 매우 동의함 4점, 거의 동의함 3점, 거의 동의 안함 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2.5점 이하이면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2.5점 이상이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냄

2) * < 0.1, ** < 0.05, *** < 0.01

(2) 중국

중국 학생들은 자국민의 국민의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애국심(3.4), 질서의식(3.2), 인권의식(3.3), 타국의 사존중(3.5), 국가장래성(3.6), 약속준수(3.2), 제조기술(3.0)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환경보전의식(2.8)을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금전적 중요성(2.3), 자국이익중시(2.1)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자국민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게 애국심, 질서의식, 환경보전의식, 타국의사존중, 국가장래성, 약속준수, 제조기술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금전적 중요성, 자국이익중시 성향은 보통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과 비교하여 보통이거나 약간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국심, 환경보전의식, 국가장래성, 제조기술 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자국이익중시(3.3)를 높게 생각하고 타국문화존중(2.1)의식을 낮게 평가하여 일본의 배타적 성향에 대해 부정적 성향을 비친다.

중국의 교원들은 자국민에 대해 중국 학생과 유사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환경보전의식과 제조기술은 상대적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민의식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이익중시(3.0)성향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약속준수 항목은 보통으로 보고 있고, 자국이익중시 성향이 높고 타국문화존중의식은 낮다고 보고 있어 일본의 배타적 성향에 대해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자국민보다 한국의 국민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의 배타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6〉 중국 학생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구 분		매우 동의함		거의 동의함		거의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모름		총계	평균	X ²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국가를 중요시한다.	한국	417	58.1	227	31.6	25	3.5	6	0.8	43	6.0	718	3.6	124.92 ...
	중국	380	53.0	245	34.2	66	9.2	21	2.9	5	0.7	717	3.4	
	일본	365	50.8	177	24.7	58	8.1	49	6.8	69	9.6	718	3.3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	357	49.7	275	38.3	31	4.3	9	1.3	46	6.4	718	3.5	193.89 ...
	중국	278	38.7	297	41.4	103	14.4	34	4.7	6	0.8	718	3.2	
	일본	239	33.3	240	33.4	88	12.3	95	13.2	56	7.8	718	2.9	
인권을 잘 보장한다.	한국	337	46.9	260	36.2	32	4.5	17	2.4	72	10.0	718	3.4	271.12 ...
	중국	338	47.1	252	35.1	84	11.7	31	4.3	13	1.8	718	3.3	
	일본	239	33.3	182	25.4	78	10.9	153	21.3	66	9.2	718	2.8	
환경을 잘 보호한다.	한국	380	52.9	249	34.7	26	3.6	14	2.0	49	6.8	718	3.5	388.97 ...
	중국	198	27.6	246	34.3	195	27.2	73	10.2	6	0.8	718	2.8	
	일본	420	58.6	165	23.0	35	4.9	64	8.9	33	4.6	717	3.4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	한국	74	10.3	147	20.5	284	39.6	120	16.7	93	13.0	718	2.3	210.97 ...
	중국	122	17.0	148	20.6	231	32.2	200	27.9	17	2.4	718	2.3	
	일본	225	31.4	153	21.3	166	23.2	95	13.3	78	10.9	717	2.8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한국	112	15.6	223	31.1	215	29.9	99	13.8	69	9.6	718	2.5	555.06 ...
	중국	101	14.1	135	18.8	223	31.1	239	33.3	20	2.8	718	2.1	
	일본	404	56.3	135	18.8	77	10.7	63	8.8	39	5.4	718	3.3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	339	47.2	271	37.7	30	4.2	32	4.5	46	6.4	718	3.4	919.70 ...
	중국	512	71.3	161	22.4	14	2.0	21	2.9	10	1.4	718	3.6	
	일본	127	17.7	110	15.3	124	17.3	323	45.0	34	4.7	718	2.1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한국	130	18.1	190	26.5	168	23.4	109	15.2	121	16.9	718	2.6	237.99 ...
	중국	192	26.7	161	22.4	193	26.9	145	20.2	27	3.8	718	2.6	
	일본	119	16.6	77	10.7	134	18.7	288	40.2	99	13.8	717	2.0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한국	313	43.6	311	43.3	39	5.4	11	1.5	44	6.1	718	3.4	235.50 ...
	중국	417	58.1	228	31.8	51	7.1	15	2.1	7	1.0	718	3.5	
	일본	281	39.2	204	28.5	76	10.6	109	15.2	47	6.6	717	3.0	
약속을 잘 지킨다.	한국	322	44.9	293	40.9	33	4.6	12	1.7	57	8.0	717	3.4	361.09 ...
	중국	313	43.7	260	36.3	100	14.0	36	5.0	8	1.1	717	3.2	
	일본	174	24.2	201	28.0	111	15.5	176	24.5	56	7.8	718	2.6	
상품을 잘 만든다.	한국	354	49.3	298	41.5	21	2.9	8	1.1	37	5.2	718	3.5	263.67 ...
	중국	219	30.5	290	40.5	150	20.9	47	6.6	11	1.5	717	3.0	
	일본	379	52.9	186	25.9	47	6.6	60	8.4	45	6.3	717	3.3	

주: 1) 마지막 열의 평균점수는 매우 동의함 4점, 거의 동의함 3점, 거의 동의안함 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2.5점 이하이면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2.5점 이상이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냄

2) * < 0.1, ** < 0.05, *** < 0.01

〈표 Ⅲ-17〉 중국 교원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구 분		매우 동의함		거의 동의함		거의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모름		총계	평균	X ²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국가를 중요시한다.	한국	95	62.9	47	31.1	2	1.3	2	1.3	5	3.3	151	3.6	25.93
	중국	67	44.1	64	42.1	18	11.8	3	2.0	0	0.0	152	3.3	
	일본	78	52.0	51	34.0	12	8.0	3	2.0	6	4.0	150	3.4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	70	46.1	69	45.4	12	7.9	0	0.0	1	0.7	152	3.4	35.54
	중국	44	29.1	79	52.3	22	14.6	4	2.7	2	1.3	151	3.1	
	일본	47	31.1	65	43.1	18	11.9	11	7.3	10	6.6	151	3.0	
인권을 잘 보장한다.	한국	60	39.7	60	39.7	13	8.6	8	5.3	10	6.6	151	3.2	33.96
	중국	42	27.6	58	38.2	31	20.4	17	11.2	4	2.6	152	2.8	
	일본	39	25.7	43	28.3	28	18.4	23	15.1	19	12.5	152	2.7	
환경을 잘 보호한다.	한국	90	59.6	54	35.8	3	2.0	1	0.7	3	2.0	151	3.6	114.14
	중국	27	17.8	60	39.5	43	28.3	18	11.8	4	2.6	152	2.6	
	일본	87	57.6	46	30.5	9	6.0	3	2.0	6	4.0	151	3.5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	한국	27	18.0	45	30.0	46	30.7	15	10.0	17	11.3	150	2.6	40.27
	중국	16	10.6	45	29.8	60	39.7	25	16.6	5	3.3	151	2.4	
	일본	47	31.3	30	20.0	46	30.7	8	5.3	19	12.7	150	2.9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한국	46	30.5	61	40.4	25	16.6	10	6.6	9	6.0	151	3.0	175.20
	중국	15	9.9	30	19.7	57	37.5	45	29.6	5	3.3	152	2.1	
	일본	99	65.6	28	18.5	14	9.3	1	0.7	9	6.0	151	3.6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	43	28.7	81	54.0	14	9.3	6	4.0	6	4.0	150	3.1	198.15
	중국	94	61.8	50	32.9	4	2.6	1	0.7	3	2.0	152	3.6	
	일본	12	8.0	44	29.3	24	16.0	62	41.3	8	5.3	150	2.0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한국	25	16.8	45	30.2	48	32.2	17	11.4	14	9.4	149	2.6	42.16
	중국	36	23.8	50	33.1	39	25.8	21	13.9	5	3.3	151	2.7	
	일본	17	11.3	23	15.3	48	32.0	46	30.7	16	10.7	150	2.1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한국	59	39.1	77	51.0	10	6.6	1	0.7	4	2.7	151	3.3	56.98
	중국	83	54.3	53	34.6	14	9.2	2	1.3	1	0.7	153	3.4	
	일본	42	27.8	58	38.4	25	16.6	16	10.6	10	6.6	151	2.9	
약속을 잘 지킨다.	한국	52	34.7	76	50.7	13	8.7	4	2.7	5	3.3	150	3.2	65.04
	중국	48	31.4	53	34.6	42	27.5	6	3.9	4	2.6	153	3.0	
	일본	29	19.3	53	35.3	29	19.3	33	22.0	6	4.0	150	2.5	
상품을 잘 만든다.	한국	66	43.4	68	44.7	13	8.6	4	2.6	1	0.7	152	3.3	100.52
	중국	25	16.6	51	33.8	61	40.4	8	5.3	6	4.0	151	2.6	
	일본	85	56.3	50	33.1	10	6.6	1	0.7	5	3.3	151	3.5	

주: 1) 마지막 열의 평균점수는 매우 동의함 4점, 거의 동의함 3점, 거의 동의안함 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2.5점 이하이면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2.5점 이상이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냄

2) * < 0.1, ** < 0.05, *** < 0.01

(3) 일본

앞에서 한국 국민과 중국 국민은 자국민의 국민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높다고 자평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일본 학생과 교원들은 자국민의 국민성향에 대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생들은 인권의식(3.2), 금전적 중요성(3.0), 제조기술(3.5) 항목에서 자국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애국심(2.7), 질서의식(2.8), 환경보전의식(2.8), 국가장래성(2.9), 약속준수(2.8) 항목에서는 한국 국민과는 비슷하게, 중국 국민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또한 자국이익중시 항목은 다른 두 국민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국 문화존중의식은 동북아 3국 중 자국민이 가장 높으며 과거중시의식은 자국민이 가장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애국심, 질서의식, 국가 장래성, 제조기술 등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이익추구와 과거중시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인권보장과 환경보전의식을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이익추구의 성향이 높고 타국문화존중의식이 동북아 3국 중 가장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자국의 국민의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국가장래성(2.3)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국민의식을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이익추구 성향과 과거중시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두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애국심과 국가장래성 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국이익추구 성향은 높으나 타국문화존중의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과거중시성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Ⅲ-18〉 일본 학생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인식

구분		매우 동의함		거의 동의함		거의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모름		총계	평균	X ²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국가를 중요시한다.	한국	157	45.1	139	39.9	14	4.0	1	0.3	37	10.6	348	3.5	220.87 ...
	중국	201	57.8	92	26.4	15	4.3	6	1.7	34	9.8	348	3.6	
	일본	63	18.1	142	40.7	92	26.4	28	8.0	24	6.9	349	2.7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	58	16.7	179	51.4	46	13.2	13	3.7	52	14.9	348	3.0	55.48 ...
	중국	42	12.1	135	38.8	76	21.8	38	10.9	57	16.4	348	2.6	
	일본	38	10.9	188	53.9	82	23.5	13	3.7	28	8.0	349	2.8	
인권을 잘 보장한다.	한국	47	13.5	169	48.4	48	13.8	17	4.9	68	19.5	349	2.9	169.72 ...
	중국	23	6.6	115	33.1	102	29.3	37	10.6	71	20.4	348	2.4	
	일본	109	31.2	171	49.0	42	12.0	3	0.9	24	6.9	349	3.2	
환경을 잘 보호한다.	한국	25	7.2	107	30.8	80	23.0	11	3.2	125	35.9	348	2.7	158.73 ...
	중국	12	3.5	75	21.6	107	30.8	49	14.1	105	30.2	348	2.2	
	일본	57	16.4	159	45.7	84	24.1	14	4.0	34	9.8	348	2.8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	한국	61	17.5	115	33.0	81	23.2	2	0.6	90	25.8	349	2.9	45.35 ...
	중국	91	26.2	100	28.8	65	18.7	8	2.3	83	23.9	347	3.0	
	일본	88	25.2	152	43.6	64	18.3	5	1.4	40	11.5	349	3.0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한국	65	18.7	107	30.8	88	25.3	8	2.3	80	23.0	348	2.9	49.81 ...
	중국	113	32.4	99	28.4	61	17.5	6	1.7	70	20.1	349	3.1	
	일본	52	14.9	135	38.7	96	27.5	13	3.7	53	15.2	349	2.8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	43	12.4	118	33.9	75	21.6	37	10.6	75	21.6	348	2.6	96.16 ...
	중국	29	8.3	85	24.4	104	29.9	57	16.4	73	21.0	348	2.3	
	일본	82	23.6	150	43.1	64	18.4	17	4.9	35	10.1	348	2.9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한국	159	45.6	88	25.2	37	10.6	8	2.3	57	16.3	349	3.4	424.88 ...
	중국	199	57.0	79	22.6	20	5.7	9	2.6	42	12.0	349	3.5	
	일본	19	5.5	55	15.9	162	46.8	78	22.5	32	9.3	346	2.0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한국	147	42.1	131	37.5	18	5.2	7	2.0	46	13.2	349	3.4	75.97 ...
	중국	144	41.5	107	30.8	40	11.5	10	2.9	46	13.3	347	3.3	
	일본	84	24.1	110	31.6	85	24.4	15	4.3	54	15.5	348	2.9	
약속을 잘 지킨다.	한국	55	15.8	126	36.2	39	11.2	17	4.9	111	31.9	348	2.9	51.82 ...
	중국	31	8.9	95	27.4	69	19.9	36	10.4	116	33.4	347	2.5	
	일본	50	14.5	144	41.6	67	19.4	14	4.1	71	20.5	346	2.8	
상품을 잘 만든다.	한국	70	20.1	133	38.2	56	16.1	12	3.5	77	22.1	348	3.0	170.45 ...
	중국	80	23.0	101	29.0	75	21.6	34	9.8	58	16.7	348	2.8	
	일본	186	53.3	112	32.1	15	4.3	0	0.0	36	10.3	349	3.5	

주: 1) 마지막 열의 평균점수는 매우 동의함 4점, 거의 동의함 3점, 거의 동의안함 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2.5점 이하이면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2.5점 이상이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냄

2) * < 0.1, ** < 0.05, *** < 0.01

〈표 Ⅲ-19〉 일본 교원이 생각하는 한·중·일 3국 국민의식

구 분		매우 동의함		거의 동의함		거의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모름		총계	평균	X ²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국가를 중요시한다.	한국	42	68.9	18	29.5	0	0.0	0	0.0	1	1.6	61	3.7	56.81 ***
	중국	44	72.1	13	21.3	2	3.3	1	1.6	1	1.6	61	3.7	
	일본	11	18.0	28	45.9	14	23.0	4	6.6	4	6.6	61	2.8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	14	23.0	38	62.3	5	8.2	0	0.0	4	6.6	61	3.2	17.80 **
	중국	14	23.0	21	34.4	17	27.9	2	3.3	7	11.5	61	2.9	
	일본	11	18.0	37	60.7	8	13.1	2	3.3	3	4.9	61	3.0	
인권을 잘 보장한다.	한국	6	10.0	34	56.7	6	10.0	0	0.0	14	23.3	60	3.0	64.08 ***
	중국	2	3.3	14	23.0	17	27.9	13	21.3	15	24.6	61	2.1	
	일본	14	23.0	39	63.9	5	8.2	1	1.6	2	3.3	61	3.1	
환경을 잘 보호한다.	한국	3	4.9	24	39.3	10	16.4	0	0.0	24	39.3	61	2.8	58.20 ***
	중국	0	0.0	13	21.3	11	18.0	16	26.2	21	34.4	61	1.9	
	일본	6	9.8	38	62.3	11	18.0	2	3.3	4	6.6	61	2.8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	한국	7	11.5	20	32.8	11	18.0	0	0.0	23	37.7	61	2.9	9.12
	중국	14	23.0	18	29.5	8	13.1	0	0.0	21	34.4	61	3.2	
	일본	13	21.3	24	39.3	13	21.3	0	0.0	11	18.0	61	3.0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한국	10	16.4	26	42.6	10	16.4	0	0.0	15	24.6	61	3.0	23.41 ***
	중국	18	29.5	23	37.7	7	11.5	0	0.0	13	21.3	61	3.2	
	일본	5	8.2	21	34.4	24	39.3	1	1.6	10	16.4	61	2.6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	4	6.6	33	54.1	11	18.0	0	0.0	13	21.3	61	2.9	20.60 ***
	중국	4	6.6	21	34.4	15	24.6	7	11.5	14	23.0	61	2.5	
	일본	7	11.5	33	54.1	15	24.6	1	1.6	5	8.2	61	2.8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한국	16	26.2	21	34.4	9	14.8	0	0.0	15	24.6	61	3.2	69.15 ***
	중국	19	31.2	21	34.4	7	11.5	1	1.6	13	21.3	61	3.2	
	일본	0	0.0	8	13.3	32	53.3	11	18.3	9	15.0	60	1.9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한국	18	29.5	28	45.9	3	4.9	0	0.0	12	19.7	61	3.3	56.75 ***
	중국	28	45.9	21	34.4	1	1.6	1	1.6	10	16.4	61	3.5	
	일본	2	3.3	20	32.8	16	26.2	8	13.1	15	24.6	61	2.3	
약속을 잘 지킨다.	한국	6	9.8	33	54.1	4	6.6	1	1.6	17	27.9	61	3.0	35.43 ***
	중국	3	4.9	22	36.1	15	24.6	4	6.6	17	27.9	61	2.5	
	일본	8	13.1	45	73.8	2	3.3	0	0.0	6	9.8	61	3.1	
상품을 잘 만든다.	한국	7	11.5	36	59.0	3	4.9	1	1.6	14	23.0	61	3.0	57.72 ***
	중국	4	6.6	28	45.9	11	18.0	3	4.9	15	24.6	61	2.7	
	일본	31	50.82	27	44.3	1	1.6	0	0.0	2	3.3	61	3.5	

주: 1) 마지막 열의 평균점수는 매우 동의함 4점, 거의 동의함 3점, 거의 동의안함 2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2.5점 이하이면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2.5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냄

2) * < 0.1, ** < 0.05, *** < 0.01

다. 추구하는 가치

(1) 한국

한국, 중국, 일본 3국 국민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물질, 덕목, 가치 중 한국의 학생과 교원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주로 재산, 명예, 권력을 들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 국민들이 재산(25.5%), 높은 학식(16.9%), 권력(15.1%) 순으로, 중국인은 재산(18.7%), 권력(15.2%), 건강(13.1%) 순으로, 일본인은 명예(15.2%), 쾌락(12.8%), 재산, 권력(1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국의 교원들은 자국민과 중국인들이 높이 추구하는 가치로 재산(26.5%, 27.1%), 권력(18.6%, 21.9%), 명예(14.6%, 14.2%) 순으로 생각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재산(17.2%), 명예(16.3%), 신용(14.1%)로 평가하였다.

〈표 Ⅲ-20〉 한국 학생, 교원이 생각하는 각국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

구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재 산	25.5	18.7	11.6	26.5	27.1	17.2	25.6	20.2	12.6
명 예	15.0	12.9	15.2	14.6	14.2	16.3	14.9	13.1	15.4
높은 학식	16.9	7.6	7.4	9.9	4.4	3.9	15.7	7.1	6.8
권 력	15.1	15.2	11.6	18.6	21.9	11.2	15.7	16.4	11.6
미 모	10.8	5.6	5.7	5.3	2.5	1.2	9.8	5.0	4.9
타인으로부터의 존 경	2.0	6.0	6.7	4.7	4.0	5.8	2.4	5.6	6.5
의 리	3.1	3.4	2.2	3.0	5.6	3.9	3.1	3.8	2.5
건 강	6.7	13.3	6.7	12.5	9.0	9.3	7.8	12.6	7.1
자 유	1.5	6.5	4.6	1.6	3.1	4.3	1.5	5.9	4.6
쾌 락	1.1	5.3	12.8	1.8	4.8	6.8	1.3	5.2	11.7
환 경	0.5	2.8	8.0	0.8	0.0	6.0	0.5	2.3	7.6
신 용	1.8	2.7	7.5	0.8	3.5	14.1	1.6	2.8	8.6
χ^2	1,062.90**			214.69**			1,196.87**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0.1 , ** <0.05 , *** <0.01

(2) 중국

중국 학생과 교원들이 생각하는 각국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중국 학생은 한국 국민들이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미모, 신용 순으로 추구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해서는 신용, 높은 학식, 명예 순으로, 일본 국민들은 권력, 재산, 명예 순으로 추구한다고 보았다. 중국 교원들은 한국 국민들이 미모, 명예,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순으로 뽑고 있으며 자국민과 일본 국민들은 명예, 권력, 재산 등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이 한국의 미모지상주의를 지적한 이유에는 현재 중국에 불고 있는 연예인들의 한류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국민이 신용을 중시하고 일본 국민들이 재산, 명예 등을 중시하는 것은 일반적 국민정서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표 Ⅲ-21〉 중국 학생, 교원이 생각하는 각국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

구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재 산	5.5	9.4	15.4	9.4	12.8	16.5	6.2	10.0	15.6
명 예	10.9	11.6	13.2	13.9	16.0	12.9	11.5	12.4	13.1
높은 학식	5.9	14.8	3.8	4.8	10.8	4.6	5.7	14.1	3.9
권 력	4.6	8.1	18.4	6.1	15.2	17.8	4.9	9.3	18.3
미 모	12.7	1.9	5.4	16.1	1.5	3.3	13.3	1.8	5.0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13.0	9.2	8.9	12.2	8.4	8.1	12.9	9.1	8.8
의 리	4.3	10.0	3.0	3.5	7.8	1.5	4.2	9.6	2.7
건 강	10.3	9.2	7.4	10.0	11.3	8.6	10.3	9.6	7.6
자 유	6.7	5.2	3.3	2.4	2.6	4.0	5.9	4.7	3.4
쾌 락	4.9	3.4	2.3	3.3	2.6	3.1	4.6	3.3	2.5
환 경	9.0	2.3	12.9	8.1	2.0	12.7	8.8	2.2	12.9
신 용	12.1	15.1	6.2	10.2	9.1	7.0	11.8	14.1	6.3
χ^2	1117.21***			207.13**			1271.84**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 0.1, ** < 0.05, *** < 0.01

(3) 일본

일본 학생은 한국 국민들이 명예, 높은 학식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를 높이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권력을 다음 요소로 보고 있다, 중국 국민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권력, 명예 순으로 보고 있으며 물질적 요소인 재산을 높이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다른 패턴을 보고 있는데 물질적 요소로서 재산을 가장 많이 추구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유, 미모를 다음 순으로 보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한국 국민들이 높은 학식, 명예, 의리 순으로 추구한다고 보았으며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일본 학생과 같은 응답을 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물질적 요소로 재산을 가장 높게 추구하며 건강과 자유를 다음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 국민의 의리 항목과 자국민의 자유 항목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른 국민의 결과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2〉 일본 학생, 교원이 생각하는 각국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

구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재 산	7.8	14.6	16.7	7.5	15.1	15.3	7.8	14.7	16.5
명 예	16.3	17.9	7.6	18.4	23.3	7.4	16.6	18.6	7.6
높 은 학 식	20.0	11.8	8.0	19.0	8.7	9.1	19.8	11.4	8.1
권 력	8.5	18.3	5.3	4.6	18.6	1.7	8.0	18.4	4.8
미 모	7.4	2.6	9.6	3.5	1.2	6.8	6.8	2.4	9.2
타인으로부터의 존	7.3	6.8	3.4	13.8	12.2	4.0	8.2	7.6	3.5
의 리	6.6	4.7	5.0	17.2	5.8	7.4	8.1	4.9	5.3
건 강	6.7	7.3	9.0	4.0	6.4	14.2	6.3	7.2	9.8
자 유	7.1	4.9	14.6	4.0	1.7	13.6	6.6	4.5	14.4
쾌 락	3.7	3.5	7.2	0.0	1.7	5.7	3.2	3.2	7.0
환 경	3.3	3.5	6.6	0.6	1.7	3.4	2.9	3.2	6.1
신 용	5.5	4.1	7.1	7.5	3.5	11.4	5.8	4.1	7.7
χ^2	389.99**			150.17**			509.80**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 0.1, ** < 0.05, *** < 0.01

2. 한·중·일 3국의 분야별 정보인지 수준

가. 정보취득경로

(1) 한국

한국의 교원, 학생들은 대부분 TV, 잡지, 신문, 인터넷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일반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경우 언론매체를 통한 비중이 중국, 일본 모두 77%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수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문화수입으로 인하여 공연, 영화와 같은 문화적 접촉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비중도 7.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90% 이상의 교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상대국가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다른 수단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3〉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보취득경로

구분	부 모 형 제	학 교 수 업	친 구 선 배	언 론 매 체	문 화 적 접 촉	직 접 적 접 촉	합 계	χ^2
학생	중국 (2.0)	115 (15.4)	11 (1.5)	575 (76.9)	16 (2.1)	16 (2.1)	748 (100.0)	34.49**
	일본 (1.1)	77 (10.2)	13 (1.7)	578 (76.9)	59 (7.9)	17 (2.3)	752 (100.0)	
교원	중국 (1.2)	0 (0.0)	0 (0.0)	156 (93.4)	4 (2.4)	5 (3.0)	167 (100.0)	2.21
	일본 (2.5)	0 (0.0)	1 (0.6)	150 (92.6)	4 (2.5)	3 (1.9)	162 (100.0)	
전체	중국 (1.9)	115 (12.6)	11 (1.2)	731 (79.9)	20 (2.2)	21 (2.3)	915 (100.0)	31.05***
	일본 (1.3)	77 (8.4)	14 (1.5)	728 (79.7)	63 (6.9)	20 (2.2)	914 (100.0)	

주: * <0.1, ** <0.05, *** <0.01

(2) 중국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도 주로 TV, 신문, 인터넷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상대국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학생의 71.8%, 70.5%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 영화 관람과 같은 문화적 접촉을 통한 정보 취득의 비중도 14.9%, 14.6%로 나타나 한국 학생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교원들도 중국 학생과 유사하게 한국, 일본 공히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취득이 가장 높았으며(한국: 64.8%, 일본: 69.6%), 문화적 접촉이 다음으로 나타났다.(한국: 21.3%, 16.0%)

중국인들이 문화적 접촉을 통한 정보취득이 높은 이유는 최근의 문화개방에 따른 상대국의 문화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접촉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Ⅲ-24〉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보취득경로

구분		부 모 형 제	학 교 수 업	친 구 선 배	언 론 매 체	문 화 적 접 촉	직 접 접 촉	합 계	χ^2
학생	한국	6 (1.0)	21 (3.6)	35 (5.9)	423 (71.8)	88 (14.9)	16 (2.7)	589 (100.0)	18.16***
	일본	24 (4.0)	33 (5.5)	24 (4.0)	420 (70.5)	87 (14.6)	8 (1.3)	596 (100.0)	
교원	한국	2 (1.6)	5 (4.1)	6 (4.9)	79 (64.8)	26 (21.3)	4 (3.3)	122 (100.0)	2.62
	일본	5 (4.0)	4 (3.2)	5 (4.0)	87 (69.6)	20 (16.0)	4 (3.2)	125 (100.0)	
전체	한국	8 (1.1)	26 (3.7)	41 (5.8)	502 (70.6)	114 (16.0)	20 (2.8)	711 (100.0)	18.07***
	일본	29 (4.0)	37 (5.1)	29 (4.0)	507 (70.3)	107 (14.8)	12 (1.7)	721 (100.0)	

주: * < 0.1, ** < 0.05, *** < 0.01

(3) 일본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도 한국과 중국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취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매체를 통한 비중이 양국 모두 80% 이상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학생의 경우 학교수업을 통한 정보취득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한국에 대하여 한국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정보취득이 차순위로 나타났는데 표본크기가 작아서 신뢰성에 문제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요컨대, 언론매체에 대한 정보취득 의존도가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과 중국의 학생과 교원만큼 정보취득경로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보취득경로

구분		부 모 제	학 교 수 업	친 구 선 배	언 론 매 체	문 화 적 접 촉	직 접 적 접 촉	합 계	χ^2
학생	한국	10 (2.8)	15 (4.3)	18 (5.1)	279 (79.3)	26 (7.4)	4 (1.1)	352 (100.0)	22.26***
	중국	6 (1.7)	26 (7.4)	6 (1.7)	303 (86.6)	8 (2.3)	1 (0.3)	350 (100.0)	
교원	한국	0 (0.0)	1 (1.6)	2 (3.3)	51 (83.6)	3 (4.9)	4 (6.6)	61 (100.0)	6.76
	중국	1 (1.7)	0 (0.0)	1 (1.7)	56 (93.3)	2 (3.3)	0 (0.0)	60 (100.0)	
전체	한국	10 (2.4)	16 (3.9)	20 (4.8)	330 (79.9)	29 (7.0)	8 (1.9)	413 (100.0)	25.08***
	중국	7 (1.7)	26 (6.3)	7 (1.7)	359 (87.6)	10 (2.4)	1 (0.2)	410 (100.0)	

주: * <0.1, ** <0.05, *** <0.01

나. 정치분야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보의 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가별, 분야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치 분야(정치인의 이름, 정치체제)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교원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학생의 경우 일본정치인의 인지여부가 높게 나오고 중국, 일본의 정치체제 및 중국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는 중간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6〉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치분야 인지여부

구 분		학생			교원		
		중국	일본	χ^2	중국	일본	χ^2
정치인(지도자)의 이름을 한 명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421 (54.6)	85 (11.0)	332.09***	8 (4.8)	3 (1.8)	2.35
	알고 있다	350 (45.4)	686 (89.0)		159 (95.2)	164 (98.2)	
정치체제를 알고 있다.	모른다	392 (50.8)	323 (41.9)	12.42***	23 (13.8)	20 (12.0)	0.24
	알고 있다	379 (49.2)	448 (58.1)		144 (86.2)	147 (88.0)	

주: * <0.1, ** <0.05, *** <0.01

중국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 인지도가 각각 66.3%, 76.0%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양 국가의 정치체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중국 교원 역시 한국, 일본의 정치인 인지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나, 정치체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Ⅲ-27〉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치분야 인지여부

구 분		학생			교원		
		중국	일본	χ^2	중국	일본	χ^2
정치인(지도자)의 이름을 한 명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243 (33.7)	173 (24.0)	16.55***	31 (20.1)	12 (7.8)	9.76***
	알고 있다	479 (66.3)	549 (76.0)		123 (79.9)	142 (92.2)	
정치체제를 알고 있다.	모른다	408 (56.5)	336 (46.5)	14.37***	73 (47.4)	54 (35.1)	4.84***
	알고 있다	314 (43.5)	386 (53.5)		81 (52.6)	100 (64.9)	

주: * <0.1 , ** <0.05 , *** <0.01

〈표 Ⅲ-28〉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정치분야 인지여부

구분		학생			교원		
		한국	중국	χ^2	한국	중국	χ^2
정치인(지도자)의 이름을 한 명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130 (36.8)	163 (46.2)	6.35**	3 (4.9)	5 (8.2)	0.54
	알고 있다	223 (63.2)	190 (53.8)		58 (95.1)	56 (91.8)	
정치체제를 알고 있다.	모른다	250 (70.8)	216 (61.2)	7.30***	13 (21.3)	11 (18.0)	0.21
	알고 있다	103 (29.2)	137 (38.8)		48 (78.7)	50 (82.0)	

주: * <0.1 , ** <0.05 , *** <0.01

일본 학생들의 경우 50% 이상이 한국과 중국의 정치인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 국가의 정치체제 인지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일본 교원들의 한국과 중국의 정치인 인지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정치체제 인지도도 80% 수준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다. 경제분야

경제 분야(기업인지, 주력수출상품)에서는 한국 학생과 교원 모두 중국보다 일본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여준다. 한국 학생의 일본기업과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70%를 상회하였으며 한국 교원의 인지도는 90%를 상회하였다. 반면 한국 학생의 중국기업과 중국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21.7%와 39.0%로 낮게 나왔으며, 한국 교원의 중국에 대한 경제 분야 인지도도 일본에 대한 인지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Ⅲ-29〉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경제분야 인지여부

구 분		학생			교원		
		중국	일본	χ^2	중국	일본	χ^2
기업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604 (78.3)	166 (21.5)	497.65***	96 (56.9)	7 (4.2)	109.30***
	알고 있다	167 (21.7)	605 (78.5)		72 (43.1)	160 (95.8)	
주력 수출 상품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470 (61.0)	218 (28.3)	166.66***	57 (34.1)	12 (7.2)	36.99***
	알고 있다	301 (39.0)	553 (71.7)		110 (65.9)	155 (92.8)	

주: * < 0.1, ** < 0.05, *** < 0.01

중국 학생과 교원들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분야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학생의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주력수출 상품 인지도는 75%~80% 수준으로 일본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한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원 역시 한국, 일본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30〉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경제분야 인지도부

구 분		학생			교원		
		한국	일본	χ^2	한국	일본	χ^2
기업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180 (24.9)	143 (19.8)	5.46**	16 (10.4)	12 (7.8)	0.63
	알고 있다	542 (75.1)	579 (80.2)		138 (89.6)	142 (92.2)	
주력 수출 상품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177 (24.5)	152 (21.1)	2.46	28 (18.2)	22 (14.3)	0.86
	알고 있다	545 (75.5)	570 (79.0)		126 (81.8)	132 (85.7)	

주: * <0.1 , ** <0.05 , *** <0.01

일본의 경우 학생의 응답과 교원의 응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일본 학생의 상대국 기업인지도는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주력수출상품 인지도는 40%~50%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일본 교원들은 한국기업인지도는 77.1%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 기업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양국의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경제분야 인지도부

구 분		학생			교원		
		한국	중국	χ^2	한국	중국	χ^2
기업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283 (80.2)	309 (87.5)	7.07***	14 (23.0)	37 (60.7)	17.82***
	알고 있다	70 (19.8)	44 (12.5)		47 (77.1)	24 (39.3)	
주력 수출 상품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197 (55.8)	160 (45.3)	7.75***	15 (24.6)	11 (18.0)	0.78
	알고 있다	156 (44.2)	193 (54.7)		46 (75.4)	50 (82.0)	

주: * <0.1 , ** <0.05 , *** <0.01

라. 사회분야

사회 분야(도시이름, 대학이름)에서는 한국 학생, 교원의 95% 이상이 중국, 일본의 도시 이름을 1개 이상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인지도에서도 한국 교원의 90% 이상이 두 국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은 교원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보다 일본 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학생과 교원들의 상대국 사회분야에 대한 인지도도 한국의 설문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학생과 교원의 90% 이상의 상대국의 도시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들의 상대국 대학인지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학생의 50%~60% 만이 상대국 대학이름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2〉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사회분야 인지여부

구 분		학생			교원		
		중국	일본	χ^2	중국	일본	χ^2
도시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31 (4.0)	20 (2.6)	2.45	1 (0.6)	0 (0.0)	1.00
	알고 있다	740 (96.0)	751 (97.4)		166 (99.4)	167 (100.0)	
대학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248 (32.2)	135 (17.5)	44.37***	10 (6.0)	1 (0.6)	7.61***
	알고 있다	523 (67.8)	636 (82.5)		157 (94.0)	166 (99.4)	

주: * < 0.1, ** < 0.05, *** < 0.01

〈표 III-33〉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사회분야 인지여부

구분		학생			교원		
		한국	일본	χ^2	한국	일본	χ^2
도시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51 (7.1)	43 (6.0)	0.72	2 (1.3)	3 (2.0)	0.20
	알고 있다	671 (92.9)	679 (94.0)		152 (98.7)	151 (98.1)	
대학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318 (44.0)	254 (35.2)	11.86***	30 (19.5)	15 (9.7)	5.85**
	알고 있다	404 (56.0)	468 (64.8)		124 (80.5)	139 (90.3)	

주: * <0.1 , ** <0.05 , *** <0.01

〈표 III-34〉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사회분야 인지여부

구분		학생			교원		
		한국	중국	χ^2	한국	중국	χ^2
도시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20 (5.7)	20 (5.7)	0.00	0 (0.0)	0 (0.0)	-
	알고 있다	333 (94.3)	333 (94.3)		61 (100.0)	61 (100.0)	
대학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300 (85.0)	323 (91.5)	7.22***	12 (19.7)	10 (16.4)	0.22
	알고 있다	53 (15.0)	30 (8.5)		49 (80.3)	51 (83.6)	

주: * <0.1 , ** <0.05 , *** <0.01

일본의 경우 교원들의 상대국 도시인지도는 100%, 대학인지도는 80% 수준으로 높게 나왔으며 학생들의 상대국 도시이름인지도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국 대학에 대한 인지도는 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마. 문화분야

문화 분야(문자인식, 음식이름, 전통의복, 역사관계, 연예인)에서는 한국 학생과 교원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의 음식과 전통의복, 상대국과의 역사관계에 대해 모두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문자인식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왔으며 학생, 교원 모두 중국문자보다 일본문자에 더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상대국의 유명연예인 인지도에서는 한국 학생의 70~85%가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Ⅲ-35〉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문화분야 인지여부

구분		학생			교원		
		중국	일본	χ^2	중국	일본	χ^2
말이나 글자를 식별할 수 있다.	모른다	330 (42.8)	227 (29.4)	29.82***	65 (38.9)	62 (37.1)	0.11
	알고 있다	441 (57.2)	544 (70.6)		102 (61.1)	105 (62.9)	
음식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61 (7.9)	33 (4.3)	8.88***	6 (3.6)	6 (3.6)	0.00
	알고 있다	710 (92.1)	738 (95.7)		161 (96.4)	161 (96.4)	
전통의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모른다	144 (18.7)	42 (5.5)	63.61***	9 (5.4)	1 (0.6)	6.59**
	알고 있다	627 (81.3)	729 (94.6)		158 (94.6)	166 (99.4)	
상호 역사적 관계를 알고 있다.	모른다	120 (15.6)	41 (5.3)	42.28***	2 (1.2)	1 (0.6)	0.33
	알고 있다	651 (84.4)	730 (94.7)		165 (98.8)	166 (99.4)	
유명 연예인을 1명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225 (29.2)	115 (14.9)	45.65***	69 (41.3)	71 (42.5)	0.04
	알고 있다	546 (70.8)	656 (85.1)		98 (58.7)	96 (57.5)	

주: * < 0.1, ** < 0.05, *** < 0.01

중국의 학생들과 교원들도 상대국의 문화분야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음식, 전통의복, 유명 연예인에 대한 인지도는 학생, 교원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간 역사적 관계 인지도 항목에서 중국 학생들은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인지도는 높게 나왔으나 한국과의 관계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인지도는 학생, 교원 모두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왔으나 일본어문자에 대한 인지도가 우리말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36〉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문화분야 인지여부

구 분		학생			교원		
		한국	일본	χ^2	한국	일본	χ^2
말이나 글자를 식별할 수 있다.	모른다	402 (55.7)	358 (49.6)	5.38**	90 (58.4)	82 (53.3)	0.84
	알고 있다	320 (44.3)	364 (50.4)		64 (41.6)	72 (46.8)	
음식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72 (10.0)	76 (10.5)	0.12	12 (7.8)	15 (9.7)	0.37
	알고 있다	650 (90.0)	646 (89.5)		142 (92.2)	139 (90.3)	
전통의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모른다	109 (15.1)	83 (11.5)	4.06**	10 (6.5)	6 (3.9)	1.05
	알고 있다	613 (84.9)	639 (88.5)		144 (93.5)	148 (96.1)	
상호 역사적 관계를 알고 있다.	모른다	294 (40.7)	107 (14.8)	120.73***	49 (31.8)	25 (16.2)	10.25***
	알고 있다	428 (59.3)	615 (85.2)		105 (68.2)	129 (83.8)	
유명 연예인을 1명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85 (11.8)	159 (22.0)	27.00***	11 (7.1)	14 (9.1)	0.39
	알고 있다	637 (88.2)	563 (78.0)		143 (92.9)	140 (90.9)	

주: * < 0.1, ** < 0.05, *** < 0.01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에 대한 문화분야 인지도도 한국과 중국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음식, 전통의복, 역사적 관계의 인지도는 학생, 교원 모두 높았으며 연예인 인지도 항목에서는 학생과 교원 공히 한국연예인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중국 연예인에 대한 인지도는 50% 수준에 불과하였다. 말과 글자의 식별능력은 보통 수준이나 교원이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중국 학생 및 교원의 인지능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 문화분야 인지여부

구 분		학생			교원		
		한국	중국	χ^2	한국	중국	χ^2
말이나 글자를 식별할 수 있다.	모른다	137 (38.8)	147 (41.6)	0.58	16 (26.2)	15 (24.6)	0.04
	알고 있다	216 (61.2)	206 (58.4)		45 (73.8)	46 (75.4)	
음식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12 (3.4)	31 (8.8)	8.93***	0 (0.0)	2 (3.3)	2.03
	알고 있다	341 (96.6)	322 (91.2)		61 (100.0)	59 (96.7)	
전통의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모른다	62 (17.6)	129 (36.5)	32.12***	3 (4.9)	11 (18.0)	5.16**
	알고 있다	291 (82.4)	224 (63.5)		58 (95.1)	50 (82.0)	
상호 역사적 관계를 알고 있다.	모른다	71 (20.1)	58 (16.4)	1.60	5 (8.2)	4 (6.6)	0.12
	알고 있다	282 (79.9)	295 (83.6)		56 (91.8)	57 (93.4)	
유명 연예인을 1명 이상 알고 있다.	모른다	10 (2.8)	171 (48.4)	192.58***	2 (3.3)	31 (50.8)	34.93***
	알고 있다	343 (97.2)	182 (51.6)		59 (96.7)	30 (49.2)	

주: * < 0.1, ** < 0.05, *** < 0.01

바. 직업분야

(1) 한국

개별 국가의 각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인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사람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본 결과 한국 학생의 35.4%, 21.5%, 교원의 33.1%, 29.4%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개별 인물에 대한 인지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지하고 있는 직업분야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은 중국의 경우 연예인, 운동선수, 대통령과 정치인 순이며, 일본의 경우 연예인, 대통령과 정치인, 운동선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원의 경우 중국, 일본 공히 대통령과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분포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생과 교원이 일반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38〉 한국 학생과 교원이 인지하고 있는 상대국민 직업분포

구 분	학생		교원		전체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연 예 인	23.9	27.3	12.0	10.9	22.0	24.9
대통령과 정치인	11.5	22.9	18.8	21.7	12.6	22.8
학자 또는 과학자	2.8	2.3	6.5	6.4	3.4	2.9
운 동 선 수	14.4	12.3	13.3	12.5	14.2	12.3
사 업 가	2.5	2.3	3.6	5.8	2.7	2.8
유학생 또는 친구	5.8	3.8	4.9	5.4	5.7	4.0
예 술 가	3.8	7.6	7.8	8.0	4.4	7.7
아는 사람 없음	35.4	21.5	33.1	29.4	35.0	22.7
χ^2	163.36***		3.28		145.53***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 0.1, ** < 0.05, *** < 0.01

(2) 중국

한편 중국의 경우 중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연예인들을 가장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 한류열풍의 직접적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유학생과 친구와의 교류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며 직접적 교류의 빈도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중이 25.0%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일본 연예인과 정치인의 순으로 일본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중국 교원들의 경우 한국 및 일본유학생과 친구를 알고 있는 경우가 각각 27.1%, 19.1%로 나와 인적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순위로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 학생의 응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9〉 중국 학생과 교원이 인지하고 있는 상대국민 직업분포

구 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연 예 인	26.1	20.7	22.1	17.9	25.5	20.3
대통령과 정치인	13.2	16.7	11.1	16.3	12.9	16.6
학자 또는 과학자	2.9	4.5	4.6	2.9	3.2	4.3
운 동 선 수	12.7	11.3	12.2	13.0	12.6	11.6
사 업 가	2.8	4.6	5.7	6.9	3.2	4.9
유학생 또는 친구	17.9	9.4	27.1	19.1	19.3	10.8
예 술 가	7.1	7.9	2.3	1.6	6.4	6.9
아는 사람 없음	17.3	25.0	14.9	22.4	17.0	24.6
χ^2	85.70***		12.63**		91.62***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 0.1, ** < 0.05, *** < 0.01

(3) 일본

일본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히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붙고 있는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치인과 운동선수에 대한 인지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정치인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연예인과 운동선수에 대한 인지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일본 학생과 교원이 인지하고 있는 상대국민 직업분포

구 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연 예 인	36.1	21.0	27.5	13.8	34.8	19.8
대통령과 정치인	20.4	21.8	22.8	25.8	20.8	22.5
학자 또는 과학자	1.6	2.3	7.0	7.6	2.4	3.2
운 동 선 수	20.4	18.1	19.9	17.6	20.4	18.0
사 업 가	1.8	5.0	3.5	7.6	2.1	5.4
유학생 또는 친구	9.2	5.2	8.8	7.6	9.2	5.6
예 술 가	4.6	7.4	6.4	12.0	4.8	8.1
아는 사람 없음	5.8	19.3	4.1	8.2	5.6	17.5
χ^2	132.57***		15.53**		145.68***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 0.1, ** < 0.05, *** < 0.01

3. 소결

동북아 3국 국민의 상호간 국가인식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과거사 청산문제, 한중간 역사 교과서 문제, 중일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점유 분쟁 등 현재 한·중·일 3국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영토문제와 과거사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상호간 국가 이미지 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능력과 활동과 같이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고 국민적 성향이 명확한 항목에서는 상호간 보통 또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좋은-나쁜’, ‘정직한-부정직한’ 등 정직성과 심성적 항목이 있는 평가요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상호간 보통 이하의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평가 차원에서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중일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한국은 중국, 일본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상호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3국 국민들은 자국중심의 배타적 성향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식수준 평가 시 질서, 인권, 환경, 타국문화존중, 약속준수 등 선진문화지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자국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보통 이상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에 금전적 중요성, 자국이익중시, 과거중시 등 부정적 항목에 대해서는 자국민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 국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배타적 성향이 동북아 3국 국민에게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넷째, 중국과 일본에 붙고 있는 한류열풍은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문화 분야의 인지도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인

식 제고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3국 교원들은 상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들어났으나, 학생들은 상호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 대한 상호 인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한·중·일 3국의 국가 호감도

1. 한·중·일 3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가. 한국

국가 이미지, 국민의식,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중국과 일본에 대한 국가 호감도를 묻는 문항에서 한국의 학생과 교원은 중국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의 51.7%는 중국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보인 학생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 또한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오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중국보다 일본에 더 부정적 이미지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교원의 경우 중국에 대하여 보통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오지만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와 학생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또한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오지만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와 중국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요컨대 상대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교원보다는 학생이,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른 평균점으로 평가할 경우⁴ 교원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3.1)를 제외하고 모두 3점 이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일어나는 중국과 일본과의 과거사, 역사문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⁴ 매우 긍정적 5점, 긍정적 4점, 보통 3점, 부정적 2점, 매우 부정적은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이 3점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3점 이하이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구분		매 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 우 부정적	합계	평균	χ^2
학생	중국	8 (1.1)	141 (18.9)	385 (51.7)	165 (22.2)	46 (6.2)	745 (100.0)	2.9	86.39***
	일본	20 (2.6)	119 (15.7)	253 (33.3)	239 (31.5)	128 (16.9)	759 (100.0)	2.6	
교원	중국	2 (1.2)	40 (24.0)	103 (61.7)	20 (12.0)	2 (1.2)	167 (100.0)	3.1	20.91***
	일본	2 (1.2)	22 (13.6)	85 (52.5)	42 (25.9)	11 (6.8)	162 (100.0)	2.8	
전체	중국	10 (1.1)	181 (19.9)	488 (53.5)	185 (20.3)	48 (5.3)	912 (100.0)	2.9	100.73***
	일본	22 (2.4)	141 (15.3)	338 (36.7)	281 (30.5)	139 (15.1)	921 (100.0)	2.6	

주: * <0.1 , ** <0.05 , *** <0.01

나. 중국

중국의 학생들과 교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70.3%로 나타난 반면 일본에 대해 긍정적 이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18.9%로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35.9%로 가장 많았으나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이 45.1%에 달하고 있다.

중국 교원들의 응답결과도 중국 학생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 이상으로 답한 비중이 64.9%이지만 부정적 응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거의 4배에 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구 분		매 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 우 부정적	합계	평균	χ^2
학생	한국	179 (25.0)	324 (45.3)	193 (27.0)	11 (1.5)	9 (1.3)	716 (100.0)	3.9	490.88 ***
	일본	39 (5.4)	97 (13.5)	258 (35.9)	120 (16.7)	204 (28.4)	718 (100.0)	2.5	
교원	한국	21 (13.6)	79 (51.3)	51 (33.1)	3 (2.0)	0 (0.0)	154 (100.0)	3.8	115.31 ***
	일본	6 (3.9)	16 (10.5)	58 (37.9)	45 (29.4)	28 (18.3)	153 (100.0)	2.5	
전체	한국	200 (23.0)	403 (46.3)	244 (28.1)	14 (1.6)	9 (1.0)	870 (100.0)	3.9	604.03 ***
	일본	45 (5.2)	113 (13.0)	316 (36.3)	165 (18.9)	232 (26.6)	871 (100.0)	2.5	

주: * < 0.1, ** < 0.05, *** < 0.01

다. 일본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긍정적 이상의 호감도를 가지는 비중이 43.5%로 부정적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보통의 비중이 높게 나왔으나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일본 교원들은 양국에 대해 긍정적 호감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보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교원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71.7%의 교원들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구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평균	χ^2
학생	한국 (12.5)	109 (31.0)	173 (49.2)	19 (5.4)	7 (2.0)	352 (100.0)	3.5	58.69 ***
	중국 (5.7)	54 (15.4)	194 (55.4)	68 (19.4)	14 (4.0)	350 (100.0)	3.0	
교원	한국 (1.6)	21 (34.4)	36 (59.0)	3 (4.9)	0 (0.0)	61 (100.0)	3.3	4.07
	중국 (1.7)	12 (20.0)	43 (71.7)	3 (5.0)	1 (1.7)	60 (100.0)	3.1	
전체	한국 (10.9)	130 (31.5)	209 (50.6)	22 (5.3)	7 (1.7)	413 (100.0)	3.4	60.10 ***
	중국 (5.1)	66 (16.1)	237 (57.8)	71 (17.3)	15 (3.7)	410 (100.0)	3.0	

주: * < 0.1, ** < 0.05, *** < 0.01

2. 주요 국가에 대한 국가 호감도

여기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가지는 상대적 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중·일 3개국 이외에 주요 OECD 12개 국가(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총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항목별 선호도 관계를 파악하였다.⁵

가. 호감이 가는 국가

호감이 가는 국가로 한국의 학생들은 호주(17.5%), 프랑스(10.3%), 영국(10.0%)을 들어 서구선진국가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일본(6.6%)은 중간 수준으로, 중국(2.6%)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교원도 또한 주요 서구국가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반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낮은 순위를 주고 있다.

⁵ 자국에 대한 평가는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표 IV-4〉 호감이 가는 국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참고	
한국	학생	호주 (17.5)	프랑스 (10.3)	영국 (10.0)	캐나다 (9.9)	중국: 13순위(2.2) 일본: 7순위(8.6)
	교원	캐나다 (20.0)	호주 (16.5)	핀란드 (10.3)	프랑스 (10.3)	중국: 12순위(1.7) 일본: 11순위(3.1)
중국	학생	프랑스 (15.5)	호주 (10.1)	캐나다 (9.0)	영국 (8.0)	한국: 5순위(6.6) 일본: 11순위(2.9)
	교원	프랑스 (17.3)	호주 (15.8)	캐나다 (15.4)	독일 (6.1)	한국: 11순위(1.5) 일본: 13순위(0.7)
일본	학생	호주 (15.9)	프랑스 (13.1)	미국 (10.3)	이탈리아 (10.0)	한국: 7순위(6.8) 중국: 12순위(1.3)
	교원	호주 (14.9)	캐나다 (14.9)	독일 (8.8)	핀란드 (8.3)	한국: 7순위(6.6) 중국: 12순위(3.3)

주: 3개국 중복응답에 따른 결과임

중국과 일본의 학생과 교원 역시 동북아 3국보다 서구선진국가에 대한 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국간 평가에서는 중국, 일본보다 한국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보통 수준으로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낮은 순위를 주었다.

나.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로 한국의 학생과 교원 모두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학과 비중과 개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어(미국)가 가지는 비중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른 서구국가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각각 2순위, 3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의 교원과 학생들은 동북아 주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학생과 교원 역시 영어(미국, 영국, 호주 등)를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로 선택하였으며, 동북아 3개 국가 언어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표 IV-5〉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참고
한국	학생	미국 (18.8)	중국 (15.7)	일본 (15.4)	프랑스 (12.7)	-
	교원	미국 (18.6)	중국 (17.6)	일본 (17.0)	프랑스 (11.9)	-
중국	학생	프랑스 (17.9)	영국 (15.9)	한국 (10.3)	일본 (10.0)	-
	교원	영국 (20.5)	프랑스 (19.0)	독일 (10.2)	한국 (7.2)	일본: 5순위(6.5)
일본	학생	프랑스 (18.9)	미국 (15.1)	한국 (12.1)	영국 (9.9)	중국: 7순위(8.8)
	교원	한국 (14.8)	중국 (14.8)	프랑스 (13.1)	미국 (13.1)	

주: 3개국 중복응답에 따른 결과임

다. 사귀고 싶은 친구의 국적

한국의 학생과 교원들이 가장 사귀고 싶어 하는 친구의 국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과 일본을 선정하였다.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와 최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확대가 일본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낳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중국은 학생, 교원 모두 중간 순위의 평가를 얻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을 2순위, 일본을 8순위로 두었으며 중국 교원들은 서구선진국가 친구와의 교류를 선호하였으며 한국친구와 일본친구와의 교류는 보통 순위로 평가하였다.

일본 학생들은 중국 교원들과 비슷하게 서양 친구와의 교류를 선호하였으며 한국친구와의 교류는 약간 긍정적으로, 일본친구와의 교류는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한국친구와의 교류를 최순위로 선택하였으며 중국친구와의 교류는 보통수준의 선호를 보이고 있다.

〈표 IV-6〉 사귀고 싶은 친구의 국적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참고
한국	학생	미국 (14.1)	일본 (13.9)	호주 (12.9)	영국 (9.8)	중국: 7순위(5.4)
	교원	캐나다 (12.1)	호주 (11.7)	프랑스 (10.5)	일본 (9.2)	중국: 8순위(6.1)
중국	학생	프랑스 (14.0)	한국 (10.9)	영국 (9.4)	미국 (9.4)	일본: 8순위(4.6)
	교원	프랑스 (16.4)	미국 (14.0)	캐나다 (12.0)	호주 (11.1)	한국: 5순위(8.1) 일본: 11순위(2.4)
일본	학생	미국 (16.6)	프랑스 (13.8)	호주 (12.8)	영국 (11.1)	한국: 6순위(8.5) 중국: 10순위(2.6)
	교원	한국 (13.5)	미국 (11.2)	호주 (9.4)	캐나다 (9.4)	중국: 6순위(8.8)

주: 3개국 중복응답에 따른 결과임

〈표 IV-7〉 유학가고 싶은 국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참고
한국	학생	호주 (16.7)	미국 (13.7)	영국 (13.0)	프랑스 (11.5)	일본: 6순위(8.3) 중국: 9순위(4.3)
	교원	미국 (16.2)	영국 3.0)	캐나다 (11.2)	독일 (10.6)	일본: 7순위(8.1) 중국: 8순위(5.6)
중국	학생	영국 (15.6)	프랑스 (14.9)	미국 (14.4)	캐나다 (11.3)	한국: 6순위(6.3) 일본: 9순위(4.0)
	교원	미국 (17.3)	프랑스 (14.7)	영국 (13.9)	호주 (13.6)	한국: 8순위(3.0) 일본: 10순위(2.8)
일본	학생	영국 (15.4)	미국 (15.2)	호주 (13.6)	프랑스 (13.1)	한국: 8순위(5.1) 중국: 12순위(0.7)
	교원	프랑스 (12.4)	캐나다 (11.9)	독일 (11.3)	호주 (10.2)	한국: 9순위(5.1) 중국: 11순위(3.4)

주: 3개국 중복응답에 따른 결과임

라. 유학가고 싶은 국가

한국의 학생과 교원들이 선호하는 유학가고 싶은 국가로 높은 순위를 얻은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등 구미선진국들이며 일본은 각각 6순위, 7순위를 얻었으며, 중국은 약간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도 서구선진국가로의 유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북아 3국으로의 유학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3. 소결

한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 이미지, 국민의식, 교류관계, 인식수준 등 객관적·주관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나타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3국의 학생과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국가에 대한 국가 호감도를 평가한 결과 이와 같은 명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국가 이미지와 국민의식에 대한 평가는 상대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국 학생과 교원들은 중국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북아 3국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위권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 호감도,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사귀고 싶은 친구의 국적, 유학가고 싶은 국가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 OECD 주요 국가와의 국제비교분석에서 동북아 3국은 전반적으로 서구선진국가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나타

내고 있다. 다만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영어를 제외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각 국가별로 높은 순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주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 인식, 생활만족도

1. 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 인식

가. 교류경험

(1) 한국

방문, 여행, 펜팔, 초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경험에 대하여 한국 학생의 10.7%, 18.0%만이 각각 중국(인) 일본(인)과 교류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국제경험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한국 교원의 38.9%, 41.3%는 각각 중국(인), 일본(인)과 교류경험을 가졌으며 21.6%의 교원은 두 국가와 모두 교류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경험을 보이고 있다. 국가 간을 비교하면 학생의 경우 중국(인)보다 일본(인)과의 교류가 7.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교원의 경우 두 국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41.3%(69명)의 교원들은 두 국가와 직간접적 국제경험교류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한국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경험

구분	학생		교원		전체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있다	82 (10.7)	138 (18.0)	65 (38.9)	69 (41.3)	147 (15.7)	207 (22.1)
없다	688 (89.4)	631 (82.1)	102 (61.1)	98 (58.7)	790 (84.3)	729 (77.9)
χ^2	16.71***		0.19***		12.61***	

주: * < 0.1, ** < 0.05, *** < 0.01

(2) 중국

중국 학생의 국제교류경험도 한국 학생과 유사하게 낮게 도출되었으나 한국과의 교류경험(33.0%)이 일본과의 경험(16.5%)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원의 국제교류경험은 중국 학생보다 높게 나왔으며 일본보다 한국과 교류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원의

〈표 V-2〉 중국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경험

구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있다	238 (33.0)	119 (16.5)	67 (43.5)	37 (24.0)	305 (34.9)	156 (17.8)
없다	483 (67.0)	602 (83.5)	87 (56.5)	117 (76.0)	570 (65.1)	719 (82.2)
χ^2	51.72**		13.07**		65.38**	

주: * < 0.1, ** < 0.05, *** < 0.01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韓流)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일본

일본도 한국, 중국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 중국과 교류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중은 각각 32.6%, 20.4%로 한국(인)과 교류경험이 높게 나왔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들은 학생보다 교류경험이 많았으며 일본 교원들의 41%는 한국(인)과 교류경험이 있으며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V-3〉 일본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 경험

구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있다	115 (32.6)	72 (20.4)	25 (41.0)	14 (23.0)	140 (33.8)	86 (20.8)
없다	238 (67.4)	281 (79.6)	36 (59.0)	47 (77.1)	274 (66.2)	328 (79.2)
χ^2	13.45**		4.56**		17.75**	

주: * < 0.1, ** < 0.05, *** < 0.01

나. 우선 협력과제

(1) 한국

중국과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분야로 한국의 학생들은 경제적 협력(41.8%), 문화적 협력(27.6%), 정치적 협력(17.3%) 순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문화적 협력(30.6%)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협력(27.7%), 경제적 협력(24.9%)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교원들은 중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협력과 문화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관련 담당자들이 교육적 협력관계의 중요도를 매우 낮게 평가한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표 V-4〉 한국과 상대국과의 우선 협력분야

구분		정치적 협력	경제적 협력	문화적 협력	교육적 협력	군사적 협력	합계	χ^2
학생	중국	130 (17.3)	314 (41.8)	207 (27.6)	32 (4.3)	68 (9.1)	751 (100.0)	78.01***
	일본	208 (27.7)	187 (24.9)	230 (30.6)	82 (10.9)	45 (6.0)	752 (100.0)	
교원	중국	32 (19.4)	93 (56.4)	28 (17.0)	6 (3.6)	6 (3.6)	165 (100.0)	9.90**
	일본	38 (23.2)	72 (43.9)	38 (23.2)	14 (8.5)	2 (1.2)	164 (100.0)	
전체	중국	162 (17.7)	407 (44.4)	235 (25.7)	38 (4.2)	74 (8.1)	916 (100.0)	83.47***
	일본	246 (26.9)	259 (28.3)	268 (29.3)	96 (10.5)	47 (5.1)	916 (100.0)	

주: * <0.1, ** <0.05, *** <0.01

(2) 중국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도 한국의 결과와 유사하게 정치, 경제, 문화적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은 그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먼저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국: 32.9%, 일본: 37.9%), 다음으로 한국과는 문화적 협력, 정치적 협력 순으로 필요하며, 일본과는 정치적 협력, 문화적 협력 순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50% 이상의 중국의 교원들은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문화적 협력, 정치적 협력을 차순위로 평가하고 있다.

〈표 V-5〉 중국과 상대국과의 우선 협력분야

구분		정치적 협력	경제적 협력	문화적 협력	교육적 협력	군사적 협력	합계	χ^2
학생	한국	116 (20.1)	190 (32.9)	173 (30.0)	75 (13.0)	23 (4.0)	577 (100.0)	20.80***
	일본	145 (25.3)	217 (37.9)	107 (18.7)	78 (13.6)	26 (4.5)	573 (100.0)	
교원	한국	7 (6.0)	60 (51.3)	34 (29.1)	14 (12.0)	2 (1.7)	117 (100.0)	7.41
	일본	16 (13.6)	64 (54.2)	20 (17.0)	16 (13.6)	2 (1.7)	118 (100.0)	
전체	한국	123 (17.7)	250 (36.0)	207 (29.8)	89 (12.8)	25 (3.6)	694 (100.0)	26.36***
	일본	161 (23.3)	281 (40.7)	127 (18.4)	94 (13.6)	28 (4.1)	691 (100.0)	

주: * <0.1 , ** <0.05 , *** <0.01

(3) 일본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과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하여 문화적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적 협력, 교육적 협력이 다음으로 필요하며, 중국과는 문화적 협력, 정치적 협력, 경제적 협력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한국과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 순으로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과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분야 순으로 선택하였다.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이 한국,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중시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이 자국보다 하위에 있는 국가와 협력을 가져도 이득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V-6〉 일본과 상대국과의 우선 협력분야

구 분		정치적 협력	경제적 협력	문화적 협력	교육적 협력	군사적 협력	합계	χ^2
학생	한국	112 (32.6)	33 (9.6)	155 (45.1)	40 (11.6)	4 (1.2)	344 (100.0)	13.93***
	중국	121 (35.2)	61 (17.7)	119 (34.6)	37 (10.8)	6 (1.7)	344 (100.0)	
교원	한국	20 (33.3)	8 (13.3)	27 (45.0)	5 (8.3)	0 (0.0)	60 (100.0)	1.88
	중국	24 (40.0)	11 (18.3)	20 (33.3)	5 (8.3)	0 (0.0)	60 (100.0)	
전체	한국	132 (32.7)	41 (10.2)	182 (45.1)	45 (11.1)	4 (1.0)	404 (100.0)	15.38***
	중국	145 (35.9)	72 (17.8)	139 (34.4)	42 (10.4)	6 (1.5)	404 (100.0)	

주: * < 0.1, ** < 0.05, *** < 0.01

다.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1) 한국

한국 학생들은 중국과의 교육분야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언어교육(22.4%), 상호학교방문(19.4%), 수학여행(17.4%)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일본과의 교육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상호학교방문, 수학여행, 상호언어교육 순으로 선택하였다.

한국 교원들은 중국과의 교육관계 증진을 위하여 상호언어교육(24.9%), 상호학교방문(18.2%), 스포츠 및 문화행사(17.9%)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일본과는 상호언어교육(23.2%), 교사학생교환(18.0%), 상호학교방문(17.7%)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한·중·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구체적 교육협력과제로서 직접적인 상호학교방문과 언어교육을 통한 직접적 체험방식과 교사학생교환 등 인적교류가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V-7〉 한국 학생과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구 분	학생		교원		전체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유 학 생 확 대	15.5	10.8	13.6	13.7	15.2	11.4
수 학 여 행	17.4	21.0	9.1	11.6	15.9	19.3
스포츠 및 문화행사	15.6	15.4	17.9	15.9	16.0	15.5
상 호 언 어 교 육	22.4	17.1	24.9	23.2	22.9	18.2
상 호 학 교 방 문	19.4	22.7	18.2	17.7	19.2	21.8
교 사 학 생 교 환	9.8	13.0	16.4	18.0	10.9	13.9
χ^2	39.28***		1.86		35.65***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0.1, ** <0.05, *** <0.01

(2) 중국

중국 학생들은 한국과 교육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호학교방문(23.1%), 수학여행(21.8%), 상호언어교육(17.7%)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을 거론하고 있다.

중국 교원 역시 한국, 일본과의 상호학교방문, 상호언어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과는 교사학생교환을, 일본과는 수학여행을 교육협력증진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직접적 인적교류와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V-8〉 중국 학생과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구 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유 학 생 확 대	14.4	13.2	16.1	11.5	14.7	12.9
수 학 여 행	21.8	21.6	14.0	16.1	20.4	20.5
스포츠 및 문화행사	10.8	11.8	10.1	14.3	10.7	12.3
상 호 언 어 교 육	17.7	18.2	17.5	15.4	17.6	17.6
상 호 학 교 방 문	23.1	22.5	25.2	27.6	23.5	23.5
교 사 학 생 교 환	12.2	12.8	17.1	15.0	13.1	13.3
χ^2	1.62		5.71		3.57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0.1 , ** <0.05 , *** <0.01

(3) 일본

일본 학생과 교원들의 교육협력증진 방안은 한국과 중국의 결과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과 중국 공히 스포츠 및 문화행사 교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상호언어교육과 상호 학교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 교원들은 양국과의 상호 언어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스포츠 및 문화행사교류, 교사학생교환을 다음 과제로 선택하였다.

〈표 V-9〉 일본 학생과 교원이 생각하는 교육 분야 우선 협력과제

구 분	학생		교원		전체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유 학 생 확 대	17.2	15.7	15.1	15.1	16.9	15.6
수 학 여 행	12.4	9.5	5.0	4.2	11.3	8.8
스포츠 및 문화행사	27.1	27.5	21.0	21.9	26.2	26.6
상 호 언 어 교 육	19.3	21.6	24.4	24.4	20.1	22.0
상 호 학 교 방 문	16.1	15.6	15.1	16.8	15.9	15.8
교 사 학 생 교 환	8.0	10.1	19.3	17.7	9.7	11.3
χ^2	5.68		0.30		4.69	

주: 1) 3가지를 선택하여(중복응답) 도출된 결과임
 2) * <0.1 , ** <0.05 , *** <0.01

라. 유학선호 국가

(1) 한국

교육협력증진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동북아 3국 대학으로 유학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에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의 경우 리커드 5점 척도에 따른 평균점수가 대부분 3점을 상회하여 중국대학과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하여 한국 학생, 교원은 모두 보통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교원이 학생보다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해 긍정적 이상의 답변비율이 42.3%로 나온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54.3%가 나와 중국대학보다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에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원에 대한 조사에도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59.6%,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이 63.3%로 나와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에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중국,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한 선호도

구 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평균	χ^2
학생	중국	86 (11.5)	231 (30.8)	281 (37.4)	91 (12.1)	62 (8.3)	751 (100.0)	3.3	27.21***
	일본	108 (14.3)	306 (40.5)	220 (29.1)	59 (7.8)	62 (8.2)	755 (100.0)	3.4	
교원	중국	17 (10.2)	82 (49.4)	48 (28.9)	15 (9.0)	4 (2.4)	166 (100.0)	3.6	2.48
	일본	24 (14.5)	81 (48.8)	48 (28.9)	11 (6.6)	2 (1.2)	166 (100.0)	3.7	
전체	중국	103 (11.2)	313 (34.1)	329 (35.9)	106 (11.6)	66 (7.2)	917 (100.0)	3.3	25.02***
	일본	132 (14.3)	387 (42.0)	268 (29.1)	70 (7.6)	64 (7.0)	921 (100.0)	3.5	

주: * < 0.1, ** < 0.05, *** < 0.01

(2) 중국

리커드 평균 점수에 의하면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으로의 대학 유학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일본으로의 유학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학생의 경우 한국대학 유학에 대해 57.8%의 학생이 긍정적 이상으로 보았으나 일본의 경우 41.4%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보아 국가간 차이를 나타낸다. 중국 교원들 또한 한국유학에 대해 57.8%의 교원이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일본유학에 대해서는 겨우 37%만이 긍정적으로 보아 국가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본의 국제 위상에 버금가는 일류대학들이 일본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생과 교원들이 일본유학을 보통수준으로 보는 이유는 영토분쟁, 과거사문제 등 기본적 일본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11〉 한국,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한 선호도

구 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평균	χ^2
학생	한국	243 (33.9)	171 (23.9)	214 (29.9)	37 (5.2)	51 (7.1)	716 (100.0)	3.7	168.42 ***
	일본	125 (17.5)	104 (14.6)	190 (26.6)	116 (16.2)	180 (25.2)	715 (100.0)	2.8	
교원	한국	37 (24.0)	44 (28.6)	57 (37.0)	10 (6.5)	6 (3.9)	154 (100.0)	3.6	18.21 ***
	일본	26 (16.9)	31 (20.1)	52 (33.8)	27 (17.5)	18 (11.7)	154 (100.0)	3.1	
전체	한국	280 (32.2)	215 (24.7)	271 (31.2)	47 (5.4)	57 (6.6)	870 (100.0)	3.7	185.00 ***
	일본	151 (17.4)	135 (15.5)	242 (27.9)	143 (16.5)	198 (22.8)	869 (100.0)	2.9	

주: * < 0.1, ** < 0.05, *** < 0.01

(3) 일본

리커트 평균점수에 의하면 일본 교원들은 한국과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 학생들은 한국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V-12〉 한국,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한 선호도

구 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평균	χ^2
학생	한국	55 (15.7)	82 (23.4)	142 (40.5)	41 (11.7)	31 (8.8)	351 (100.0)	3.3	39.61***
	중국	29 (8.3)	44 (12.5)	142 (40.5)	84 (23.9)	52 (14.8)	351 (100.0)	2.8	
교원	한국	8 (13.1)	24 (39.3)	25 (41.0)	3 (4.9)	1 (1.6)	61 (100.0)	3.6	0.79
	중국	6 (9.8)	24 (39.3)	25 (41.0)	5 (8.2)	1 (1.6)	61 (100.0)	3.5	
전체	한국	63 (15.3)	106 (25.7)	167 (40.5)	44 (10.7)	32 (7.8)	412 (100.0)	3.3	36.71***
	중국	35 (8.5)	68 (16.5)	167 (40.5)	89 (21.6)	53 (12.9)	412 (100.0)	2.9	

주: * < 0.1, ** < 0.05, *** < 0.01

2. 교원·학생의 생활만족도 및 관심사항

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1) 한국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V-13〉 한국 학생과 교원의 생활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χ^2
개인생활	학생	107 (14.2)	310 (41.0)	218 (28.8)	85 (11.2)	36 (4.8)	756 (100.0)	3.5	24.00***
	교원	34 (20.6)	83 (50.3)	43 (26.1)	5 (3.0)	0 (0.0)	165 (100.0)	3.9	
	소계	141 (15.3)	393 (42.7)	261 (28.3)	90 (9.8)	36 (3.9)	921 (100.0)	3.6	
가정생활	학생	155 (20.5)	320 (42.4)	189 (25.0)	57 (7.6)	34 (4.5)	755 (100.0)	3.7	22.58***
	교원	43 (26.2)	88 (53.7)	30 (18.3)	3 (1.8)	0 (0.0)	164 (100.0)	4.0	
	소계	198 (21.6)	408 (44.4)	219 (23.8)	60 (6.5)	34 (3.7)	919 (100.0)	3.7	
학교생활	학생	63 (8.3)	206 (27.3)	253 (33.5)	121 (16.0)	112 (14.8)	755 (100.0)	3.0	66.04***
	교원	20 (12.3)	85 (52.2)	51 (31.3)	7 (4.3)	0 (0.0)	163 (100.0)	3.7	
	소계	83 (9.0)	291 (31.7)	304 (33.1)	128 (13.9)	112 (12.2)	918 (100.0)	3.1	

주: * < 0.1, ** < 0.05, *** < 0.01

한국 학생의 55.2%, 한국 교원의 70.9%는 현재의 개인생활에 대해 만족 이상의 답변을 보였으며, 불만족 이하의 답변을 보인 학생은 16.0%, 교원은 3.0%로 매우 낮았다. 또한 한국 학생의 62.9%, 한국 교원의 80.0%가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답변을 보여 불만족 이하의 답변보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한국 교원의 64.4%가 만족 이상의 답변을 보여 반수 이상의 교원이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35.6%의 학생만이 만족 이상의 답변을 보여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리커드 5점 척도에 따른 평균점수로 나타낼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3.5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는 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평점은 3.0으로 거의 보통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보다 교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2) 중국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도 현재 개인, 가정, 학교생활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가정, 학교생활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왔는데 중국 학생의 80.3%, 중국 교원의 72.2%가 현재의 개인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중국인의 비중은 57.4%,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하는 비중은 55.7%로 나타나 개인생활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표 V-14〉 중국 학생과 교원의 생활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χ^2
개인생활	학생	272 (38.2)	300 (42.1)	95 (13.3)	23 (3.2)	22 (3.1)	712 (100.0)	4.1	16.62***
	교원	39 (25.3)	73 (47.4)	32 (20.8)	9 (5.8)	1 (0.7)	154 (100.0)	3.9	
	소계	311 (35.9)	373 (43.1)	127 (14.7)	32 (3.7)	23 (2.7)	866 (100.0)	4.1	
가정생활	학생	167 (23.5)	248 (34.8)	205 (28.8)	61 (8.6)	31 (4.4)	712 (100.0)	3.6	5.53
	교원	26 (16.9)	56 (36.4)	55 (35.7)	13 (8.4)	4 (2.6)	154 (100.0)	3.6	
	소계	193 (22.3)	304 (35.1)	260 (30.0)	74 (8.6)	35 (4.0)	866 (100.0)	3.6	
학교생활	학생	162 (22.8)	242 (34.0)	210 (29.5)	54 (7.6)	44 (6.2)	712 (100.0)	3.6	12.10**
	교원	21 (13.6)	58 (37.7)	50 (32.5)	20 (13.0)	5 (3.3)	154 (100.0)	3.5	
	소계	183 (21.1)	300 (34.6)	260 (30.0)	74 (8.6)	49 (5.7)	866 (100.0)	3.6	

주: * < 0.1, ** < 0.05, *** < 0.01

(3) 일본

리커드 평균점수에 따르면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은 개인·가정·학교생활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학생의 교원의 55%~60%는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나 학생의 46.3%, 교원의 42.6%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 3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대해 대부분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여 중국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5〉 일본 학생과 교원의 생활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χ^2
개인생활	학생	69 (19.8)	144 (41.4)	88 (25.3)	40 (11.5)	7 (2.0)	348 (100.0)	3.7	2.88
	교원	14 (23.0)	27 (44.3)	15 (24.6)	3 (4.9)	2 (3.3)	61 (100.0)	3.8	
	소계	83 (20.3)	171 (41.8)	103 (25.2)	43 (10.5)	9 (2.2)	409 (100.0)	3.7	
가정생활	학생	71 (20.4)	124 (35.6)	95 (27.3)	45 (12.9)	13 (3.7)	348 (100.0)	3.6	6.37
	교원	13 (21.3)	28 (45.9)	17 (27.9)	2 (3.3)	1 (1.6)	61 (100.0)	3.8	
	소계	84 (20.5)	152 (37.2)	112 (27.4)	47 (11.5)	14 (3.4)	409 (100.0)	3.6	
학교생활	학생	42 (12.1)	119 (34.2)	108 (31.0)	62 (17.8)	17 (4.9)	348 (100.0)	3.3	1.23
	교원	6 (9.8)	20 (32.8)	22 (36.1)	9 (14.8)	4 (6.6)	61 (100.0)	3.2	
	소계	48 (11.7)	139 (34.0)	130 (31.8)	71 (17.4)	21 (5.1)	409 (100.0)	3.3	

주: * <0.1, ** <0.05, *** <0.01

나. 학생들의 관심사항

(1) 한국

현재 한국의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입시(46.1%)를 들었으며 성적(32.3%)을 그 다음으로 선택하여 입시와 관련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학입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였으며, 남학생은 현재의 성적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였다. 한편 여학생의 18.5%는 장래의 직업진로를 현재 주요 관심사항으로 인식하였는데 한국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의 인생 설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 교원들도 한국 학생들과 비슷하게 성적(47.0%), 대학입시(39.8%)를 한국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선택하였다.

〈표 V-16〉 한국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구 분	학생			교원	합계
	남자	여자	소계		
성 적	140 (37.4)	103 (27.3)	243 (32.3)	78 (47.0)	321 (35.0)
부모와의 관계	5 (1.3)	5 (1.3)	10 (1.3)	0 (0.0)	10 (1.1)
취 미 생 활	8 (2.1)	3 (0.8)	11 (1.5)	1 (0.6)	12 (1.3)
친 구 관 계	9 (2.4)	10 (2.7)	19 (2.5)	1 (0.6)	20 (2.2)
이 성 문 제	8 (2.1)	4 (1.1)	12 (1.6)	1 (0.6)	13 (1.4)
대 학 입 시	166 (44.4)	181 (47.9)	347 (46.1)	66 (39.8)	413 (45.0)
직 업 진 로	30 (8.0)	70 (18.5)	100 (13.3)	17 (10.2)	117 (12.8)
학 비 문 제	2 (0.5)	1 (0.3)	3 (0.4)	1 (0.6)	4 (0.4)
기 타	6 (1.6)	1 (0.3)	7 (0.9)	1 (0.6)	8 (0.9)
합 계	374 (100.0)	378 (100.0)	752 (100.0)	166 (100.0)	918 (100.0)
χ^2	29.83***				
				17.14**	

주: * < 0.1, ** < 0.05, *** < 0.01

(2) 중국

중국 학생은 현재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성적(30.5%), 대학입시(19.8%)를 들어 한국 학생의 결과와 유사하게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중은 작게 나와 한국 학생에 비해 입시경쟁에 보다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진로로 답한 학생의 비중은 15.6%로 나타나 미래설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3.0%의 중국 학생들은 취미생활을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두고 있어 한국, 일본 학생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교원들은 현재 자국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성적(38.7%), 직업진로(28.9%), 대학입시(19.7%)로 생각하여 학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17〉 중국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구 분	학생			교원	합계
	남자	여자	소계		
성 적	68 (24.9)	129 (34.6)	197 (30.5)	55 (38.7)	252 (32.0)
부모와의 관계	19 (7.0)	19 (5.1)	38 (5.9)	2 (1.4)	40 (5.1)
취 미 생 활	26 (9.5)	58 (15.6)	84 (13.0)	9 (6.3)	93 (11.8)
친 구 관 계	26 (9.5)	33 (8.9)	59 (9.1)	4 (2.8)	63 (8.0)
이 성 문 제	7 (2.6)	0 (0.0)	7 (1.1)	0 (0.0)	7 (0.9)
대 학 입 시	56 (20.5)	72 (19.3)	128 (19.8)	28 (19.7)	156 (19.8)
직 업 진 로	55 (20.2)	46 (12.3)	101 (15.6)	41 (28.9)	142 (18.0)
학 비 문 제	4 (1.5)	2 (0.5)	6 (0.9)	0 (0.0)	6 (0.8)
기 타	12 (4.4)	14 (3.8)	26 (4.0)	3 (2.1)	29 (3.7)
합 계	273 (100.0)	373 (100.0)	646 (100.0)	142 (100.0)	788 (100.0)
χ^2	27.72***				
	32.59***				

주: * < 0.1, ** < 0.05, *** < 0.01

(3) 일본

현재 일본의 학생들은 성적(30.8%), 직업진로(23.9%), 대학입시(19.5%)를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어 한국과 중국 학생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직업진로 항목이 높고 대학입시 항목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학생과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당장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업문제를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직업진로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일본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구 분	학생		
	남자	여자	소계
성 적	41 (36.9)	66 (27.9)	107 (30.8)
부모와의 관계	2 (1.8)	5 (2.1)	7 (2.0)
취 미 생 활	0 (0.0)	4 (1.7)	4 (1.2)
친 구 관 계	8 (7.2)	27 (11.4)	35 (10.1)
이 성 문 제	8 (7.2)	4 (1.7)	12 (3.5)
대 학 입 시	22 (19.8)	46 (19.4)	68 (19.5)
직 업 진 로	21 (18.9)	62 (26.2)	83 (23.9)
학 비 문 제	1 (0.9)	1 (0.4)	2 (0.6)
기 타	8 (7.2)	22 (9.3)	30 (8.6)
합 계	111 (100.0)	237 (100.0)	348 (100.0)
χ^2	14.28 [*]		

주: 1)대부분의 일본 교원들은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분석해서 제외함

2)*<0.1, **<0.05, ***<0.01

다. 교원들의 관심사항

한국의 교원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과목(40.6%)과 진학지도 문제(38.2%)로 나타났다. 남자교원들은 절반에 가까운 48.7%가 진학지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49.7%의 여자교원은 가르치는 교과목이 현재의 중요관심사항이라고 선택하였다.

중국의 교원들도 학생의 진학지도 문제와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한 관심은 한국 교원과 동일하지만 현재 교원처우문제(33.6%)를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어 중국 공립학교의 교원처우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표 V-19〉 한·중·일 교원들의 주요 관심사항

구 분		진학지도 문제	학부모 교육열	학생 부적응행동 지도	사교육 문제	교원처우 문제	가르치는 교과목	합계	χ^2
한국	남자	38 (48.7)	0 (0.0)	5 (6.4)	1 (1.3)	10 (12.8)	24 (30.8)	78 (100.0)	12.03**
	여자	25 (28.7)	0 (0.0)	12 (13.8)	0 (0.0)	7 (8.1)	43 (49.4)	87 (100.0)	
	소계	63 (38.2)	0 (0.0)	17 (10.3)	1 (0.6)	17 (10.3)	67 (40.6)	165 (100.0)	
중국	남자	14 (26.9)	2 (3.9)	3 (5.8)	1 (1.9)	22 (42.3)	4 (7.7)	52 (100.0)	11.51*
	여자	25 (25.8)	1 (1.0)	10 (10.3)	5 (5.2)	28 (28.9)	23 (23.7)	97 (100.0)	
	소계	39 (26.2)	3 (2.0)	13 (8.7)	6 (4.0)	50 (33.6)	27 (18.1)	149 (100.0)	
일본	남자	10 (25.0)	1 (2.5)	6 (15.0)	1 (2.5)	1 (2.5)	15 (37.5)	40 (100.0)	5.91
	여자	2 (10.5)	0 (0.0)	4 (21.1)	0 (0.0)	0 (0.0)	12 (63.2)	19 (100.0)	
	소계	12 (20.3)	1 (1.7)	10 (17.0)	1 (1.7)	1 (1.7)	27 (45.8)	59 (100.0)	

주: * <0.1, ** <0.05, *** <0.01

일본의 교원들 역시 현재 가르치는 교과목(45.8%)과 학생들의 진학지도 문제(20.3%)를 현재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가르치는 교과목을 진학지도 문제보다 2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학지도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교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문제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학생들이 한·중·일 3국 학생 중 대학입시 문제를 덜 중시하는 경향과 같은 맥락에 있다 할 수 있다.

3. 소결

한·중·일 3국의 학생과 교원에 대해 상호교류 및 교육분야 협력요구, 관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3국의 교육부문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우선 협력분야에서 교육부문의 협력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3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상호언어교육, 상호학교방문, 교사학생교환 등 직접적 체험과 인적교류에 기반을 둔 교육분야 협력을 피력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3국 학생 중 한국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대학입시와 성적과 같은 공부와 관련된 요소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직업진로문제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추진 중에 있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의 하위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 경향, 지식과 태도, 정서 경향을 조사함으로써 상호 교류협력의 실상을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호 이해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및 제반분야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중국 및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1) 중국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중국의 학생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에 관한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 의식 및 이미지 형성 관련 내용,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반적 내용 부분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부분 교과서들은 한국 고대사 부분을 빼고 신라부터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당 시기에 국가가 성립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갑오중일전쟁 부분에서는 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다투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청의 대조선 간섭정책을 숨기고 있다. 또한 신라의 통일과 조선왕조의 건립 부분에서는 조선민족의 활동무대를 중국 동북지방을 제외하고 한반도로 국한하고 있으며, 고구려를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한 나라로 오기하면서 노예제 국가로 서술하고 있다. 현대사 부분에서는 남북분단의 배경이 누락되어 있으며 한국전쟁을 중국 대 미국의 시각에서

서술하면서 유엔군의 참전을 조선에 대한 무장침략으로 기술하는 등 북한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의식 및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문화부분 기술을 살펴 보면 주요 유물과 제작시기에 대한 언급을 누락하면서 한국을 문화후진국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는 주로 북한자료의 인용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관련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서술은 없고 신라와 당과의 다양한 관계 중 문화교류사만 언급하고 있다. 갑오중일전쟁 부분에서는 한중 관계사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는데 한국근대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가 중국학계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시기의 중국이 외교정책 부분에서는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적극 전개를 소개하면서 한국을 맨 마지막에 들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한국과 관련된 중국이 역사 교과서의 기술특징은 첫째, 중화주의의 시각에서 한국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술도 많다. 셋째, 오기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오도된 자료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 넷째, 최근 한국 학술훈계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한국정부와의 수교상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

(2)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이해

일본의 학생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사회와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에 관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

다. 첫째,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에 의해 벼농사와 선진문화 등이 전해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이 입은 피해를 기술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셋째, 조선의 개항에서부터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개괄하고 있지만, 조선의 피해상황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인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었음을 기술한 것과 조선인들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섯째, 1930년대 전시 총동원체제기에 징용, 징병, 정신대 등의 인력동원과 창씨개명 등을 기술하였고,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여섯째, 분단과 한국전쟁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1965년 한·일 국교수교에 대해 최근 추가되었고, 서술 내용도 객관적이다.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는 만주지역에서 일어나 한반도 북부까지 그 세력 범위를 확대했으나, 한반도 북부만을 그 세력 범위로 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임나일본부설’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기술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이 입은 피해상황에 대한 서술이 누락되었다. 또한 일본군의 조선 ‘침략’이 명시되지 않고 단지 ‘군대를 보냈다’, ‘출병’ 등의 표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셋째, 청일전쟁의 발발원인에 관한 기술을 찾아볼 수 없다. 넷째, 러일전쟁 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일제 식민지기의 식민정책 등을 개관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 동원, 물자동원,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금지 등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다섯째,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무단통치’는 ‘문화정치’로 전환했지만, 위의 기술처럼 ‘조선의 근대화를 요구하고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기술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섯째,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분단에 대한 일본의 책임문제는 누락되어 있다. 일곱째,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한 기술은 찾아

볼 수 없다.

일본고등학교 교과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임나일본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전히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를 통해서 선진문화가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최근 질과 양면에서 축소되었다. 셋째, 임진왜란의 발발원인, 경과, 결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넷째, 임진왜란이후 조일 국교재개와 조선통신사에 관한 서술 중, 조선통신사를 새로운 장군취임 경하를 위해 조선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실상은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보인다. 또한 조선통신사 파견의 배경, 일본문화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다섯째, 청일전쟁의 원인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여섯째, 러일전쟁에서 한일합병을 거쳐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하지만, 1907년 헤이그 특사파견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한국전쟁의 발발원인, 경과, 결과 등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현재 일본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중 왜곡된 곳이 적지 않으며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후소샤와 같은 우익성향의 교과서의 경우는 강도를 한층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섯 가지로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 침략의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왜곡된 교과서 기술에 대해 항의해야 하며 세계평화와 아시아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양국 후세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일본 바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정보센터』와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차원에서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체험 및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일본교사 초청연수를 통해서 유적지답사, 현장체험, 한국교사와의 대화의 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어해자료를 배포대상자나 기관성의 격에 맞추어 제작하고 시기적절하게 배포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 한·중·일 3국의 상호 국가인식 실태

(1) 국가 이미지 및 국민의식 수준

한·중·일 3국의 상호 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Osgood의 의미 변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국가 이미지를 평가 요인(evaluation factor), 능력 요인(potency factor), 활동성 요인(activity factor)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국민들은 중국보다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더 높이 평가하지만 두 국가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보통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과 활동과 관련된 요인에서 일본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좋은-나쁜’, ‘정직한-부정직한’ 등 심성적 항목이 내재되어 있는 평가 요인에서는 중국과 일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중국 국민들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모든 요인에서 일본보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정직성과 심성적 항목이

있는 평가 요인에서 국가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셋째, 일본 국민들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평가 요인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능력 요인과 활동성 요인과 같이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고 국민적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항목에서는 동북아 3국 모두 상호간 보통이상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를 취하고 있지만, 평가 요인에서는 상호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동북아 3국간 얽혀져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국심, 질서, 인권, 환경, 금전중시성향, 자국이익중시, 타국문화존중, 과거중시성향, 국가장래성, 약속준수, 제조기술 등 총 11가지 일반적 태도에 관한 동북아 3국의 국민의식수준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국가 이미지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요약하면 동북아 3국 국민들은 질서, 인권, 환경, 타국문화존중, 약속준수 등 선진문화지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자국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보통이상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에 금전적 중요성, 자국이익중시, 과거중시 등 부정적 항목에 대해서는 자국민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국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배타적 성향이 동북아 3국 국민에게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2) 한·중·일 3국의 분야별 정보인지 수준

한국의 학생들은 일본의 모든 분야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왔으며 중국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교원 또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연예인 인지도 제외)에서 높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경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의 학

생, 교원 모두 중국보다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학생들과 교원들은 대체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분야, 사회분야, 문화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학생들은 상대국의 정치분야(정치체제)와 사회분야의 일부 항목(대학이름), 문화분야의 일부 항목(문자식별능력, 역사적 관계)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왔으며, 중국 교원들은 문화분야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 한국, 일본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학생들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문화분야와 사회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왔을 뿐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교원들은 문화분야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중국 공히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중·일 학생들의 각 분야의 인지수준은 국가별, 분야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중·일 교원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국가의 각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인지하고 있는 동북아 3국 국민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동북아 3국 학생들은 상대국의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교원들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교원들은 유학생과 친구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 한·중·일 3국의 국가 호감도

(1) 한·중·일 3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

한 국가의 호감도를 결정하는 배경변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이미지와 국민들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 이미지와 국민의식에 대한 평가는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 호감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국 학생과 교원들은 중국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국가에 대한 국가 호감도

국가에 대한 호감도,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사귀고 싶은 친구의 국적, 유학가고 싶은 국가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과 OECD에 가입한 13개 국가와의 선호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과 교원들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구미 선진국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 3개국은 중위권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다만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영어를 제외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각 국가별로 높은 순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주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 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 인식, 생활만족도

(1) 한·중·일 3국의 상호교류 인식

방문, 펜팔, 여행, 초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국제교류경험에 대해 한국 학생의 10여%만이 교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의 경우 40% 정도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교류경험은 한국 학생보다 높게 나왔는데 한국 학생과의 교류경험이 다른 국민과의 경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 교원과 일본 교원의 국제교류경험 비중은 20~4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일본 교원 모두 한국인과의 교류경험이 다른 국민과의 교류경험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동북아 3국의 국가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우선 협력분야로 한국과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은 문화 분야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며, 정치분야의 협력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이 한국,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중시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이 자국보다 하위에 있는 국가와 협력을 가져도 이득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학생과 교원들 중 상당수가 한국과의 문화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해외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여파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상호언어교육, 상호학교방문, 교사학생교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직접적 체험방식과 인적교류가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학생들과 교원들은 상기한 세 항목 이외에도 스포츠 및 문화행사 교류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협력의 한 방안으로 동북아 3국으로의 대학유학의 호감

도에 대한 설문에서 한국 학생과 교원들은 중국, 일본으로의 유학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보았으며 일본유학에 대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학생과 교원들은 한국대학으로의 유학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국가 이미지에 대한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교원들은 한국과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일본 학생들은 중국대학으로의 유학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2) 학생, 교원의 생활만족도 및 관심사항

현재 동북아 3국의 학생과 교원들은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북아 3국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중국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북아 3국의 학생들의 현재 주요 관심사항은 공통적으로 대학입시와 성적과 같은 공부와 관련된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일본 학생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북아 3국 교원들의 현재 주요 관심사항은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 교원들과 일본 교원들은 비슷한 비중으로 가르치는 교과목과 진학지도 문제를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보인 반면, 중국의 교원들은 교원처우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으며 진학지도 문제가 다음 관심사항으로 나타났다.

2. 제언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과 경제협력이 진전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교육 교류협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1994년 3월 한중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부차원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장학생 초청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차원의 유학생 교류는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실태를 보면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한 관심은 폭증하고 교육 분야의 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류협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교육교류를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중심의 민간형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교류부문에서 유학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유학생 증가 추세로 볼 때 한국 측의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교류협력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교육교류협력은 중국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한 교류의 경우도 상당 수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영속성이 미흡하고 합리적인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교육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고 낭비도 많다.

중국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전문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교류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기관의 지원도 없어 개별학교가 자체경비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유학생의 개인차가 심한데 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인

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제교육교류협력정책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일본은 ①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 ②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 육성, ③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④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 ⑤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한국에 앞서 가고 있다.

일본과의 교육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향 교류보다는 일방적인 교류의 감을 씻을 수 없다. 한일 국교정상화 40여년 만에 교육교류협력은 초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주관 교류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꾸준한 교육교류에도 불구하고 유학에 있어서는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기준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 학생수는 한국에 유학하는 일본 학생수의 약 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일본인 유학생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교류협력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자매학교를 찾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교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관이 없다. 대부분 개별적인 지인이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학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협정체결 후에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일간의 특수사정과 단계별·유형별 교류를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교류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어 학교 및 학생개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교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는 매

우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모든 경비가 대부분 학생에게 전과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국제교육교류의 참의미를 실현하기는 힘들고, 지속적인 교류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다시 한 번 약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협력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상호 간의 현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교육 분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의, 연구, 조사,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교류, 상호 방문, 자매결연,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중간의 고구려사 문제나 한일간의 고대사, 독도 문제에 대하여 학술적인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적인 지역 연합을 통하여 공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육협력교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간 공동체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 조약을 통하여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이웃나라를 방문하면서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학생과 교원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문화공동체

를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년 ‘한일 우정의 해 2005’을 맞이하여 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확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정부주관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일본주도의 초청 사업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의 균형 잡힌 교육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한층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는 한일 청소년간이 우호증진과 문화이해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넷째, 교육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은 과거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상호 갈등 관계 또는 대립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민간형 전문교육교류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체는 현장의 교육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교류 통계 및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사업을 벌여 정부와 민간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교육교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기관별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교단계별 교육교류현황과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교육교류 및 협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교육교류현황을 파악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각 기관 및 학교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알차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정부주도하에 국제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비장학생들의 교육교류 및 문화교류의 경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교류내용을 충실화함으로써 교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체계적으로 이들 업무를 전담하고 일선 학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그들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단계별·유형별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앞으로의 교육교류 및 협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여섯째,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교육교류에 필요한 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가칭 ‘동북아교육협력교류기금’을 확보하여 한·중·일교육교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분야의 교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국제교육교류의 참의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경일 외.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조사·분석 및 시정자료 개발』. 한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역사교과서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서울: 혜안, 2001.
- 이기동. 『일본고교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국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 서울: (재)한일문화교류기금, 1989.
- 이찬희.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2001.
- 이찬희 외. 『중국·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검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서울: 역사비평사, 2002.
-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편. 『후소샤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 내부검토자료』. 서울: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2001.
- 정택희 외.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적 역동성의 실상과 국가 이미지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_____. 『주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한국교육개발원 편. 『세계화 시대의 한국바로알리기: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과 그 대응: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2.
- _____.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일 역사교과서 비교분석연구』.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2.
- _____. 『역사·지리교육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상호 이해 증진 방안』.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1.
- _____. 『일본·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한국언론학회 엮음.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전략』. 한국언론학회, 2002.
- Osgood, Charles E., George J. Suci & Tannenbaum Percy H. *The Measurement of Meaning*, Illinois: Univ of Illinois Press, 1957.
- 國家教育委員會. 教育體制改革文獻選編.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1985.
- 今日中國教育改革 探索課題組. 今日中國教育改革 探索. 北京: 北京教育出版社, 1993.
- 新課程實施過程中培訓問題研究課題組. 新課程的理念與創新.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 人民教育出版社. 中國教育年鑑 2000年, 2001年版.
-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全日制普通高中(試驗修訂本·選修)世界近代現代史 上卷 教師教學用書.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2.
-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編. 中國教育年鑑 (1949~1981).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 _____. 全日制普通高中歷史教授要綱(試驗修訂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0.
- _____. 全日制普通高中歷史教學大綱.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3.
- _____.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3.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制訂.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2. 논문

- 김보림. 『1990년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용상. “국가 이미지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 연구』. 제5권 2호. 한국관광정책학회, 1999.
- 송춘영. “한중일 3국의 초등사회과 역사교과서의 분석: 6학년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제9집.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6.
- 염성원. “한국의 국가 이미지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4권 3호. 한국광고학회, 2003.
- 오선영. 『외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오창우.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윤성원. 『주한 외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종건. “교사, 학생, 여선생에 대한 이미지 분석.” 『한국교사교육』. 제19권 1호. 한국교사교육학회, 2002.
- 이학주. “의미변별법으로 측정한 교사의 자아상.” 『한국교사교육』. 제17권 1호. 한국교사교육학회, 2000.
- 이효진. 『한국 국가 이미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 외신기자와의 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원칠. 『정부이미지의 측정 및 비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최미숙.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쟁력강화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영표. “중국 교육개혁의 배경과 논리 전개.” 『비교교육연구』. 제5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1995.
- _____.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도입과 교육개혁.” 한국비교교육학회 발표자료집. 1997.
- _____.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서의 변화에 따른 중국교육개혁의 추세 연구.” 『한국교육』. 제24권 2호. 1997.
- _____.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서의 변혁에 따른 중국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29권 2호. 2002.
- _____. “중국에서의 교육의 본질문제 논쟁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9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1999.
- _____. “중국의 교육개혁과 한국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주변국가의 한국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보고 KU-CR 03-04, 2003.
- 탁재택.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일정책 해외홍보전략 고찰.” 『홍보학연구』. 제6권 1호. 한국홍보학회, 2002.
- 何東昌. “社會主義市場經濟與教育的關係.” 教育研究, 第4記. 1993.
- _____. “教育改革與發展綱要.” 國家教育委員會情報, 第2號. 1993.



부 록

부록 1. 한·중·일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일본 학생·교원 예비설문 분석결과

부 록 1. 한·중·일 실태조사 설문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상호 이해에 관한 의견 조사지(한국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문제를 연구하는 국가적인 교육연구 기관입니다.

우리는 2005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상호 이해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학생과 교원이 각각 상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하여 상호 친선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결코 개인과 학교에 곤란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시어 조사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직무대행 김창환

◆ 조사지는 작성하신 후 동봉한 회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다음 주소로 우송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송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한중일 상호이해 연구 담당 : 한만길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3460-0271(한만길)

E-mail : mghan@kedi.re.kr

I.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_____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적: ___1) 한국 ___2) 중국 ___3) 일본
2. 성별: ___1) 남자 ___2) 여자
3. 지위: ___1) 학생 ___2) 교사
4. 생활수준: ___1) 상 ___2) 중 ___3) 하

II. 다음은 중국, 일본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당신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 일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① 부모, 형제 ② 학교수업 ③ 친구, 선배 ④ 언론매체(TV, 신문, 잡지, 인터넷)
- ⑤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적 접촉
- ⑥ 직접적 접촉(국가 방문 또는 사람과의 접촉)

- 1) 중국 ()
- 2) 일본 ()

2. 당신은 중국, 일본에 대하여 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① 대단히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부정적이다 ⑤ 대단히 부정적이다

- 1) 중국 ()
- 2) 일본 ()

3. 당신은 중국(인)과 교류경험(방문, 여행, 펜팔, 초청 등)이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4. 당신은 일본(인)과 교류경험(방문, 여행, 펜팔, 초청 등)이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5. 당신은 중국, 일본 사람 중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예시에서 3 개만 골라 () 안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예시>
 ① 연예인 ② 대통령과 정치인 ③ 학자 또는 과학자 ④ 운동선수
 ⑤ 사업가, 기업인 ⑥ 유학생 또는 친구
 ⑦ 예술가(미술, 음악, 연극 등) ⑧ 잘 아는 사람이 없다.

- 1) 중국 () () ()
 2) 일본 () () ()

Ⅲ. 다음은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6. 중국, 일본에 대한 느낌을 () 안에 번호로 써 주십시오.

만약 왼쪽 형용사에 가깝게 느끼시면 1을 써 주시고,
 오른쪽 형용사에 가깝게 느끼시면 7을 써 주십시오.
 당신의 느낌이 중간이라면 4를 써 주십시오.

								중국	일본	
좋은	1	2	3	4	5	6	7	나쁜	()	()
밝은	1	2	3	4	5	6	7	어두운	()	()
깨끗한	1	2	3	4	5	6	7	더러운	()	()
정직한	1	2	3	4	5	6	7	부정직한	()	()
똑똑한	1	2	3	4	5	6	7	어리석은	()	()
큰	1	2	3	4	5	6	7	작은	()	()
강한	1	2	3	4	5	6	7	약한	()	()
유능한	1	2	3	4	5	6	7	무능한	()	()
적극적인	1	2	3	4	5	6	7	소극적인	()	()
빠른	1	2	3	4	5	6	7	느린	()	()
시끄러운	1	2	3	4	5	6	7	조용한	()	()
개방적	1	2	3	4	5	6	7	폐쇄적	()	()
무익한	1	2	3	4	5	6	7	유익한	()	()

7. 중국, 일본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각각 알고 있으면 O를, 모르면 X를 적어주십시오.

- | | 중국의 | 일본의 |
|--------------------------------|-----|-----|
| 1) 정치인(지도자)의 이름을 한 명 이상 알고 있다. | () | () |
| 2) 정치체제를 알고 있다. | () | () |
| 3) 말이나 글자를 식별할 수 있다. | () | () |
| 4) 도시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 () | () |
| 5) 기업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 () | () |
| 6) 주력 수출 상품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 () | () |
| 7) 음식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 () | () |
| 8) 전통의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 () | () |
| 9) 대학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 () | () |
| 10)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알고 있다. | () | () |
| 11) 유명 연예인을 1명 이상 알고 있다. | () | () |

8. 다음 <예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이 각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3개씩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예시>
 ① 재산 ② 명예 ③ 높은 학식 ④ 권력 ⑤ 미모 ⑥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⑦ 의리 ⑧ 건강 ⑨ 자유 ⑩ 쾌락 ⑪ 환경 ⑫ 신용

- 1) 한국 사람은 (), (),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 2) 중국 사람은 (), (),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 3) 일본 사람은 (), (),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9.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안에 적어 주십시오.

<답지>
 전적으로 동의한다. --- 1
 거의 동의한다. --- 2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 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
 모르겠다. -----9

	한국(인)은	중국(인)은	일본(인)은
1) 국가를 중요시한다.	()	()	()
2) 질서를 잘 지킨다.	()	()	()
3) 인권을 잘 보장한다.	()	()	()
4) 환경을 잘 보호한다.	()	()	()
5)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	()	()	()
6)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	()	()
7)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	()	()
8)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	()	()
9)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	()	()
10) 약속을 잘 지킨다.	()	()	()
11) 상품을 잘 만든다.	()	()	()

10. 당신은 중국이나 일본 대학으로 유학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대단히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부정적이다 ⑤ 대단히 부정적이다

- 1) 중국 ()
 2) 일본 ()

IV. 다음은 국가간의 친근감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한 주요 국가 및 OECD국가 중 해당 국가번호를 _____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시국가>
 1) 호주 2) 캐나다 3) 핀란드 4) 프랑스 5) 독일
 6) 이탈리아 7) 일본 8) 한국 9) 네덜란드 10) 폴란드
 11) 스페인 12) 영국 13) 미국 14) 중국 15) 러시아

11. 당신이 호감을 갖는 국가 3개를 순서대로 위의 국가번호에서 선택하십시오.
 1)_____ 2)_____ 3)_____
12.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3개를 순서대로 위의 국가번호에서 선택하십시오.
 1)_____ 2)_____ 3)_____
13. 친구를 사귀고 싶은 국가 3개를 순서대로 위의 국가번호에서 선택하십시오.
 1)_____ 2)_____ 3)_____
14. 유학가고 싶은 국가 3개를 순서대로 위의 국가번호에서 선택하십시오.
 1)_____ 2)_____ 3)_____

V. 다음 15~19번 질문은 귀하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_____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귀국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___1)성적 ___2)부모와의 관계 ___3)취미생활 ___4)친구관계 ___5)이성문제
 ___6)대학입시 ___7)직업진로 ___8)학비 문제 ___9)기타_____
16. 귀국의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V 표시를 해 주십시오.(교사만 응답)
 ___1) 진학지도 문제 ___2) 학부모의 교육열 ___3) 학생 부적응행동 지도
 ___4) 사교육 문제 ___5) 교원 처우 문제 ___6) 가르치는 교과목
 ___7) 기타_____

17. 중국, 일본과 교육 분야에서 우선 협력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를 골라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유학생 확대	② 수학여행	③ 스포츠 및 문화행사
④ 상호 언어 교육	⑤ 상호 학교 방문	⑥ 교사학생교환

- 1) 중국 () ()
2) 일본 () ()

18. 귀하는 중국, 일본과의 협력관계 중 다음의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정치적 협력	② 경제적 협력	③ 문화적 협력
④ 교육적 협력	⑤ 군사적 협력	

- 1) 중국 ()
2) 일본 ()

19. 귀하는 자신의 개인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각 분야의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 개인생활 ()
2) 가정생활 ()
3) 학교생활 ()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关于韩国,中国及日本相互理解情况的问卷 调查 (中國用)

您好!

韓國教育開發院是國家級教育研究機構。本次調查目的是了解韓、中、日各國家的師生對對方國家的認知與態度，以求促進相互間友誼和協作關係。調查結果只使用於研究目的。鑒於此項研究的重要性，敬請各位認真填寫每項內容。

十分感謝您的合作。

2005年 9月1日

韓國教育開發院長

職務代行 金昌煥

請您在百忙之中抽出一点寶貴的時間填寫這份問卷，并請將填好的問卷用我們給您的回函信封寄回。

聯系地址：漢城市瑞草區牛眠洞92-6 韓國教育開發院 教育政策研究本部

課題負責人：韓萬吉

聯絡方式：TEL(02) 3460-0271(韓萬吉)

E-mail：mghan@kedi.re.kr

I.基本情况部分。請在答案前____里填寫“V”記号。

1. 国籍: __1) 韩国 __2) 中国 __3) 日本
2. 性别: __1) 男 __2) 女
3. 职务: __1) 学生 __2) 教师
4. 生活水平: __1) 上 __2) 中 __3) 下

II. 韓國和日本的的基本情况部分。請在 () 里填寫V記号。

1. 您主要通过什么渠道获取韩国和日本的信息? 只选一项, 并在 () 填写“V”记号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父母, 兄
弟 | 学校教育 | 朋友 | 大众媒体
(TV, 报纸,
杂志, 网络) | 演出,
电影等
文化活动 | 访问或面对
面的交流 |
| 1) 韩国 () () () () () () | | | | | |
| 2) 日本 () () () () () () | | | | | |

2. 您对韩国和日本的整体印象如何?

- | | | | | |
|---------------------------|-----|------|------|--------|
| ① 非常好 | ② 好 | ③ 一般 | ④ 不好 | ⑤ 非常不好 |
| 1) 韩国 () () () () () | | | | |
| 2) 日本 () () () () () | | | | |

3. 您曾经和韩国人有过(访问、旅行、网友、邀请)交流往来吗?

- __1) 有 __2) 没有

4. 您曾经和日本人有过(访问、旅行、网友、邀请)的交流往来吗?

- __1) 有 __2) 没有

5. 您认识从事哪一种职业的韩国人和日本人？

限选3项，并对应的数字填写在（ ）里。

<例>

- ①演员 ② 总统或政治家 ③ 学者或科学家 ④ 运动员 ⑤ 企业家
⑥ 留学生或朋友 ⑦艺术家(美术, 音乐, 戏剧) ⑧ 没有

- 1) 韩国 () () ()
2) 日本 () () ()

III. 對韓國、中國和日本的印象及態度部分。

6. 您印象中的韩国和日本形象是什么？选择对应的数字，并填写在（ ）里。

您的印象越靠近左边的形容词，就填写1，
您的印象越靠近右边的形容词，就填写7，
您的印象居于中间，就填写4。

									韩国	日本
好	1	2	3	4	5	6	7	坏	()	()
乐观	1	2	3	4	5	6	7	悲观	()	()
干净	1	2	3	4	5	6	7	污秽	()	()
正直	1	2	3	4	5	6	7	圆滑	()	()
聪明	1	2	3	4	5	6	7	愚蠢	()	()
大	1	2	3	4	5	6	7	小	()	()
强	1	2	3	4	5	6	7	弱	()	()
能干	1	2	3	4	5	6	7	无能	()	()
积极	1	2	3	4	5	6	7	消极	()	()
快	1	2	3	4	5	6	7	慢	()	()
喧闹	1	2	3	4	5	6	7	安静	()	()
开放	1	2	3	4	5	6	7	封闭	()	()
无益	1	2	3	4	5	6	7	有益	()	()

7.如果您了解下面列举的有关韩国和日本的情况就填写“V”，不了解就填写“X”。

	韩国	日本
1) 能叫出1人以上政治家的名字	()	()
2) 了解政治体制	()	()
3) 能辨识文字和语言	()	()
4) 能说出1座以上城市名称	()	()
5) 能说出1所以上企业名称	()	()
6) 了解1种以上主要出口商品	()	()
7) 知道1种以上饮食	()	()
8) 辨认传统民族服饰的款式	()	()
9) 知道1所以上大学名称	()	()
10)了解与日本的历史关系	()	()
11) 认识1名以上著名演员	()	()

8. 您认为韩国人、中国人、日本人最重视什么？

限选3项并按重视程度排序，对应的数字填入 ()

1.财产 2.名誉 3.渊博的学识 4.权力 5.美貌 6.他人的尊敬 7.义气
8.健康 9.自由 10.快乐 11.环境 12.诚信

- 1) 韩国人最重视(), (), ()
- 2) 中国人最重视(), (), ()
- 3) 日本人最重视(), (), ()

9. 在下列韩国人、中国人及日本人的态度中, 请选择与您的看法最接近的一项, 并在 () 里填写对应的数字。

1完全同意	2基本同意	3不太同意	4不同意	5不知道
-------	-------	-------	------	------

	韩国人	中国人	日本人
1) 对国家看得更重	()	()	()
2) 遵纪守法	()	()	()
3) 很重视保障人权	()	()	()
4) 很重视保护环境	()	()	()
5) 金钱看得比什么都重要	()	()	()
6) 只追求本国的利益	()	()	()
7) 尊重其它国家的文化	()	()	()
8) 比起未来更重视过去	()	()	()
9) 发展的更好	()	()	()
10) 诚信度高	()	()	()
11) 商品质量好	()	()	()

10. 您对去韩国和日本留学的态度?

	① 赞同	②基本赞同	③一般	④不太赞同	⑤不赞同
1) 韩国	()	()	()	()	()
2) 日本	()	()	()	()	()

IV. 有關國家間的親疏感部分。請在下面列舉的主要國家及OECD國家中，相對應的代表國家的數字填寫在____里。

- 1) 澳大利亞 2) 加拿大 3) 芬蘭 4) 法國 5) 德國 6) 意大利
7) 日本 8) 韓國 9) 荷蘭 10) 波蘭 11) 西班牙 12) 英國
13) 美國 14) 中國 15) 俄羅斯

11. 請您選擇最喜欢的3個國家，並按順序填寫對應的數字。

1) _____ 2) _____ 3) _____

12. 請您選擇想學習的3種語言，並按順序填寫對應的數字。

1) _____ 2) _____ 3) _____

13. 請您選擇想交朋友的3個國家，並按順序填寫相應的數字。

1) _____ 2) _____ 3) _____

14. 請您選擇想去留學的3個國家，並按順序填寫相應的數字。

1) _____ 2) _____ 3) _____

V. 下列15至19項是您所關心的領域。請在相應的____上填寫“V”記號。

15. 貴國學生最關心的問題是什麼？只選一項，並在____填寫“V”記號。

- ___1) 學業成績 ___2) 與父母的关系 ___3) 興趣 ___4) 朋友关系
___5) 异性关系 ___6) 考大學 ___7) 就業 ___8) 學費 ___9) 其它 _____

16. 貴國教師最關心的問題是什麼？只選一項，並填寫“V”記號

- ___1) 升學考試指導 ___2) 父母的教育熱情 ___3) 指導學生不良行為
___4) 課外教育問題 ___5) 教師待遇問題 ___6) 所教課程問題
___7) 其它 _____

17. 您认为在教育领域中，中、韩、日首选的合作项目课题是什么？限选2项，并填写“V”记号。

- | | ① 扩大留
学生规模 | ② 夏令
营活动 | ③ 体育
化交流 | ④ 语言
教育 | ⑤ 学校间
互访 | ⑥ 交换
师生 |
|-------|---------------|-------------|-------------|------------|-------------|------------|
| 1) 韩国 | () | () | () | () | () | () |
| 2) 日本 | () | () | () | () | () | () |

18. 您认为中、韩、日合作与交流中，哪一项最重要？

- | | ① 政治合作 | ② 经济合作 | ③ 文化合作 | ④ 教育合作 | ⑤ 军事合作 |
|-------|--------|--------|--------|--------|--------|
| 1) 韩国 | () | () | () | () | () |
| 2) 日本 | () | () | () | () | () |

19. 您对自己的个人生活、学校生活及社会生活满足吗？

- | | ① 满足 | ② 基本满足 | ③ 一般 | ④ 不太满足 | ⑤ 不满足 |
|---------|------|--------|------|--------|-------|
| 1) 个人生活 | () | () | () | () | () |
| 2) 学校生活 | () | () | () | () | () |
| 3) 社会生活 | () | () | () | () | () |

♣ 非常感谢您的回答, ♣

日本と中国及び韓国の相互理解に 関する意見調査アンケート(日本用)

こんにちは

韓国教育開発院は、韓国政府の支援のもとで、教育問題を研究している国家的教育研究機関であります。

本機関では、2005年度の研究課題の一つとして、日本、中国、および韓国の相互理解に関する意識調査を実施しております。この調査は、日本、中国、韓国の学生と教員がそれぞれの国に対して持っている意識や態度などを把握し、相互親善と協力関係を発展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ます。

このアンケート結果は研究の目的にのみ使用し、個人や学校にご迷惑をおかけ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ので、率直に答えていただくようご協力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2005年 9月 1日

韓国教育開発委員長

職務代行 金昌煥

◆ 記入したアンケート用紙は、同封した返信用封筒に入れて、以下の住所に郵送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 **返送先** :SEOUL特別市 瑞草区 牛所洞 92-6 韓国教育開発院
教育政策研究本部
韓・中・日 相互理解研究担当 : 韓万桔 (ハンマンギル)

◆ なお、本アンケートに関して不明な点がありましたら、下記の連絡先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TEL (02) 3460-0271(韓万桔)

E-mail : mghan@kedi.re.kr

I. つぎは、あなたに関する質問です。該当するところに○印を付けてください。

1. 国籍：___ 1) 韓国___ 2) 中国___ 3) 日本
2. 性別：___ 1) 男___ 2) 女
3. 地位：___ 1) 学生___ 2) 教師
4. 生活レベル：___ 1) 上___ 2) 中___ 3) 下

II. つぎは、韓国、中国の一般的な情報に関する質問です。

1. 主に、どのような方法で韓国と中国についての情報を得ていますか？

1つだけ選んで、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①父母・兄弟
- ②学校の授業
- ③友達・先輩
- ④言論媒体(テレビ、新聞、雑誌、インターネット)
- ⑤公演・映画などの文化的接触
- ⑥直接的な接触(訪問したり、接触したりして)

- 1) 韓国 ()
- 2) 中国 ()

2. 韓国、中国についてどのような認識をもっていますか？

1つだけ選んで、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①とても肯定的に思っている
- ②肯定的である
- ③普通である
- ④否定的である
- ⑤とても否定的に思っている

- 1) 韓国 ()
- 2) 中国 ()

3. 韓国(人)との交流経験(訪問、旅行、ペンパル、招待など)がありますか？

___ 1) ある ___ 2) ない

4. 中国(人)との交流経験(訪問、旅行、ペンパル、招待など)がありますか？

___ 1) ある ___ 2) ない

5. あなたは韓国人・中国人のなか、どんな分野で働いている人を知っていますか？
つぎの中から3つだけ選んで、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①芸能人 ②大統領や政治家 ③学者あるいは、科学者 ④スポーツ選手
⑤事業家、企業家 ⑥留学生や友だち ⑦芸術家（美術、音楽、演劇等）
⑧よく知らない

- 1) 韓国 () () ()
2) 中国 () () ()

Ⅲ. つぎは韓国、中国についての意識と態度に関する質問です。

6. あなたは韓国、中国についてどのように感じていますか。該当する番号を () の中に書いてください。

左の形容詞に近いと感じれば『1』を、
右の形容詞に近いと感じれば『7』
を書いてください。中間であれば、
『4』を書いてください。

									韓国	中国
いい	1	2	3	4	5	6	7	悪い	()	()
明るい	1	2	3	4	5	6	7	暗い	()	()
きれい	1	2	3	4	5	6	7	汚い	()	()
正直だ	1	2	3	4	5	6	7	正直ではない	()	()
聡明だ	1	2	3	4	5	6	7	聡明ではない	()	()
大きい	1	2	3	4	5	6	7	小さい	()	()
強い	1	2	3	4	5	6	7	弱い	()	()
有能だ	1	2	3	4	5	6	7	無能だ	()	()
積極的だ	1	2	3	4	5	6	7	消極的だ	()	()
速い	1	2	3	4	5	6	7	遅い	()	()
うるさい	1	2	3	4	5	6	7	静か	()	()
開放的だ	1	2	3	4	5	6	7	閉鎖的だ	()	()
無益だ	1	2	3	4	5	6	7	有益だ	()	()

7. 次の韓国、中国についての事を知っていれば○印を、そうでなければ×印を付けてください。

	韓国の	中国の
1) 政治家（指導者）の名前を1人以上知っている	()	()
2) 政治体制を知っている	()	()
3) 言葉や文字を区別することができる	()	()
4) 代表的な都市の名前を1つ以上知っている。	()	()
5) 代表的な企業を1つ以上知っている。	()	()
6) 代表的な輸出商品を1つ以上知っている。	()	()
7) 代表的な料理を1つ以上知っている。	()	()
8) 伝統的な服がどのようなものか知っている。	()	()
9) 代表的な大学名を1つ以上知っている。	()	()
10) 日本との歴史的な関係について知っている。	()	()
11) 有名な芸能人を1人以上知っている。	()	()

8. 韓国人、中国人、日本人が一番重要だと考えるものは何だと思いますか？
つぎの中からそれぞれ三つずつ選んで、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①財産 ②名誉 ③豊かな学識 ④権力 ⑤外見 ⑥他人から尊敬されること
⑦義理 ⑧健康 ⑨自由 ⑩快樂 ⑪環境 ⑫信用

- 1) 韓国人は (), (), ()を一番重要に考えていると思う。
2) 中国人は (), (), ()を一番重要に考えていると思う。
3) 日本人は (), (), ()を一番重要に考えていると思う。

9. 韓国人、中国人、日本人についてのあなたの考えと一致する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まったくそうだ	-----	1
だいたいそうだ	-----	2
ほとんどそうではない	-----	3
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	4
わからない	-----	9

韓国(人)は、 中国(人)は、 日本(人)は、

- | | | | |
|------------------|-----|-----|-----|
| 1) 自国を重要視する。 | () | () | () |
| 2) 秩序を正しく守る。 | () | () | () |
| 3) 人権をきちんと保証する。 | () | () | () |
| 4) 環境保護に力を入れている。 | () | () | () |
| 5) お金を一番に考える。 | () | () | () |
| 6) 自国の利益だけを追求する。 | () | () | () |
| 7) 他国の文化を尊重する。 | () | () | () |
| 8) 未来より過去を重要視する。 | () | () | () |
| 9) この先、さらに発展する。 | () | () | () |
| 10) 約束をよく守る。 | () | () | () |
| 11) いい商品を作る。 | () | () | () |

10. 韓国と中国の大学への留学についてどう考えますか? 1つだけ選んで、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①とても肯定的に思っている	②肯定的である	③普通である
④否定的である	⑤とても否定的に思っている	

- 1) 韓国へ ()
2) 中国へ ()

IV. つぎは、あなたが持っている国家間の親近感に関する質問です。下記の重要国家および OECD国家のなかで、該当する国番号を_____に書いてください。

- ①オーストラリア ②カナダ ③フィンランド ④フランス ⑤ドイツ ⑥イタリア
⑦日本 ⑧韓国 ⑨オランダ ⑩ポーランド ⑪スペイン ⑫イギリス
⑬アメリカ ⑭中国 ⑮ロシア

11. あなたが好感を持っている国はどこですか？ 順番に3つ選んでください。

1) _____ 2) _____ 3) _____

12. 言葉を習ってみたいと思う国はどこですか？ 順番に3つ選んでください。

1) _____ 2) _____ 3) _____

13. 友だちを作りたい国はどこですか？ 順番に3つ選んでください。

1) _____ 2) _____ 3) _____

14. 留学してみたい国はどこですか？ 順番に3つ選んでください。

1) _____ 2) _____ 3) _____

V. 次の15~19番の質問は、あなたの関心分野に関する質問です。
該当するところに○印を付けてください。

15. 学生としての一番の悩みは何ですか？ 一つだけ選んで、○印を付けてください。

__1)学校の成績 __2)家庭の生活 __3)趣味 __4)友人関係 __5)異性問題
__6)大学入試 __7)職業と進路 __8)学費の問題 __9) その他

16. 教師として一番重要視することは何ですか？ 一つだけ選んで、○印を付けてください。(教員だけ、答えてください。)

__1)進学指導の問題 __2)父兄の教育熱心さ __3)学校に適應できない学生への指導
__4)私教育の問題 __5)教員待遇の問題 __6)教えている科目
__7)その他_____

17. 教育分野において、優先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は何だと思いますか？ 重要だと考えるものを2つを選んで、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 | | |
|-----------|-----------|-----------------|
| ①留学生の拡大 | ②修学旅行 | ③スポーツおよび文化行事の交流 |
| ④相互的な言語教育 | ⑤相互的な学校訪問 | ⑥教師・学生交換制度の導入 |

- 1) 韓国 () ()
2) 中国 () ()

18. 国際社会において、日本、中国、韓国間の協力関係のなか、どれが一番重要だと思いますか？ () のなかに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 | | |
|---------|---------|---------|
| ①政治的な協力 | ②経済的な協力 | ③文化的な協力 |
| ④教育的な協力 | ⑤軍事的な協力 | |

- 1) 韓国 ()
2) 中国 ()

19. あなたは私生活、学校、社会に対してどれだけ満足していますか。 次の各分野についてあなたの考えと一致する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 | | |
|------------|-------------|--------|
| ①とても満足している | ②だいたい満足している | ③普通である |
| ④満足していない | ⑤全く満足していない | |

- 1) 私生活 ()
2) 家庭での生活 ()
3) 学校での生活 ()

♣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부 록 2. 일본 학생 및 교원 예비설문 분석결과

2005년 9월에 수행한 본 설문조사에 앞서 6월에 일본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의 측정과 조사문항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배경

구분	남자	여자	총합
학생	61 (76.3)	165 (91.7)	226 (86.9)
교원	19 (23.8)	15 (8.3)	34 (13.1)
총합	80 (30.8)	180 (69.2)	260 (100.0)

2. 교류경험 및 방문경험, 지인 중 한국인 포함여부

구분	한국 학생과 교류경험		한국 방문경험		지인 중 한국인 포함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학생	11 (4.9)	212 (95.1)	4 (1.8)	217 (98.2)	23 (10.3)	201 (89.7)
교원	5 (15.2)	28 (84.9)	13 (38.2)	21 (61.8)	7 (20.6)	27 (79.4)
총합	16 (6.3)	240 (93.8)	17 (6.7)	238 (93.3)	30 (11.6)	228 (88.4)
χ^2	5.12**		62.83***		3.06*	

주: * < 0.1, ** < 0.05, *** < 0.01

3. 한국어 구사능력

구분	있다	없다
학생	2 (0.9)	222 (99.1)
교원	0 (0.0)	34 (100.0)
총합	2 (0.8)	256 (99.2)
χ^2	0.31	

주: * $\langle 0.1$, ** $\langle 0.05$, *** $\langle 0.01$

4. 한국 관련 정보취득경로

구분	가정	학교	친구	언론매체 (TV, 신문, 잡지, 인터넷)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적 접촉	직접적 접촉	기타	총합	χ^2
학생	7 (3.1)	6 (2.7)	5 (2.2)	200 (88.5)	5 (2.2)	0 (0.0)	3 (1.3)	226 (100.0)	4.74
교원	0 (0.0)	0 (0.0)	0 (0.0)	32 (94.1)	2 (5.9)	0 (0.0)	0 (0.0)	34 (100.0)	
총합	7 (2.7)	6 (2.3)	5 (1.9)	232 (89.2)	7 (2.7)	0 (0.0)	3 (1.2)	260 (100.0)	

주: * $\langle 0.1$, ** $\langle 0.05$, *** $\langle 0.01$

5. 한국에 대한 기본적 인식

구분	주로 긍정	주로 부정	부정·긍정 비슷	기타	총합	χ^2
학생	94 (41.6)	11 (4.9)	113 (50.0)	8 (3.5)	226 (100.0)	2.78
교원	18 (52.9)	0 (0.0)	15 (44.1)	1 (2.9)	34 (100.0)	
총합	112 (43.1)	11 (4.2)	128 (49.2)	9 (3.5)	260 (100.0)	

주: * $\langle 0.1$, ** $\langle 0.05$, *** $\langle 0.01$

6. 한국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기본적 인식

구분	주로 긍정	주로 부정	부정·긍정 비슷	기타	총합	χ^2
학생	7 (3.1)	86 (38.1)	127 (56.2)	6 (2.7)	226 (100.0)	12.59***
교원	3 (8.8)	3 (8.8)	27 (79.4)	1 (2.9)	34 (100.0)	
총합	10 (3.9)	89 (34.2)	154 (59.2)	7 (2.7)	260 (100.0)	

주: * <0.1 , ** <0.05 , *** <0.01

7. 잘 알고 있는 한국사람(%)

구분	학생	교원	총합
연예인(가수, 텔런트, 배우)	38.0	29.6	36.8
대통령과 정치인	26.2	27.3	26.3
학자 및 과학자	0.4	4.6	1.0
운동선수	21.2	20.5	21.1
사업가, 기업인	1.2	2.3	1.3
유학생 및 친구	4.0	8.0	4.6
예술가(미술, 음악, 연극 등)	1.7	2.3	1.8
기타	1.0	3.4	1.3
잘 아는 사람 없음	6.5	2.3	5.9
총합	100.0	100.0	100.0
χ^2	24.01***		

주: 1) 3가지 중복 응답에 따른 비중(%)을 표시함

2) * <0.1 , ** <0.05 , *** <0.01

8. 한국사회,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구 분	한국사회			한국사람		
	학생	교원	t검증	학생	교원	t검증
좋은 - 나쁜	3.6	3.1	2.17**	3.5	2.8	2.71***
밝은 - 어두운	3.6	3.2	1.48	3.4	3.1	1.40
깨끗한 - 더러운	3.9	3.1	3.31***	3.4	2.8	2.40**
정직한 - 부정직한	3.8	3.0	3.10***	3.5	2.7	3.04***
똑똑한 - 어리석은	3.8	2.8	4.50***	3.5	2.6	3.70***
큰 - 작은	4.3	4.2	0.49	4.2	3.9	1.65*
강한 - 약한	4.0	3.1	4.46***	3.8	3.0	3.58***
유능한 - 무능한	3.5	2.7	3.89***	3.2	2.5	3.11***
적극적인 - 소극적인	3.4	2.5	3.37***	3.2	2.4	3.69***
빠른 - 느린	3.8	3.0	3.91***	3.8	3.0	3.95***
시끄러운 - 조용한	3.4	3.0	1.27	3.2	3.5	-1.10
개방적 - 폐쇄적	4.2	4.5	-1.20	3.9	4.2	-1.22
무익한 - 유익한	4.2	4.6	-1.79*	4.2	4.6	-1.50

주: 1) 각 형용사쌍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함.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표시함

2) * < 0.1, ** < 0.05, *** < 0.01

9. 한류, 10년 후의 한국에 대한 평가

구 분	한류			10년 후의 한국		
	학생	교원	t검증	학생	교원	t검증
좋은 - 나쁜	3.3	2.6	2.70***	3.2	2.5	3.22***
밝은 - 어두운	3.0	2.7	0.96	3.2	2.8	2.05**
깨끗한 - 더러운	3.2	2.6	2.28**	3.4	2.9	1.93*
정직한 - 부정직한	3.7	3.1	2.32**	3.7	2.9	3.19***
똑똑한 - 어리석은	3.8	2.7	4.16***	3.5	2.7	3.39***
큰 - 작은	3.5	3.5	-0.32	3.7	3.4	1.23
강한 - 약한	3.4	3.2	1.11	3.4	3.0	1.82*
유능한 - 무능한	3.8	2.7	4.10***	3.2	2.7	2.08**
적극적인 - 소극적인	3.0	2.4	2.21**	3.1	2.5	2.37**
빠른 - 느린	3.4	3.1	1.37	3.5	2.9	2.15**
시끄러운 - 조용한	4.3	4.8	-1.81*	4.3	4.9	-2.36**
개방적 - 폐쇄적	3.2	3.3	-0.35	3.5	3.3	0.95

주: 1) 각 형용사쌍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함.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표시함

2) * < 0.1, ** < 0.05, *** < 0.01

10. 구체적 정보 인지 수준

구분		학생	교원	총합	χ^2
한국말이나 글자를 다른 나라의 말이나 글자와 구별할 수 있다	알고 있다.	182 (80.5)	31 (91.2)	213 (81.9)	2.26
	모른다.	44 (19.5)	3 (8.8)	47 (18.1)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알고 있다.	216 (95.6)	34 (100.0)	250 (96.2)	1.56
	모른다.	10 (4.4)	0 (0.0)	10 (3.9)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알고 있다.	60 (26.6)	29 (85.3)	89 (34.2)	45.30***
	모른다.	166 (73.5)	5 (14.7)	171 (65.8)	
한국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71 (31.4)	23 (67.7)	94 (36.2)	16.90***
	모른다.	155 (68.6)	11 (32.4)	166 (63.9)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알고 있다.	108 (47.8)	22 (64.7)	130 (50.0)	3.83*
	모른다.	118 (52.2)	12 (35.3)	130 (50.0)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알고 있다.	220 (97.4)	34 (100.0)	254 (97.7)	0.92
	모른다.	6 (2.7)	0 (0.0)	6 (2.3)	
한국의 전통 예술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구별할 수 있다	알고 있다.	127 (56.2)	24 (70.6)	151 (58.1)	2.51
	모른다.	99 (43.8)	10 (29.4)	109 (41.9)	
한국의 전통의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196 (86.7)	31 (91.2)	227 (87.3)	0.53
	모른다.	30 (13.3)	3 (8.8)	33 (12.7)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이름을 1개 이상 알고 있다	알고 있다.	56 (24.8)	28 (82.4)	84 (32.3)	44.79***
	모른다.	170 (75.2)	6 (17.7)	176 (67.7)	
당신의 나라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204 (90.3)	32 (94.1)	236 (90.8)	0.52
	모른다.	22 (9.7)	2 (5.9)	24 (9.2)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1개 이상 알고 있다	알고 있다.	144 (63.7)	28 (82.4)	172 (66.2)	4.58**
	모른다.	82 (36.3)	6 (17.7)	88 (33.9)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1명 이상 알고 있다	알고 있다.	215 (95.1)	34 (100.0)	249 (95.8)	1.72
	모른다.	11 (4.9)	0 (0.0)	11 (4.2)	

주: * < 0.1, ** < 0.05, *** < 0.01

11. 한·중·일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학생	교원	총합	학생	교원	총합	학생	교원	총합
재 산	8.9	5.5	8.5	16.8	9.4	15.8	15.2	19.3	15.7
명 예	16.4	19.8	16.8	9.4	7.3	9.2	16.1	17.1	16.3
높은 학식	20.1	18.7	19.9	12.9	7.3	12.2	14.5	10.2	14.0
권 력	12.5	4.4	11.5	13.3	10.4	13.0	9.8	11.4	10.0
미 모	7.1	7.7	7.2	6.3	3.1	5.9	2.0	2.3	2.0
타인으로부터의 존	7.7	18.7	9.0	3.1	8.3	3.8	9.4	10.2	9.5
의 리	7.4	6.6	7.3	5.2	12.5	6.2	6.6	3.4	6.3
건 강	5.4	3.3	5.2	7.9	12.5	8.5	8.9	6.8	8.7
자 유	4.7	2.2	4.4	8.4	11.5	8.8	6.2	1.1	5.6
쾌 락	1.5	0.0	1.3	4.9	8.3	5.4	2.7	4.6	2.9
환 경	1.5	2.2	1.6	2.7	2.1	2.6	2.7	2.3	2.7
신 용	5.4	9.9	6.0	7.6	6.3	7.5	3.8	9.1	4.4
기 타	1.4	1.1	1.3	1.4	1.0	1.3	2.1	2.3	2.1
총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3.25***			25.74***			13.34		

주: 1) 3가지 중복 응답에 따른 비중(%)을 표시함

2) * < 0.1, ** < 0.05, *** < 0.01

12. 일본 학생·교원이 평가하는 한국인의 국민의식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거의 동의함	거의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모름	총합	χ^2
개인보다 국가를 더 중요시 한다.	학생	24 (10.7)	98 (43.6)	39 (17.3)	8 (3.6)	56 (24.9)	225 (100.0)	2.95
	교원	3 (8.8)	19 (55.9)	6 (17.7)	0 (0.0)	6 (17.7)	34 (100.0)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학생	20 (8.9)	88 (39.3)	46 (20.5)	9 (4.0)	61 (27.2)	224 (100.0)	3.37
	교원	2 (5.9)	19 (55.9)	5 (14.7)	1 (2.9)	7 (20.6)	34 (100.0)	
단결력이 강하다.	학생	68 (30.4)	107 (47.8)	21 (9.4)	2 (0.9)	26 (11.6)	224 (100.0)	2.68
	교원	10 (29.4)	20 (58.8)	1 (2.9)	0 (0.0)	3 (8.8)	34 (100.0)	
청결의식이 높다.	학생	11 (4.9)	65 (28.9)	68 (30.2)	16 (7.1)	65 (28.9)	225 (100.0)	9.96*
	교원	3 (8.8)	17 (50.0)	6 (17.7)	0 (0.0)	8 (23.5)	34 (100.0)	
인권을 잘 보장해준다.	학생	11 (4.9)	63 (28.0)	58 (25.8)	14 (6.2)	79 (35.1)	225 (100.0)	7.90*
	교원	1 (2.9)	16 (47.1)	10 (29.4)	0 (0.0)	7 (20.6)	34 (100.0)	
환경을 잘 보호한다.	학생	4 (1.8)	33 (14.7)	80 (35.6)	18 (8.0)	90 (40.0)	225 (100.0)	5.75
	교원	1 (2.9)	9 (26.5)	6 (17.7)	3 (8.8)	15 (44.1)	34 (100.0)	
돈을 제일 중요시 한다.	학생	10 (4.4)	52 (23.1)	74 (32.9)	15 (6.7)	74 (32.9)	225 (100.0)	10.59**
	교원	0 (0.0)	3 (8.8)	20 (58.8)	1 (2.9)	10 (29.4)	34 (100.0)	
국민들끼리 싸움을 많이 한다.	학생	29 (12.9)	50 (22.2)	63 (28.0)	14 (6.2)	69 (30.7)	225 (100.0)	0.78
	교원	3 (9.1)	7 (21.2)	9 (27.3)	3 (9.1)	11 (33.3)	33 (100.0)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학생	81 (36.0)	82 (36.4)	29 (12.9)	6 (2.7)	27 (12.0)	225 (100.0)	10.42**
	교원	4 (11.8)	14 (41.2)	6 (17.7)	1 (2.9)	9 (26.5)	34 (100.0)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었다.	학생	10 (4.4)	96 (42.7)	47 (20.9)	8 (3.6)	64 (28.4)	225 (100.0)	6.96
	교원	0 (0.0)	20 (58.8)	9 (26.5)	0 (0.0)	5 (14.7)	34 (100.0)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이다.	학생	10 (4.4)	47 (20.9)	94 (41.8)	31 (13.8)	43 (19.1)	225 (100.0)	3.71
	교원	0 (0.0)	9 (26.5)	15 (44.1)	2 (5.9)	8 (23.5)	34 (100.0)	
자신의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학생	15 (6.7)	50 (22.2)	80 (35.6)	16 (7.1)	64 (28.4)	225 (100.0)	2.62
	교원	0 (0.0)	8 (23.5)	14 (41.2)	2 (5.9)	10 (29.4)	34 (100.0)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학생	12 (5.4)	50 (22.3)	78 (34.8)	28 (12.5)	56 (25.0)	225 (100.0)	7.61
	교원	1 (2.9)	14 (41.2)	9 (26.5)	1 (2.9)	9 (26.5)	34 (100.0)	
미래보다 과거를 중요시한다.	학생	64 (28.4)	71 (31.6)	36 (16.0)	7 (3.1)	47 (20.9)	225 (100.0)	11.86**
	교원	3 (8.8)	10 (29.4)	12 (35.3)	0 (0.0)	9 (26.5)	34 (100.0)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학생	65 (28.9)	92 (40.9)	27 (12.0)	13 (5.8)	28 (12.4)	225 (100.0)	10.40**
	교원	10 (29.4)	22 (64.7)	1 (2.9)	0 (0.0)	1 (2.9)	34 (100.0)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나라다.	학생	53 (23.6)	78 (34.7)	41 (18.2)	15 (6.7)	38 (16.9)	225 (100.0)	13.51***
	교원	9 (26.5)	21 (61.8)	1 (2.9)	0 (0.0)	3 (8.8)	34 (100.0)	
약속을 잘 지킨다.	학생	13 (5.8)	60 (26.7)	61 (27.1)	15 (6.7)	76 (33.8)	225 (100.0)	15.85***
	교원	1 (2.9)	20 (58.8)	4 (11.8)	0 (0.0)	9 (26.5)	34 (100.0)	
한국 상품은 믿고 살 수 있다.	학생	15 (6.7)	57 (25.3)	76 (33.8)	36 (16.0)	41 (18.2)	225 (100.0)	22.65***
	교원	1 (2.9)	21 (61.8)	5 (14.7)	0 (0.0)	7 (20.6)	34 (100.0)	
사고가 많아 불안하다.	학생	15 (6.7)	52 (23.1)	73 (32.4)	15 (6.7)	70 (31.1)	225 (100.0)	17.76***
	교원	0 (0.0)	2 (5.9)	21 (61.8)	5 (14.7)	6 (17.7)	34 (100.0)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다.	학생	15 (6.7)	70 (31.1)	76 (33.8)	29 (12.9)	35 (15.6)	225 (100.0)	24.05***
	교원	4 (11.8)	23 (67.7)	2 (5.9)	0 (0.0)	5 (14.7)	34 (100.0)	

주: *(0.1, **<0.05, ***<0.01

13. 여러 국가 상품 중 한국상품 구입의사

구 분	구입한다.	구입 안한다.	총합	χ^2
학 생	31 (13.8)	193 (86.2)	224 (100.0)	1.07
교 원	7 (20.6)	27 (79.4)	34 (100.0)	
총 합	38 (14.7)	220 (85.3)	258 (100.0)	

주: * <0.1 , ** <0.05 , *** <0.01

14. 가족 및 친척이 한국인과 결혼할 때 당신의 태도

구 분	적극적 권장	무관심	찬성하지는 않지만 축하함	적극적 반대	총합	χ^2
학 생	118 (52.7)	34 (15.2)	58 (25.9)	14 (6.3)	224 (100.0)	2.59
교 원	21 (67.7)	3 (9.7)	6 (19.4)	1 (3.2)	31 (100.0)	
총 합	139 (54.5)	37 (14.5)	64 (25.1)	15 (5.9)	255 (100.0)	

주: * <0.1 , ** <0.05 , *** <0.01

15. 호감이 가는 국가, 방문하고 싶은 국가,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구 분	호감이 가는 국가			방문하고 싶은 국가			언어를 배우고 싶은 국가		
	학생	교원	총합	학생	교원	총합	학생	교원	총합
한 국	11.1	20.7	12.2	11.6	13.3	11.8	13.9	21.4	14.9
중 국	3.9	8.7	4.5	6.5	9.2	6.8	17.5	22.5	18.2
일 본	20.0	14.1	19.3	2.1	1.0	2.0	2.1	0.0	1.8
미 국	17.9	14.1	17.4	20.6	11.2	19.4	22.2	24.5	22.5
프랑스	24.4	19.6	23.8	28.3	23.5	27.7	26.7	22.5	26.1
싱가포르	12.9	14.1	13.0	16.9	12.2	16.3	3.3	2.0	3.1
브라질	7.0	6.5	6.9	9.0	14.3	9.7	8.5	4.1	8.0
남아공	1.5	1.1	1.5	2.7	9.2	3.5	2.1	0.0	1.8
사우디	1.4	1.1	1.3	2.3	6.1	2.8	3.7	3.1	3.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3.27			24.52***			11.94		

주: 1) 3가지 중복 응답에 따른 비중(%)을 표시함

2) * <0.1 , ** <0.05 , *** <0.01

16. 친구를 사귀고 싶은 국가, 유학가고 싶은 국가, 살고 싶은 국가

구 분	친구를 사귀고 싶은 국가			유학가고 싶은 국가			살고 싶은 국가		
	학생	교원	총합	학생	교원	총합	학생	교원	총합
한 국	14.3	25.8	15.8	7.5	9.4	7.8	6.5	8.3	6.7
중 국	8.2	18.6	9.5	6.2	16.7	7.5	3.5	3.1	3.4
일 본	2.3	1.0	2.1	0.9	0.0	0.8	8.7	8.3	8.7
미 국	22.0	15.5	21.2	30.0	27.1	29.6	26.1	24.0	25.8
프랑스	23.4	14.4	22.3	30.3	27.1	29.9	28.5	29.2	28.6
싱가포르	9.9	9.3	9.8	16.6	9.4	15.7	17.2	18.8	17.4
브라질	10.9	9.3	10.7	6.5	7.3	6.6	5.9	6.3	5.9
남아공	4.3	3.1	4.1	0.8	0.0	0.7	1.7	0.0	1.4
사우디	4.7	3.1	4.5	1.4	3.1	1.6	2.1	2.1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30.00***			19.30**			2.36		

주: 1) 3가지 중복 응답에 따른 비중(%)을 표시함

2) * <0.1 , ** <0.05 , *** <0.01

17. 일본 학생의 고민사항

구 분	남학생	여학생	총합
학 교 성 적	23 (38.3)	44 (27.3)	67 (30.3)
친 구 관 계	9 (15.0)	28 (17.4)	37 (16.7)
가 정 문 제	4 (6.7)	4 (2.5)	8 (3.6)
이 성 문 제	5 (8.3)	8 (5.0)	13 (5.9)
대 학 입 시	10 (16.7)	59 (36.7)	69 (31.2)
직 업 진 로	5 (8.3)	7 (4.4)	12 (5.4)
돈과 학비문제	4 (6.7)	11 (6.8)	15 (6.8)
총 합	60 (100.0)	161 (100.0)	221 (100.0)
χ^2	11.72*		

주: * <0.1 , ** <0.05 , *** <0.01

18. 한국 학생과 만나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일

구 분	남학생	여학생	총합
학 교 생 활	14 (23.0)	68 (42.0)	82 (36.8)
가 정 생 활	7 (11.5)	27 (16.7)	34 (15.3)
취 미 생 활	16 (26.2)	41 (25.3)	57 (25.6)
친 구 관 계	2 (3.3)	3 (1.9)	5 (2.2)
이 성 문 제	6 (9.8)	4 (2.5)	10 (4.5)
대 학 입 시	6 (9.8)	8 (4.9)	14 (6.3)
직 업 진 로	1 (1.6)	1 (0.6)	2 (0.9)
학 비 문 제	1 (1.6)	1 (0.6)	2 (0.9)
기 타	8 (13.1)	9 (5.6)	17 (7.6)
총 합	61 (100.0)	162 (100.0)	223 (100.0)
χ^2	16.97**		

주: * <0.1 , ** <0.05 , *** <0.01

19. 한국교사와 만나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일

구 분	남교사	여교사	총합
진 학 진 도 문 제	0 (0.0)	3 (20.0)	3 (9.1)
학 부모 의 교 육 열	1 (5.6)	2 (13.3)	3 (9.1)
학생 부적응행동 지도	1 (5.6)	3 (20.0)	4 (12.1)
사 교 육 문 제	1 (5.6)	0 (0.0)	1 (3.0)
교 원 처 우 문 제	1 (5.6)	2 (13.3)	3 (9.10)
가 르 치 는 교 과 목	12 (66.7)	3 (20.0)	15 (45.5)
기 타	2 (11.1)	2 (13.3)	4 (12.1)
총 합	18 (100.0)	15 (100.0)	33 (100.0)
χ^2	10.88*		

주: * <0.1 , ** <0.05 , *** <0.01

20. 일본과 한국과 교육분야에서 우선 협력할 과제

구 분	남교사	여교사	총합
유 학 생 확 대	13.0	13.5	13.3
수 학 여 행	13.0	5.4	9.6
스포츠 및 문화행사 교류	32.6	24.3	28.9
토 론 회 개 최	2.2	18.9	9.6
상 호 언 어 교 육	13.0	5.4	9.6
상 호 학 교 방 문	17.4	24.3	20.5
교사 교환제도 도입	4.4	8.1	6.0
기 타	4.4	0.0	2.4
총 합	100.0	100.0	100.0
χ^2	11.51		

주: 1) 3가지 중복 응답에 따른 비중(%)을 표시함
 2) * <0.1 , ** <0.05 , *** <0.01

21. 한·중·일 상호협력의 필요성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불필요	전혀 불필요	총합	χ^2	
정치적력	남 교 사	12 (66.7)	6 (33.3)	0 (0.0)	0 (0.0)	18 (100.0)	1.79
	여 교 사	11 (73.3)	3 (20.0)	1 (6.7)	0 (0.0)	15 (100.0)	
	총 합	23 (69.7)	9 (27.3)	1 (3.0)	0 (0.0)	33 (100.0)	
경제적력	남 교 사	11 (61.1)	5 (27.8)	2 (11.1)	0 (0.0)	18 (100.0)	0.20
	여 교 사	8 (53.3)	5 (33.3)	2 (13.3)	0 (0.0)	15 (100.0)	
	총 합	19 (57.6)	10 (30.3)	4 (12.1)	0 (0.0)	33 (100.0)	
문화적력	남 교 사	12 (66.7)	6 (33.3)	0 (0.0)	0 (0.0)	18 (100.0)	1.26
	여 교 사	9 (60.0)	5 (33.3)	1 (6.7)	0 (0.0)	15 (100.0)	
	총 합	21 (63.6)	11 (33.3)	1 (3.0)	0 (0.0)	33 (100.0)	
교육적력	남 교 사	9 (50.0)	8 (44.4)	0 (0.0)	1 (5.6)	18 (100.0)	9.44**
	여 교 사	11 (73.3)	1 (6.7)	3 (20.0)	0 (0.0)	15 (100.0)	
	총 합	20 (60.6)	9 (27.3)	3 (9.1)	1 (3.0)	33 (100.0)	

주: * <0.1 , ** <0.05 , *** <0.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편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년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